

이재운
이민법 변호사
저의 케이스를
진행하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703.916.1111 / 703.916.1215

경쟁력 있는 이자율
Promo Plus
정기예금 (CD)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지점에 문의하십시오.
Bank of Hope

중영일보

“최고”
가장 많은 이들의 선택
배준원 응자
NMLS# 178471
703-868-7147

유 파이낸셜 그룹
메디케어
703-961-8811

대표전화: (703)281-9660 dc.koreadaily.com

The Korea Daily

COPY RIGHT 2024 제 69036호

Thursday, June 6, 2024 A

앤디 김 민주당 연방 상원후보 확정

(뉴저지주)

한인 첫 연방 상원의원의 도전이 시작됐다.

앤디 김(사진) 연방상원 민주당 예비 후보는 4일 열린 뉴저지주 민주당 후보 경선에서 무난히 당선됐다.

김 의원은 93% 개표가 끝난 5일 오후 5시 현재 총 36만4,254표(75.0%)를 득표해 노동운동가 패트리샤 캄포스-메디나 후보(7만7,573표, 16.0%), 시민단체 활동가 로런스 웹 후보(4만3,934표, 9.0%)를 멀찌감치 따돌리고 승리를 거머쥐었다.

이로써 그는 동부 지역 최초의 아시아인 연방 상원의원, 100년 한인 이민사의 최초 연방 상원의원이 되기 위한 마지막 관문인 11월에 한발짝

뉴저지주 예비선거 압승
개표결과 75.0% 득표 선전
최초 한인 상원 탄생에 관심



더 다가갔다.

그가 민주당 후보로 선출될 경우 본선에서는 공화당 후보와 현역 상원 의원을 포함한 무소속 후보들에 맞서 마지막 결전을 펼치게 된다. 올해 41세인 김 의원은 공직자는 직업이 아닌 삶 그 자체여야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평소 철학을 밝힌 바 있다.

버락 오바마 백악관에서 이라크 담당 보좌관으로 근무한 바 있는 그는 상원 출마 동기를 묻는 질문에 어린 아들 둘을 위해 좋은 나라를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원칙이 고수되는 국가와 사회를 지향하겠다는 것이다. 그의 참신한 시각도 주목을 끌고 있지만 전국 한인

사회에서는 그가 한인으로는 최초로 연방 상원에 입성하기를 손꼽아 기다려왔다.

그의 당선은 현재까지 한인 사회가 배출한 5명의 연방 하원의원과 더불어 이민사의 한 줄기를 써내려가는 것은 물론, 막강한 연방 차원의 인사, 외교, 국방 분야에서 큰 목소리를 낼 수 있어 한미와 북미 외교 관계에서도 적잖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국영 NPR 뉴스는 3일 “기존의 트랙을 벗어나 변화를 시도하고 성공했던 김 후보가 상원의원으로 가는 정규 트랙에 올랐다”고 보도했다.

최인성 기자

한국 1인당 국민소득 “일본 앞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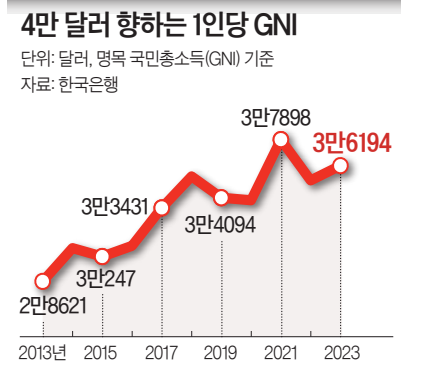
지난해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사상 처음으로 일본을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5000만명 이상 국가 중 예선 6위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 1분기(1~3월) 실질 GNI는 전 분기 대비 2.4% 늘어 8년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다.

5일 한국은행은 ‘2024년 1/4분기 국민소득(잠정)’ 통계를 발표했다. 한은은 지난해 1인당 GNI가 3만6194달러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한은이 국민계정 통계의 기준 연도를 2015년에서 2020년으로 개편하면서 상향조정된 결과다. 기준년이 2015년일 때 지난해 1인당 GNI는 3만3745달러였다.

이에 따라 지난해 1인당 GNI가 사상 처음으로 일본(3만5793달러)을 제친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5000만명이 넘는 국가 중에서는 미국·독일·영국·프랑스·이탈리아에 이어 여섯 번째로 높다. 1인당 GNI는 국민의 전반적인 생활수준을 파악하는 지표로, 명목 GNI를 국내에 거주하는 총인구수로 나눠 계산한다.

최정태 한은 국민계정부장은 “일본은 2022년에 이어 2023년에도 통화가치가 하락하면서 1인당 GNI 순위가 한국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환율이 안정된다는 전제하에 한국은 수년 내에 4만 달러 달성이 가능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오호정 기자 >> 2면 ‘국민소득’으로 이어집니다



연방의회, 입양인에 시민권 부여안 재발의

“시민권 미소유 4만9000명
절반 한국 출신으로 추산”

한국 출신을 비롯해 미국에 합법적으로 입양됐으나 시민권이 없는 사람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하기 위한 입양인 시민권법안이 4일 연방의회에서 발의됐다.

법안은 시민권이 없는 입양인들에게 정당하게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스미스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어렸을 때 미국에 입양되었지만, 법의 공백으로 시민권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수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면서 “입양인들은 미국 시민으로서 모든 권리를 누릴 자격이 있다”고 말했다.

1945년에서 1998년 사이 해외에서 미국으로 입양된 사람 가운데 현재 4만9000명가량이 입양 당시의 상황으

로 시민권이 없는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성인이 되기 전까지 자신이 시민권이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연방의회는 이를 구제하기 위해 2000년 만 18세 미만 입양아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아동 시민권법을 처리했다. 그러나 법 시행 당시 18세 이상인 입양아들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연방의회에서는 이후 법적 공백을 메우기 위해 회기마다 ‘입양인 시민권안’이 발의됐으나 처리되지 못했다.

미주한인유권자연대(KAGC)는 보도자료에서 “평생을 미국에 살았음에도 시민권 취득에 위기를 겪고 있는 해외 입양인 중 절반가량이 한국 출신으로 추산된다”면서 “KAGC는 현행 제도의 허점을 개선하며 가족을 지킬 수 있는 법적 해결책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한반도에 뜬 미국 B-1B
7년만에 JDAM 투하 훈련

(합동직격탄)

최근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와 GPS 교란 공격, 이에 대응한 한국의 ‘9·19 군사합의’ 전면 효력 정지로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5일 미국 공군 B-1B 전략폭격기(왼쪽)와 한국 공군 F-15K가 한반도 상공에서 연합훈련을 하고 있다. B-1B가 한반도로 날아와 합동직격탄(JDAM)을 투하한 것은 7년 만이다. JDAM은 재래식 폭탄에 유도장치와 날개 키트를 달아 스마트무기로 변형시킨 정밀유도폭탄이다.

>> 관련 기사 2면

[사진 국방부]

퍼스트 홈케어
WWW.FIRSTHCO.COM
571.549.6789

엘리콧시티 교통사고
모커리 척추병원
목·허리 통증 전문 병원
교통 사고
원장 Dr. 김홍국 D.C.
410-480-0083

편한나라 척추신경
교통사고 디스크
엘리콧시티
410-480-2331
락빌
301-279-6960
원장 송영성 D.C.

롱라이프 홈케어
571.623.0255
Annandale

골든 벨라 보석상
결혼 예물 전문
G.I.A 다이아몬드
보석급 고가 해입
순금 야기 물만지못함
보석 세공, 시계 수리
703.988.0033 센터빌
301.792.5615 H-Mart 내

MD Ellicott City
Snoopy Pet Grooming
강아지 그루밍 배우실분
강아지 그루머 구합니다.
443-759-9798

마우리 왓츠 & 단 박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Watts & Park

“교통사고는 왓츠 & 박”

40여년의 법정 변호사 경력 / 3대째 변호사 집안

한국어 상담 안 윤희 (Yoon Hee Ahn)

히스패닉 상담 Consultas en Español 하이디 살게로 (Haidee)



변호사
Maury B. Watts, III
마우리 왓츠



변호사
Dan D. Park
단박



변호사
Roopal Gupta
루팔 고크다



사무장
YoonHee Ahn
안윤희

보상금을 받아내지 못 할 경우
변호사비용 일체 무료

- ▷ 자동차 사고, 오토바이 사고, 트럭사고, 자전거 사고 등 모든 교통사고 처리
- ▷ 사고로 인한 의료비 및 임금청구와 고통에 대한 충분한 보상금 해결
- ▷ 차수리, 렌트카, 병원 등 모든 일체를 도와드립니다.

저녁 & 주말 전화상담 가능!

Cell: 703-994-6643

무료상담

703.256.8797 / 301.495.5619 / 410.783.1220

7010 Little River Tnpk., Suite 200, Annandale, VA 22003

액트지오 오너 “동해 유전, 명확히 답하러 한국 왔다”

‘경제성 높냐’는 질문에 “그렇다”
내일 세종청사서 공식 기자회견

동해에 최대 140억 배럴의 석유·가스 자원이 매장돼 있을 가능성을 제기한 미국 컨설팅업체 액트지오(Act-Geo)의 비토르 아브레우 박사가 5일 한국에 입국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사실을 발표한 지 이틀 만이다.

아브레우 박사는 이날 오전 인천 국제공항 입국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동해 유전) 발표 이후 한국 사회에서 많은 의문이 제기됐다”며 “이번 프로젝트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더 나은,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 한국을 방

문하게 됐다”고 밝혔다. 동해 석유·가스전의 경제성이 높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다만 “한국석유공사와 비밀 유지 약속을 했다”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이어 “석유공사로부터 조사된 광구에 대한 사업성 평가를 의뢰받았다”며 “우리가 검토한 것은 이전에 깊이 있게 분석된 적이 없고, 새로운 자료들”이라고 말했다.

아브레우 박사는 오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갖고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한 기준과 향후 개발 가능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할 계획이다. 아브레우 박사는 방한 직전 연합뉴스

스와 사회관계장서서비스(SNS) 메시지를 통해 진행한 인터뷰에서 액트지오에 대해 “전 세계 심해 저류층 탐사에 특화된 ‘니치’(niche·틈새시장) 회사”라며 “고객사로 엑슨모빌, 토탈과 같은 거대 기업과 아파치, 헤스, CNOOC(중국해양석유), 포스코, YPF(아르헨티나 국영 에너지 기업), 플러스페트를, 톨로우 등 성공적인 기업들을 두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이어 “건물을 소유하거나 여러 명의 부사장을 두는 방식이 아니라 수평적 구조에서 일한다”며 “핵심 분야에서 인정받는 세계적인 전문가들과 협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경북 포항 영일만 일대에 최대 140억 배럴 규모의 석유·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한 미국 액트지오(Act-Geo)의 비토르 아브레우 박사가 광구 유망성 평가 등 자문을 위해 5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통해 입국,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미, JDAM 투하 합동훈련... 김정은에 강력경고 메시지

(합동적격탄)

JDAM, GPS로 정확한 폭격 가능
탈북단체 대북전단 예고 전날 훈련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와 위성항법장치(GPS) 교란 공격, 이에 대응한 정부의 ‘9·19군사합의’ 전면 효력 정지와 최전방 군사훈련 재개 방침 발표 등으로

남북 간 긴장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미군 B-1B 랜서 전략폭격기가 5일 한반도에 전개해 국내 사격장에 합동직격탄(JDAM)을 투하했다.

B-1B 전략폭격기의 한반도 JDAM 투하 훈련은 2017년 이후 7년 만으로, 북한의 향후 추가 도발 시 강력히 대응

하겠다는 경고로 해석된다. JDAM은 정밀유도폭탄 중 하나로 위치정보시스템 신호를 활용해 표적 지역을 정확하게 때릴 수 있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날 훈련에는 한국 공군의 F-35A, F-15K, KF-16 전투기와 미군의 F-35B 등이 참여했다.

특히 이날 훈련은 남측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앞둔 시점에 이뤄졌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탈북민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은 “6일 전후로 바람의 방향을 고려해 휴대용 저장장치(USB) 5000개와 대북 전단 20만 장을 북측으로 날려 보내겠다”고 밝혔다. 북한은 지난 2일 김강일 국방성 부상 명의의 담화에서 오물 풍선 살포 중단 의사를 밝히면서 “한국이 뼈라(전단)

살포를 재개하는 경우 발견되는 양과 건수에 따라 백 배의 휴지와 오물량을 다시 집중 살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가정보원은 이날 “북한이 최근 동해선 북측 구간 선로를 일부 철거하는 정황이 있어 관련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북한은 남북을 잇는 경의선과 동해선 육로에 지뢰를 매설하고 가로등을 철거했다. 이근평·박현주 기자

▶ 1면 ‘국민소득’에서 이어집니다

실질적인 구매력을 나타내는 실질 GNI는 1분기 567조5000억원으로 지난해 4분기(554조5000억원)에 비해 2.4% 늘었다. 2016년 1분기(2.8%) 이후 가장 높다.

교역조건이 개선되면서 실질무역손실이 -11조 3000억원으로 지난해 4분기(-17조원)보다 크게 축소된 영향이다. 한은은 “반도체 등 수출품 가격이 전 분기 대비 상승한 데에 반해 천연가스 등 수입품 가격이 하락해 교역조건이 개선됐다”고 분석했다.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전 분기 대비 1.3%로 잠정 집계됐다. 2021년 4분기(1.6%) 이후 2년 3개월 만에 가장 높은 분기 성장률이다. 건설투자가 3.3% 증가하고, 수출이 1.8% 증가한 영향이다.

다만 건설투자의 호조세는 일시적일 가능성이 크다. 최정태 부장은 “건설투자의 경우 지난해 부진했던 기저효과와 양호한 기상여건 등이 반영된 결과”라며 “향후 입주물량 감소, 착공수주 감소세 영향으로 다소 부진한 흐름이 예상된다”고 봤다. 올해 GDP 증가율 전망에 대해서는 “1분기 수준이

높았으니 2분기에는 조정이 이뤄진 뒤 3분기와 4분기에는 회복하는 흐름일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국민계정 기준년 개편으로 지난해 명목 GDP도 2236조원에서 2401조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통상 기준년 개편 시에는 경제총조사 등을 반영한 기초자료가 보완되면서 명목 GDP가 상향 조정된다. 새롭게 포착되는 경제활동이 반영돼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다. 이번 개편에는 기준에 누락됐던 전자상거래·1인 미디어·공유공간 사업체 등이 반영됐다. 이에 따라 브라질·오스트레일리아 등에 밀려 13~14위까지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던 명목 GDP의 세계 순위는 12위로 반등했다.

명목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도 100.4%에서 93.5%로 내려왔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국제금융협회(IIF)가 집계한 주요국 가계부채 비율은 지난해 기준 미국 72.8%·일본 64.1% 등이다.

지난해 8월 이창용 한은 총재는 “80%를 넘어 가면 경제성장을 제약할 수 있는 만큼 점진적으로 80%까지 낮추는 게 목표”라고 언급한 바 있다. 오효정 기자

김진표 전 국회의장 “저출생 극복, 개헌으로 해결해야”

김진표 전 국회의장이 5일 “정부와 국회는 인구 절벽 문제를 심각한 국가 위기로 인식해 장기 여젠다로 관리해야 한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전 의장은 5일 오후 강원 춘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저출생 시대 극복을 위한 제안’이라는 명사초청 강연에서 “그동안 개헌 논의가 권력구조 배분 중심으로만 이뤄져서 국민 지지를 제대로 얻지 못했지만, 모두가 공감하는 저출생 분야만 개헌하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 남은 임기 동안 보육·교육·주택 등 저출생 대책 분야에서 20·30세대의 80~90%가 공감할 수 있는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헌법 규범화할 수 있도록 다음 대선 때 국민투표로 개정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전 의장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함께 바뀌는 중구난방식 대책은 효과가 없다”며 “최소 10~20년 해야 효과가 나오는 저출생



김진표 전 국회의장 저출생 대책 강연 [춘천시 제공]

대책이 5년 단임제로 인해 단기적 안목으로 5년 내 성과를 내는 것을 목표로 운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인구소멸 위기 해결을 위한 5대 개헌 아젠다와 혁신과제로 보육혁신을 비롯해 교육혁신, 주거혁신, 해외인력 유치, 병역감소 대응, K-실리콘밸리 등을 제시했다.

워싱턴 날씨 (°F)

7일(금) 80~59	10일(월) 78~62
8일(토) 80~64	11일(화) 78~66
9일(일) 80~62	12일(수) 87~71

6월 6일(목) 83~67

워싱턴 중앙일보

7023 Little River Tpke #310, Annandale, VA 22003

The Korea Daily (USPS 020-081) is published daily except Sundays and Postal holidays that fall on Mondays for \$120 including applicable Virginia Sales Tax per year by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pke., Annandale, VA 22003. Periodicals Postage paid at Annandale, VA and at additional mailing offices.

POST MASTERS: send address changes to The Korea Daily.

연순향 부동산 C. 703-489-6926
sunnyyeon@gmail.com

**20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으로
여러분의 부동산을 잘 팔고 잘 사고
렌트도 잘 매니지먼트 해드립니다.**

상용건물! 사업체! 주택매매!

이제 오승환과 함께하십시오!

주택 리스팅 받습니다!
MD 리퀘스토어, 세탁소 리스팅 보유

언제든지 상담환영합니다! (건물·사업체·주택)
비즈니스 손님이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주세요!

Realtor® EA/Notary Public **Seung Oh**
오승환 410.303.0452

GIANT REALTY

3277 Pine Orchard Ln. Suite 2, Ellicott City, MD 21042
O. 410-750-8040 F. 410-750-3992

MD Ellicott City

Snoopy Pet Grooming

강아지 그루밍 배우실분
강아지 그루머 구합니다.

443-759-9798

보훈부, 1080만불 보너스 논란

연방보훈부가 법률 근거도 없이 고위직 공무원(Executive Level)에게 1080만달러에 달하는 특별 상여금을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으나, 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 비난을 받고 있다.

연방보훈부는 작년 연방재향군인 건강 특별법(PACT Act)에 의해 192명의 고위직 공무원에게 특별 재능 보유 보너스(CDI) 1080만달러를 지급했다. 하지만 고위직 공무원은 이 보너스 지급 대상에서 제외돼 있었다.

연방보훈부는 이 규정을 무시한채 작년 9월 재향군인보건국과 재향군인 혜택국에 재직하고 있는 고위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보너스를 지급하는 예산안을 상정했으며 연방의회는 자신들이 만든 법률 검토도 없이 승인했다.

고위직에 '불법 상여금' 드러나자 책임 회피 급급



고위직 공무원들은 연간 기본급 총액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불 보너스로 지급받았다. 연방보훈부는 연방의회 승인 직후 보너스를 지급했으나 나중에 내부고발자에 의한 법률 위반 지적이 나오면서 문제가 불거진 것이다. 데니스 맥도노우 보훈부 장관은 "규

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하고 전액 환수하겠다"고 밝혔으나, 아직 회수율은 92%에 불과하다.

공화당 의원들은 맥도노우 장관에게 보너스 예산 집행을 기획한 실무 부서장인 차관과 실국장의 경질 혹은 징계를 요구하고 나섰다. 맥도노우 장관은 "모두가 간과했던 실수였으며 모든 책임은 내게 있다"며 부하직원을 보호하는 것에만 골몰하고 있다.

도노우 장관은 CSI는 연방보훈부 직원 4만1천여명에게 모두 3억4천만달러 이상 지급됐으며, 잘못 지급된 금액은 일부분에 불과하다는 궤변을 늘어놓기도 했다.

직원들의 평균 수령액은 8300달러였다. 김옥채 기자

'2024 아태문화축제' 열린다

오는 8일 MD 인디언 헤드 한미문화예술재단 주최

한미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태미) 주최 제18회 아태문화축제 '아리랑 코리아'가 오는 8일(토) 낮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 메릴랜드 인디언 헤드 소재 빌리지그린 파크에서 열린다. 재단은 5일 간담회를 열어 행사를 소개했다. 이태미 이사장은 "이날의 성대한 축제를 통해 많은 분들이 다양하고 풍성한 한국의 문화예술을 접하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축제는 재단 산하 한국문화예술 아카데미 예술단원들의 다채로운 문화행사와 공연들로 꾸며진다. 김란(살풀이20호무형문화제) 선생의 이수자 박아람 무용가의 '조립둥'이 무대에 오르고 이희경 무용단, 황순복 열풍 예술단의 공연이 펼쳐진다.

더불어 김현정 예술분과위원장의 '사람은 보석이다' 전시회를 비롯해 전라남도 무형문화제 전남의례 음식장 전수자 박송희(21세기 자연음식) 원장이 다양한 한식요리들을

선보인다. 또한 경기도 무형문화제 제 63호 한지꽃 기능보유자 이주환 작가의 '설위설경' 시범 등 다양한 볼거리와 먹거리를 즐길수 있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박아람 무용가는 "고구려의 조흔 풍속을 전례로 창작한 조립둥을 통해 한국의 전통문화를 춤으로 알리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아리랑 코리아'에 참여한지 어느덧 십수년이 훌쩍 지났다는 이주환 작가는 "십년 넘는 세월이 흐르고 나서야 미국인들을 조금 알게되었다"며 "타문화를 받아들이는데 적극적이고 정직한 미국사람들의 열정에 반했다"고 말했다. 이 작가는 이날 한지꽃 시범 외에 범고구 무연을 할 예정이다.

한편 재단은 다음달 20일까지 한국문화예술아카데미 수강생을 모집중이며 오는 14일(금), 15일(토) 현지인들에게 다양한 한국문화를 소개하는 '찾아가는 한국 문화 체험 교실'을 개최한다.

문의: 703-200-9390 김윤미 기자



박아람 무용가



이주환 작가

SBA, 자영업 대출 ... 최대 500만불로

15만불 이하 정부 85% 보증

연방중소기업청(SBA)이 최대 500만달러까지 스몰비즈니스에 빌려주는 파일렛 영업자본(working capital)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4월 SBA의 이사벨 카시야스 구즈만 청장은 CNBC와 인터뷰를 통해서 스몰비즈니스 오너들이 정부가 보증하는 크레딧라인을 통해 최대 500만 달러까지 빌릴 수 있는 프로그램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5만 달러 이하는 정부가 85%까지 보증하고 15만 달러가 넘는 대출은 정부 보증 비율이 75%로 줄어든다. 이 프로그램의 특징은 대출금의 일정 금액만 상환하면 되는 리볼빙 크레딧 라인

이라는 점이다. 다시 말해, 스몰비즈니스 오너가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구즈만 청장은 프로그램 시작일이나 신청 자격 및 제한점 등의 구체적인 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SBA 용자 업계 관계자들은 "경기 하강으로 대출 기준이 강화되면서 스몰비즈니스 오너들이 영업자금 조달에 애를 먹고 있다"며 "정부가 보증을 통해 은행과 대출기관들의 부담을 줄여줘 그들이 스몰비즈니스 대출을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이 프로그램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SBA 측에 따르면, 이 파일렛 프로그램의 대출 이자율은 우대금리(프라임

레이트)에다 3%에서 6.5%를 더한 수준으로 책정될 것으로 보인다. 대출기관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대략 12%에서 15% 사이다.

구즈만 청장은 "이자율이 높은 지금 상황에서 우리의 역할은 스몰비즈니스와 중소기업에 대출의 문을 더 넓게 열어주는 것"이라며 "이 프로그램을 통해 기업들이 일상적인 운영에 필요한 자금 즉 영업자본을 조달하기 더 쉬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아직 구체적인 프로그램 내용이나 운영 세칙 등이 결정되지 않아서 이르면 3분기 중에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관심 있는 스몰비즈니스 오너는 프로그램 론칭 후 SBA 웹사이트(sba.gov)를 통해서 프로그램에 지원할 수 있다. 조원희 기자

SAT 제출 대학 늘면서 시험등록 '전쟁'

응시 급증에 시험장소 못찾아 타주 원정가서 시험 치르기도

팬데믹 때 대입시험(SAT·ACT) 점수 제출을 면제했던 대학들이 SAT 점수를 다시 요구하면서 시험을 치르기 위

해 비행기를 타고 다른 주까지 가는 케이스도 나오고 있다.

LA타임스는 샌프란시스코에 사는 한 학생이 지난 1일 실시된 SAT에 응시하기 위해 1800마일이나 떨어진 텍사스 델러스까지 갔다고 보도했다. 이

는 팬데믹 이후 SAT 시험장소는 줄어들었지만, 대학들이 SAT 점수 제출의 무화를 다시 도입하자 시험을 치르려는 학생들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신문은 최고의 인기스타 테일러 스위프트의 테일러 스위프트 콘서트 티켓을 구하는 것보다 대입시험 등록이 어려워졌다고 전했다.

실제로 한인 학생들도 SAT 시험을 치르기 위해 수십 마일이 넘는 도시를 찾아가고 있다. 지난 3월 시험에 응시했다는 다른 학생(크레센타밸리고교)도 "시험 장소가 없어서 집에서 40마일 넘게 떨어진 곳에 갔는데 시험장에 들어가려고 기다리는 학생 줄이 500피트는 죽히 넘게 이어져 있어 놀랐다"며 "팬데

믹 전으로 돌아간 것 같았다"고 전했다. 한편 뉴욕에 있는 공정시험센터에 따르면 2025년도 대입 심사 항목에서 SAT 점수를 보지 않겠다고 밝힌 4년제 대학은 전체 대학 중 4%에 불과했으며, 87%는 선택사항으로 지정해 지원자의 점수 제출을 암묵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장원희 기자

OMNI
Protecting Your Dreams Since 1985
오직 OMNI!
보통에 관한 일은 선택 - OMNI화재

- 사업체보험
- 자동차보험
- 집보험
- 의료보험
- 생명보험

광고는 때때로
OMNI
1-866-915-6664

김진욱
척추신경전문의

- 최신형 의료시설 완비
- 최신형 X-Ray 완비
- 교정 및 물리치료
- 의료보험

703-691-3111

고객의 꿈을 실현하는
메트로시티은행
METRO CITY BANK

SBA 융자, USDA 융자, 주택 융자

센터빌 지점 571-490-7655 애너데일 지점 571-335-7163

한번고객은 평생고객
탑여행사
www.toptravelusa.com
info@toptravelusa.com

센터빌 703.543.2322 VA
애너데일 703.256.0606 VA
엘리콧시티 410.480.0100 MD

항공권도매직판점

Dental Implant (치과 임플란트) \$1,000

- Implant Crown, Extra (임플란트 크라운, 별도) \$750

40 years of experience in every aspects of Dental Implants

(다양한 종류와 형태의 치과 임플란트, 40년 경력)

Kie D. Lee, DDS, MD
(703)569-8000
WashingtonImplantCenter.com
6220 Old Keene Mill Ct., Springfield, VA 22152

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회총회 인준
워싱턴 개혁 신학교
Washington Reformed Seminary

SEVIS로부터 I-20 Form을 자체 발행
2024년 가을 학기 입학 및 편입을 안내합니다.

본 신학교는 1990년 시작하여 미주에서 가장 큰 한인 장로교 교단인 미주한인 예수교 장로회(Korean American Presbyterian Church) 총회 인준학교로, 북미주개혁장로교단협의회(NAPARC: North American Presbyterian and Reformed Council)의 정회원과 버지니아 주정부 교육기관(SCHEV)으로부터 학위 인정을 받은 신학교입니다.

본 신학교는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변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군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딤후 2:15)는 말씀을 바탕으로 지성, 인성, 영성을 목표로 하고 개혁주의 신앙에 입각하여 모든 학과는 이 신앙 노선에 준하여 가르치고 있습니다.

2024년 가을학기 입학 및 편입안내 모집요강

원서접수마감	2024년 8월 27일
등록일	2024년 8월 27일
개강일시	2024년 8월 27일
강의시간	월, 화, 토(오전 8시-오후 10시)

제출서류

- 입학원서(본교 소정약식) 1통
- 당회장 추천서 1통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1통
- 신앙고백서
- 명함판 사진 2매(2x2)
- 입학전영료 50불

특전

- 국내외 저명한 교수진 확보
- 성적 우수 학생에게는 장학금 지급하며 극빈학생에게는 근로 장학금 지급함
- 특히 목회자, 선교사적 사명이 투철한 학생에게는 선별 심사 후 장학금 지급함
- M.Div. 과정을 졸업한 자는 본 총회에서 실시하는 목사 고시를 거쳐 목사안수를 받을 수 있음(미국 군복 입대 가능함)

모집학과 및 응모자격

학사학위과정	석사학위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음악학과(Diploma) 2년 신학박사 (B. Th) 4년 자격: 고등학교 졸업자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독교 교육학 석사(M.R.E) 교역학 석사(M.Div) 자격: 학사학위 및 동등학위 이상 소유자 신학석사 (Th.M) 자격: M.Div 학사학위 이상자
박사학위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목회학 박사(D.Min) *자격: M.Div 학위 이상 및 목회 경력 5년 이상 철학 박사(Ph.D) 	

원서교부 및 접수처 본교 교무과 **wrsus.org**

VA Campus 10018 Burke Lake Rd., Burke, VA 22015
MD Campus 10378 Baltimore National Pike, Ellicott City, MD 21042

문의전화 총무처장 이해갑 박사
703-801-3440 / 703-973-2231

워싱턴 개혁 신학교 학장 박대일 박사
이사장 최신일 장로

“나는 평균적 미국인... 한국서 먹는 한식 먹고 싶다”

한식 세계화 15주년 진단⑥

LAT 빌 에디슨 음식 평론가
“한국식 바비큐·치킨엔 한계
정통 한식부터 알고 싶어”



인터뷰는 지난 4월 22일 부일 삼계탕에서 진행됐다. LAT타임스의 빌 에디슨 음식 평론가는 얼굴 사진을 찍지 않는다. 뒷모습만 촬영해달라는 그의 요청으로 본지 기자와 인터뷰하는 장면을 촬영했다. 김상진 기자

중심, 특히 소고기 중심이다. 그렇기에 한국식 바비큐 문화가 미국인들에게 쉽게 다가왔다. 자육한 연기 속 고기를 굽는 행위나 단맛의 음식이 백인 중심 주류 문화에서 선호된다. 한국식 바비큐는 이를 그대로 보여준다. 또 눈앞에서 고기를 굽는 게 보는 재미를 더해준다. 호응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한식만의 차별화된 맛은.

“달콤함과 매콤함이 섞인 한국 고유의 복합적인 매운맛이다. 한식의 맛이 일식, 중식과 겹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한식의 매콤함은 한국인의 맛을 설명하기 가장 좋은 예시라고 생각한다. 한식의 매운맛은 미국인들이 주로 경험해온 시큼하면서 매운맛과는 결이 달라 색다르게 느끼고 더 좋아한다.”

-한식의 매운맛은 다양하네.

“발효된 김치의 매콤함과 고추장의 매콤함의 차이를 이제는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다. 또 시간이 갈수록 더 많은 사람이 이해할 것이다. 10년 전만 해도 미국 미디어는 한식의 매운맛을 구분하지 못했다. 다 묶어서 코리안

칠리 가루, 코리안 스파이스 소스라고 불렀다. 지금은 ‘고추장’이라는 고유 명사로 부르고 있다. 많은 사람이 고추장이라는 단어를 알고 있다.”

-정통 한식과 퓨전 중 원하는 것은.

“정통 한식의 개념을 먼저 이해하고 싶다. 그래야 재해석된 한식(퓨전 한식)의 기원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정통 한식을 알면 퓨전 한식당을 갔을 때 정통 한식과 달리한 셰프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다. 이는 한식뿐만 아니라 모든 장르의 음식에 해당한다. 다만, 퓨전 한식을 아예 배제하자는 건 아니다. 퓨전 한식을 먼저 접하고 마음에 들었다면 정통 한식을 갈구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외국인들의 한식 이해도를 높이고 한식의 지평을 넓혀주기도 한다.”

-한식의 강점을 하나만 꼽아달라.

“한식은 미국 음식에 자연스레 스며드는 기능이 있다. 한식의 요소가 미국 요리 과정에 첨가되도 충분히 잘 어울린다. 이는 다양하고 계속해서 변하는 미국인들의 입맛에 한식이 잘 맞는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일례로 애플

샌더에 에어룸 마켓 바비큐라는 곳이 있다. 미국 남부식 바비큐 요리와 각종 사이드를 선보이는데 한식의 요소가 가미돼 동일 선상에 있는 다른 바비큐 전문점들보다 더 맛있다.”

-한식은 미국 식문화에 어느 정도 스며들었나.

“이미 많이 들어왔다. 한류 영향에 힘입어 노래, 영화, 패션뿐만 아니라 음식도 많이 노출됐다. 미국인들도 김치를 활용한 요리를 많이 한다. 또 김치를 사이드로 내놓는 주류 식당도 여럿 있다. 한식당도 많이 늘었다. 최근 미국의 한인 셰프들이 자신만의 방식으로 한식을 표출하는 식당도 늘었고 미국에 진출하는 한식당도 많아졌다.”

-한식의 인기가 지속할 수 있을까.

“인기가 사라지진 않을 것이지만 변동 폭은 늘 있다. 한식의 지속적인 관심도는 한국인들에게 달려있다. 한국식 바비큐나 치킨을 계속해서 보여주는 것은 한계가 있다. 전통적이고 다양한 한식을 선보이면 한국의 맛뿐만 아니라 한국 고유의 문화와 역사도 알려지게 될 것이다.” 김경준 기자

한국 라면 ‘뜨거운 인기’... 미국 수요 급증

누적 수출액 4억8620만불
과자·음료·김치도 증가세

한국의 라면 수출 금액이 2개월 연속 1억 달러를 넘었다. 한국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달 라면 수출액이 1억730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4일 밝혔다.

라면 수출액은 지난 4월 1억859만 달러로 작년 같은 달(7395만 달러)보다 46.8% 증가해 처음 1억 달러를 돌파하고서 두 달째 1억 달러를 웃돈 것이다. 라면은 올해 들어 5월까지 가장 많이 수출된 농식품 품목으로, 누적 수출액은 작년 동기보다 36.2% 증가한 4억

8620만 달러다.

한국 라면의 가장 큰 수출 시장인 중국에서는 한국 업체의 주요 온라인 유통망 입점이 확대돼 수출액이 906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7.7% 증가했다. 한국 라면의 인기가 높아진 미국 시장 수출액은 71.4% 늘어난 8150만 달러다. 아세안과 유럽에서도 각각 24.8%와 49.5% 증가하는 등 세계적으로 라면 수출은 호조세다.

이외에도 과자류, 음료, 김치 등 주력 품목 중심으로 수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1~5월 농식품 수출 누적액(잠정)은 작년 동기보다 7.6% 증가한 39억6000만 달러다. 전년 대비

수출 증가율은 최근 3개월간 매달 상승했다.

과자류 수출액은 12.6% 증가한 2억9160만 달러다. 특히 국내에서는 코스트코 등 주류 매장부터 저가형 프랜차이즈까지 입점이 확대되면서 과자류 수출액이 38.3% 늘었다. 음료는 13.1% 증가한 2억6970만 달러다. 식물성 음료(중국), 에너지음료(캄보디아), 어린이음료(베트남) 등의 수출이 증가하고 있다.

김치 수출은 6.4% 증가한 7070만 달러로, 미국과 유럽 시장을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다. 김치 업계는 유럽에서 상운유통 김치 등 신제품을 출시하고 미국에서는 월마트, 코스트코 등의 주류 매장 입점을 확대했다. 김치 수출은 미국과 유럽이 각각 25.8%와 37.5% 증가했다.



미국내 급증한 수요에 힘입어 한국의 라면 수출이 2개월 연속 1억 달러를 돌파했다. 한 고객이 한인마켓에서 라면을 고르고 있다. 김상진 기자

DARCARS®

LEXUS OF SILVER SPRING

실버스프링 렉서스에서 최고의 딜을 만나십시오.

Huge Selection of New and Certified Pre-Owned Vehicles

SALES | 301-234-8525 SERVICE | 301-234-8583 PARTS | 301-235-1016

2505 Prosperity Terrace, Silver Spring, MD 20904

DARCARS.com

차량 리콜 2제

엘란트라 등 1만3000대
배기가스 장치 밸브 이상

트드라·렉서스 10만2천대
V6 엔진 시동장치에 문제



현대가 차량 1만3000여대에 대한 리콜을 단행한다.

리콜 대상 차량은 2024년형 엘란트라, 코나(사진), 베누다. 도로교통안전국(NHTSA) 측은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 밸브에 문제가 있었고 이로 인해 차량이 갑작스레 동력이 떨어지는 현상이 발견됐다고 전했다.

NHTSA 측은 차량이 갑자기 느려지거나 멈추면 사고위험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번 리콜 조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현대 측은 리콜 대상 차량 1만 3511대에 대해서 밸브를 무료로 교환해 줄 예정이다. 대상 고객은 6월 28일까지 무료 교환에 대한 내용을 담은 우편을 받게 된다.

도요타가 엔진 결함이 발견된 차량 10만 2000여대에 대해 리콜을 실시한다. 리콜 대상 차량은 2022년과 2023년형 트드라와 렉서스 LX(사진) 모델이다. 도로교통안전국(NHTSA) 측은 두 차량에 쓰인 V6 엔진에서 갑자기 시동이 꺼지는 문제가 발생했다고 리콜 이유를 설명했다. 생산과정에서 생긴 이물질이 제대로 제거되지 않아 엔진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드라나 LX를 소유하고 있다면 도요타 웹사이트나 NHTSA 웹사이트에 차량고유번호(VIN)를 입력해 리콜 대상인지 확인할 수 있다. 다만 도요타 측은 어떤 조치를 취해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는 아직 확정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조원희 기자**

“바이든 인지기능 저하 조짐”

비공개 회의서 같은 말 반복

조 바이든 대통령(81·사진)이 인지 기능 저하의 징후를 보인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5일 45명 이상의 증언을 바탕으로 수 개월간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이같이 보도했다.

WSJ은 바이든 대통령의 인지 기능 저하에 대해 우려를 표한 대다수는 공화당원이었지만, 일부 민주당원들도 그의 인지 능력이 쇠퇴하는 조짐을 보였음을 시인했다고 전했다. WSJ에 따르면 지난해 5월 부채 한도 인상 등을 논의하는 자리에 참석했던 공화당원들은 바이든 대통령이 때때로 즉흥적인 모습을 보였고, 이미 해결된 의제를 다시 꺼내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월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관련 회의에서 약 24명의 의회 인사들을 맞이했는데, 그의 움직임이 굽뒀던 탓에 회의 시작까지 약 10분이 걸렸다고 한다.

회의 도중 바이든은 이미 합의된 내용을 반복해 읽기도 했다. 한 참석자는 WSJ에 “그 자리에 있던 모두가 불편함을 느꼈을 것”이라고 전했다. 반면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하급 제프리스 하원 소수당 원내대표는 “바이든 대통령은 놀라울 정도로 강하고 결단력이 있는 모습을 보였다”고 반박했다.

올해 11월 대선을 앞두고 상당수 유권자들은 바이든이 대통령직을 수행하



기에 어려움이 있으리라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지난 3월 WSJ이 격전지 7개 주 유권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28%만이 바이든이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대통령직에 더 적합하다’고 답했다. 48%는 트럼프가 적합하다고 답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타임지와 인터뷰하면서 자신의 고령 리스크에 대해 “누구보다 일을 잘한다”고 해명하다가 한국과 대만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혼동해서 언급하기도 했다.

4일 타임지가 공개한 인터뷰 전문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재선하면 퇴임일이 되면 86세가 된다”면서 “그때가 되어도 나는 여러분이 아는 그 누구보다 일을 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지켜봐 달라, 내 첫 임기 3년 반 동

안 해낸 일만큼 많은 일을 해낸 대통령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성과를 설명하다가 한국과 대만을 혼동했다. 그는 “내가 대만을 방문했을 때, 실례지만 한국에 갔을 때”라고 반복하면서 “반도체 산업을 되찾기 위해 민간투자자 8650억 달러를 유치했던 기억이 난다”고 말했다.

또 바이든 대통령은 대중국 관세와 관련해 대답하면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으로 잘못 말하기도 했다. 그는 “최근 발표한 관세 안이 미국 소비자들의 인플레이션을 가중하느냐”는 질문에 “아니다. 나는 처음부터 푸틴에게 분명히 말했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타임지는 편집자 주를 통해 “여기서 푸틴은 시진핑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바로 잡았다.

앞서 지난달 10일에도 바이든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한국 대통령’으로 잘못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열린 선거자금 모금 행사에서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겨냥한 발언들을 했다.

이 과정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러브레터’에 대해 언급하면서 실수로 김 위원장을 한국 대통령이라고 말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서유진 기자

고물가에 지쳐 부자들도 세일 찾아

자동차 가격 경쟁 다시 시작
고소득자 60% 할인품 구매

고물가 부담이 커지면서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고 고소득층마저 할인 물품을 찾는 등 가격에 민감해지고 있다.

CNN은 3일 인플레이션에 지친 소비자들이 지출을 줄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A)는 지난주 뉴욕에서 개최된 금융 컨퍼런스에서 신용카드, 수표 등을 통해 추산한 소비자 지출의 작년 대비 증가율이 3.5%로, 전년의 10.0%에 비해 낮다고 밝혔다.

회계법인 KPMG 최근 조사에서는 연 소득 20만 달러 이상의 고소득자 60%가 올해 할인 물품을 더 많이 살 것이라고 답했다. KPMG 관계자는 “소비

자들이 인플레이션 렌즈를 통해 경제를 보고 있다”며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쇼핑 습관을 바꾸고 급여를 올리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유통업체들은 가격 인하 경쟁을 시작했다고 뉴욕타임스가 이날 보도했다. 대형 유통업체 월그린은 지난주 1000개 이상 품목의 가격을 인하한다고 밝혔고, 타깃도 5000가지 식품과 생활용품의 값을 조금 내린다고 말했다. 또한, 여러 기업이 최근 분기 실적발표 시 가격 인상을 늦추고 수익성을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생활비 고공 행진에 힘든 고객들의 사정에 공감을 표하는 것이 중요한 마케팅 전략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코카콜라는 1분기에 가격을 인상한 결과 북미 판매량이 정체됐다고 밝혔다. 패스트푸드 체인 맥도날드의 고객들은 최근 소셜미디어에 영수증을 올리면서 값이 너무 비싸다고 불만을 표했다. 빅맥 평균 가격이 2019년 4.39달러였는데 지금은 5.29달러로 21% 높다.

이에 맥도날드는 5달러 세트 메뉴 한시 상품을 내놨고 버거킹도 지난주에 5달러 메뉴를 발표했다. 코스트코는 1985년 이래 동일하게 유지해온 핫도그 가격을 1.5달러로 고수할 것이라고 밝

혔다.

코로나19 팬데믹 때 공급 부족과 수요 증가로 몸값이 높아졌던 자동차 판매상들이 차 가격 인하를 재개했다. 한 동안 할인, 할부 등의 혜택은 전혀 없이 정가에 구매하거나 일부 웃돈까지 얹어줘야 했는데 이제는 생산이 늘며 재고도 증가하는 반면 고급리로 수요가 위축되는 등 상황이 달라졌다.

미시간주 썬슨의 한 자동차 판매업자는 “소비자에게 현금 보상, 무이자 대출 등의 혜택을 주던 시기로 되돌아갈

수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자동차 업계에서는 재고가 있는 특정 모델에 혜택을 제공하는 등의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다. 비싼 가격, 충전 관련 우려 등으로 인해 판매가 둔화한 전기차는 할인을 많이 해준다. 테슬라도 최근 가격을 내리고 모델 Y 스포츠 유틸리티차(SUV) 구매자에게 0.99%의 저금리 대출을 해준다.

하지만 이런 추세는 과거의 치열한 가격 인하 경쟁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뉴욕타임스는 평가했다.

AK 김경태 공인회계사
회계업무
세무보고
비즈니스 설립
세무보고 상담할영!
410.719.1000 Fax. 410.719.9198
3300 N. Ridge Rd., #380, Ellicott City, MD 21043

맞춤형 자산의 달인 마이클 장
달인과 함께하면
유자도 행복해집니다
주책용자 · 상업용자 · 재정상담
NMSI, Inc. NMLS #201332
410-370-4229 / 301-275-1494

맞춤형 연금 & 재정관리
Lori Moon
“오늘의 계획으로
미래의 재정 안정을!”
703.895.7648
3949 Pender Dr. #250, Fairfax, VA 22030

헤민한의의원
동서 의학의 접목
Columbia
화, 목, 토 진료
Gaithersburg
월, 수, 금 진료
Tel. 443-878-4637

“최고”
모두가 최고라고 말합니다.
이제 주택 용자는 그린웨이 홈론 **배준원** 용자에 맡겨 주세요!
“아무도 따라올 수 없는 길을 갑니다”
이자율이 높다구요? 그럴수록 비교해보세요.
가장 많은 이들의 선택, 직접 경험해 보세요!
WWW.JUNBAEMORTGAGE.COM
배준원 (Jun W. Bae)
Vice President / MBA / Sr. Mortgage Banker
703.868.7147
Jun@gwhomelending.com
(NMLS# 178471)
센터빌 오피스 토요일도 오픈합니다.
(토요일 오전 10시-1시 무료상담)
13890 Braddock Road, Suite 207, Centreville, VA 20121
(센터빌 마마트 건너편 위치)
GREENWAY HOME LOANS
VA, MD, DC, NC, TX, PA, SC, FL
Greenway Home Loans, Inc. is licensed by the District of Columbia Government DSB, Maryland State DLR, Virginia State Corporation, North Carolina Commissioner of Banks, Texas Department of Savings and Mortgage Lending, Pennsylvania Department of Banking & Securities, Florida Bureau of Regulatory Review - Finance, South Carolina Department of Consumer Affairs License Numbers: DC.MLB2501870; MD 2501870; NC.L-219066; VA.MC-7782; TX 2501870; PA 106923; FL.MLSD2525; SC 2501870 Greenway Home Loans Inc. NMLS# 2501870 www.nmlsconsumeraccess.org

영아패션
YOUNG AH FASHION
각종 약세사리 스카프, 모자, 신발, 가방, 마스크 등 판매
한국 최신패션! 최고의 퀄리티!
유명 브랜드의 고품질 제품을 매우 저렴한 가격으로 장만하세요!
영아패션
Baltimore National Pike
M&T 대량구매(리츠)웨이 웨일리노레방
40
300m
미락조를 대량금 식당 뒤쪽 길로 300m 정도 내려오시면 새로지는 뉴타운을 맞은편 미국 성조기 달려있는 파킹장으로 들어오세요~
T. 443-440-2000
3215 Corporate Ct., Ellicott City, MD 21042
영아패션

‘유학생 살인사건’ 어맨다 녹스 이탈리아서 명예훼손 또 유죄

4년간 복역해 추가 수감은 없어

2007년 룸메이트 살인 사건에 연루된 미국인 여성 어맨다 녹스(36·사진)가 유일하게 유죄로 남아 있는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재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이후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고 녹스는 앞선 재판에 이어 재심에서도 징역 3년 형을 선고받았다. 녹스의 변호인인 카를로 델라 베도바는 “어맨다는 매우 비통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로이터, AP 통신 등에 따르면 이탈리아 피렌체 법원은 5일(현지시간) 녹스가 무고한 남성을 살인범으로 잘못 지목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고 징역 3년 형을 선고했다.

앞서 녹스는 재판을 앞두고 이번 주 엑스(X·옛 트위터)에 “나에 대한 모든 억울한 혐의를 단번에 벗고 싶다. 행운을 빌어달라”고 썼다.

이번 재판은 지난해 10월 이탈리아 대법원이 명예훼손 유죄 판결을 파기하고 재심을 명령한 데 따른 것이다.

다만 녹스는 살인 혐의로 이미 4년간 복역해 명예훼손 혐의에 따른 3년의 형기는 이미 채운 상태다.

이탈리아는 2022년 사법 개혁을 통해 확정판결이 내려진 사건일지라도 인권 침해의 요소가 발견되면 재심을 통해 무고함을 밝힐 수 있도록 했다.

녹스는 시애틀 태생으로 2007년 11월 이탈리아 중부의 페루자에서 교환 학생으로 유학 중, 아파트에 같이 거주하던 영국인 여성 메리디스 커처(당시 21세)를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녹스가 커처에게 자신의 남자 친구, 아프리카계 이웃집 남성 등과 집단 성관계를 요구했다가 싸움이 벌어져 살인사건이 일어난 것으로 결론지었다.

녹스는 사건 초기 경찰 조사 과정에서 자신이 아르바이트했던 페루자의 술집 주인인 콩고 이민자 출신의 패트릭 루몽바를 살인범으로 지목했지만 이후 이는 경찰의 강요에 따른 것이었다고 말을 바꿨다.

결백을 주장했던 녹스와 녹스의 당시 남자 친구 라파엘 솔레치토는 나란히 체포돼 1심에서 각각 살인과 성폭행 혐의로 각각 징역 26년형, 25년형을 받았으나 복역 4년째인 2011년에 열린 2심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선고를 받고 석방됐다.

그는 이날 법정에서도 “경찰은 감옥에서 30년을 보내게 될 것이라고 협박했고, 한 경찰관은 ‘기억하라, 기억하라’며 내 뺨을 세 번 때렸다”며 “경찰의 압박을 견딜 만큼 강하지 못해서 매우 죄송하다”고 말했다.

루몽바는 2주 동안 수감됐다가 알리바이를 증명하고 풀려났다. 루몽바는

돼지신장 미국여성 이식 47일만에 제거

미국에서 유전자 변형 돼지 신장을 이식받은 50대 여성 환자에서 혈류와 관련한 문제가 발생해 47일 만에 이를 제거했다고 일간 뉴욕타임스(NYT)가 4일 보도했다.



지난 4월 돼지 신장 이식 수술 받은 뒤 리사 피사노씨 모습. [AP 연합뉴스]

뉴욕대학교(NYU) 랭건 이식연구소에 따르면 신부전과 심부전을 앓던 리사 피사노(54)씨는 지난 4월 기계식 심장 펌프를 신체에 이식하는 수술을 받은 데 이어 유전자 변형 돼지의 신장을 이식받았다. 두 수술은 8일 간격으로 이뤄졌다.

하지만 심장 펌프와 관련한 문제로 혈류가 부족해져 이식된 신장이 손상되면서 의료진은 지난주 이 신장을 적출하는 수술을 진행했다.

다만 이식된 신장에 대한 장기 거부 반응 징후는 나타나지 않았다고 연구소 측은 전했다. 피사노씨는 수술 뒤 신장 투석을 재

개했으며 아직 입원한 상태로 회복 중이다. 로버트 몽고메리 소장은 “우리는 피사노씨를 조속히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낼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며 “그는 장기 이식을 기다리는 사람들을 위한 지속 가능한 선택지를 만들려는 노력의 선구자이자 영웅”이라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러 공격에 미국 무기 사용

러시아의 침공을 받은 우크라이나가 미국이 제공한 무기로 러시아 본토를 공격하는 데 사용했다고 마이크 라운즈 상원의원(공화·사우스다코다)이 확인했다.



우크라이나에서 발사되는 미국 하이마스 모습 [EPA 연합뉴스]

상원 군사위 소속인 라운즈 의원은 이같이 밝혔으나 해당 사항을 어떻게 브리핑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함구했다고 AP통신은 보도했다.

을 우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영토 공격에 자국이 제공한 무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익명을 요구한 서방의 한 관료도 우크라이나가 최근 러시아 본토를 공격하는 데 미국 무기를 사용했다고 확인했다고 AP통신은 전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한 대규모 안보 예산의 지각 처리로 우크라이나가 일부 전선에서 밀리자 정책을 변경했다. 이와 관련, 이리나 베레슈크 우크라이나 부총리는 지난 3일 자신의 텔레그램에 군용 차량이 불타는 모습으로 보이는 사진을 게시하고 “적의 영토에서 서방의 무기 사용이 허용된 후 첫날”이라는 글을 올렸다.

다만 미국 국방부는 이에 대해 공식 확인을 하지 않고 있다.

러시아 군사 블로거들도 같은 날 러시아 벨고로드 지역에 설치된 방공 미

사일 시스템인 S-300이 불타는 사진을 온라인으로 공유했으며 이 가운데 한 장은 베레슈크 부총리가 올린 것과 같은 사진이었다고 NBC가 보도했다.

러시아 군사 블로거들은 우크라이나가 미국의 고속기동포병로켓시스템(HIMARS·하이마스)을 러시아 국경 지대 벨고로드에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싱크탱크 전쟁연구소(ISW)도 3일 보고서에서 “우크라이나군이 벨고로드에서 러시아의 S-300/400 방공 포대를 타격했다”며 해당 공격이 지난 1~2일 사이 하이마스를 사용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레바논 미국대사관 앞 총격으로 1명 중상

5일(현지시간) 레바논 주재 미국 대사관 앞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대사관 경비를 맡고 있던 현직인 1명이 크게 다쳤다고 국무부가 밝혔다.



총격전이 벌어진 레바논 주재 미국 대사관 전경 [AP 연합뉴스]

매슈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건에 대해 설명하면서 “현직인 대사관 경비대원 중 한 명이 심하게 부상했고, 총격을 가한 사람은 사건 후 체포됐다”며 “대사관은 사건을 조사 중인 레바논 당국과 연락을 계속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 시리아 국적자로 확인된 범인의 범행 동기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고 배후를 자처하는 단체도 나오지 않았다.

밀러 대변인은 사건 당일인 5일 하루 대사관 문을 닫았지만 6일 정상적으로 대사관 운영을 재개한다고 전했다.

현직 언론은 IS의 아랍어 표기와 영어 이니셜 ‘I’와 ‘S’가 적힌 검은 조끼를 입고 피투성이가 된 총격범의 사진을 공개했다.

그는 또 현재 범행 동기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체포된 범인이 입은 옷에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조직인 이슬람국가(IS) 휘장으로 보이는 것이 있었다고 밝혔다.

레바논군의 한 소식통은 단독 범행이 아닐 수 있다고 말했고 현지 군당국은 최대 4명의 공범이 연루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방송은 전했다.

레바논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30분께 베이루트 북부 교외 아우카르 지역에 있는 미국 대사관 입구 건너편에서 검은 헬멧과 복면을 한 한 남성이 총기를 난사하며 거의 30분간 총격전이 벌어졌다.

레바논 총리실은 성명을 내고 나지브 미카티 총리가 국방장관에게 관련 보고를 받았으며 당국이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긴급 출동한 레바논군과 대사관 경비 요원에 의해 제압된 총격범은 총에 맞은 뒤 체포돼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

레바논군은 미국 대사관과 주변 지역에 병력을 추가로 배치했다.

레바논 주재 미국 대사관은 63명이 희생된 1983년 폭탄 테러 이후 베이루트에서 아우카르 지역으로 이전했다. 당시 미국은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를 테러 배후로 지목했다.

새로 이전한 대사관에서도 1984년 9월 또 다른 폭탄 공격이 발생했고 지난해 9월에는 한 레바논 남성이 미국 대사관에 총격을 가했다가 체포됐다.

지난해 10월에는 팔레스타인과 하마스를 지지하는 시위대가 미국 대사관 근처에서 레바논군과 충돌하기도 했다. 지난해 10월 가자지구 전쟁이 발발한 이후 레바논 남부 국경에서 하마스를 지지하는 헤즈볼라와 이스라엘 간의 교전이 이어지면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밀러 대변인은 또 이스라엘이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가 활동하는 레바논 남부를 직접 공격할 가능성을 시사하고 나선 데 대해 “우리는 이스라엘과 레바논 국민들의 추가적인 희생을 유발하고 이스라엘의 전반적인 안보와 지역 안정을 크게 해칠 ‘분쟁 격화’를 보길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



김철민

약력

- 조지타운 법과대학원
- 미국 연방의회 연수 (House of Representative)
- United Nations, Research Fellow (UNU Headquarters, Tokyo, Japan)
- Kotra 해외진출기업 자문변호사
- ICSC (Int'l Council of Shopping Centers) Member
- Redcliff Partners 고문변호사
- 이민, 투자, 상법 전문변호사

합동법률사무소

Potomac Law Group, PLLC

“변호사가 성실하게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풍부한 경험과 최고의 실력을 갖춘 전문가들이 완벽한 Team-Work으로 여러분의 어려운 문제를 최선을 다해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Immigration

- 영주권/시민권
- 취업/가족초청이민
- 종교비자/이민
- E2 비자/투자이민
- 비자변경 및 연장
- 강제추방문제

Business / Real Estate

- 회사설립/합병
- 국제합작투자
- 대정부계약/입찰구매
- 사업체 매매
- 부동산 매매/임대차
- 부동산 투자 개발

대표 703-973-8700 | 7700 Little River Tnpk., Suite 303, Annandale, VA 22003 **예촌앞 빌딩 3층**



마이클 장

맛있는 음식의 달인

달인과 함께하면 음식도 행복해집니다

마이클 장

주택용자 상업용자 재정상담

410-370-4229 · 301-275-1494



EMET, Inc
NMLS #201332

Celebrating **40 years** Since 1982 **H MART**
OUR LOWEST PRICE!
가격을 확! 내립니다

JUNE 6th - JUNE 13th, 2024



해오름
냉면+만두

\$9.99
 SET



KOREAN STYLE COLD NOODLES
 3.18 LB (4 SETS/PKG) Reg. \$8.99



DUMPLINGS
 VEGETABLE/KIMCHI/FRIED
 2.65 LB Reg. \$7.99

3종택1 PICK 1of3

While Supplies Last

OUR BBQ PICK!

FROZEN PORK BELLY
냉동 바베큐 삼겹살 패밀리팩

\$3.99 FAMILY PACK
 LB



THE BEST OF ASIA IN AMERICA. SINCE 1982. H MART.

VIRGINIA

- FAIRFAX 11200 FAIRFAX BLVD., FAIRFAX, VA 22030
- ANNANDALE 7885 HERITAGE DRIVE, ANNANDALE, VA 22003
- CENTREVILLE 13818 BRADDOCK ROAD, CENTREVILLE, VA 20121
- FALLS CHURCH 8103 LEE HIGHWAY, FALLS CHURCH, VA 22042
- MANASSAS 8819 CENTREVILLE ROAD, MANASSAS, VA 20110
- BURKE 9550 BURKE ROAD, BURKE, VA 22015
- HERNDON 1228 ELDEN ST., HERNDON, VA 20170

MARYLAND

- CATONSVILLE 800 NORTH ROLLING RD., CATONSVILLE, MD 21228
- GAITHERSBURG 9639 LOST KNIFE RD., GAITHERSBURG, MD 20877
- WHEATON 12015 GEORGIA AVE., WHEATON, MD 20902
- FREDERICK 1063 W. PATRICK ST., FREDERICK, MD 21702
- ELLCOTT CITY 3301 NORTH RIDGE RD., ELLCOTT CITY, MD 21043



'무적의 모디' 흠집났다... 3연임엔 성공, 단독 과반엔 실패

인도 총선, 높은 실업률에 민심 이탈
심각한 빈부격차, 고물가도 원인
여당연합으로 과반 넘겨 연정 지속

나렌드라 모디(73) 인도 총리가 총선 결과 3연임에 성공했다. 자와할랄 네루 초대 총리에 이어 인도 독립 이후 두번째 3연임 총리가 됐다. 하지만 그가 소속된 인도인민당(BJP)은 단독 과반 확보에 실패해 민심이 모디 총리에게 '엘리트카드'를 던졌다는 평가다. 외신들은 "모디가 선거마다 압승을 거두던 '무적의 아우라'를 잃었다"며 인도 정치지형의 변화를 예상했다. AP통신 등은 5일(현지시간) 인도

선거관리위원회 자료를 인용해 연방 하원 총 543개 의석(과반 272석) 중 모디 총리가 소속된 BJP 중심의 여당연합인 NDA가 294석, 제1야당 인도국민회의(INC)가 주도하는 야권 정치연합인 인도국민발전통합연합(INDIA)은 232석을 확보했다고 발표했다.

BJP의 의석수는 240석으로, 2014년 모디가 집권한 이후 처음으로 단독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다. BJP는 2014년 282석, 2019년 303석을 각각 차지했다. 반면 INC는 단독으로 99석을 확보하며 BJP의 견제 세력으로 떠올랐다. BJP는 이번 총선 표심 이탈의 가장



인도 독립 이후 두 번째로 3연임에 성공한 나렌드라 모디 총리. [로이터-연합뉴스]

큰 원인으로 높은 실업률을 꼽았다. 고팔 크리슈나 아가라왈 BJP 대변인

은 "실업문제는 우리도 인정하는 도전 과제이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인도경제모니터링센터에 따르면 인도의 실업률은 지난 3월 7.4%에서 4월 8.1%로 증가했다. 코로나 팬데믹 이전(6%)보다 높다. 여기에 심각한 빈부격차와 고물가 등이 겹치면서 모디가 민생을 외면한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커졌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최근 인도 경제의 고속 성장에도 불구하고 부는 인구의 1%에게만 편중돼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또 지난해 11월 이후 식료품 가격 인상률이 8%를 웃돌았다. 모디가 선거 내내 힌두교도 결집에 만 공을 들인 데 대한 반작용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INC 지지자인 수니타 가우탐은 "모디와 BJP는 여성과 소수자들에게 끔찍한 시련을 주고 있다"면서 "그들이 통치하는 한 여성·무슬림·달리트(카스트에 속하지 않는 불가촉천민)는 안전하지 않을 것"이라고 CNN에 말했다. 단독 과반에 실패한 BJP는 당장 연정 구성에 돌입해야 하지만 순탄치 않을 것이라 전망이 나온다. 여권연합인 NDA 내부에서도 모디의 힌두민족주의를 두고 마찰이 있어 모디 3기의 정책이 동력을 잃지 않으려면 연합 내는 물론 야당과의 갈등 봉합이 시급한 상황이다. 박형수 기자



찰스3세 얼굴 담긴 영국 새 지폐 유통 시작. 찰스 3세 영국 국왕의 초상화가 담긴 파운드 지폐가 5일(현지시간) 유통되기 시작했다. 새 지폐 도안은 기존 엘리자베스 2세 여왕에서 찰스 3세 국왕으로 초상화의 주인공이 바뀐 것 외에는 기존 지폐와 똑같다. [EPA-연합뉴스]

보잉 스타라이너 첫 유인 시험비행 발사 성공

미국 보잉사의 우주캡슐 'CST-100 스타라이너'(Starliner, 이하 스타라이너)가 5일 첫 유인 시험비행 발사에 성공했다. 스타라이너는 이날 오전 10시 52분 2명의 우주비행사를 태우고 플로리다주에 있는 케이프 커내버럴 우주군 기지에서 아틀라스 V 로켓에 실려 우주로 발사됐다. 이어 약 15분 만에 우주비행사들이 탄 캡슐이 아틀라스 V 로켓 하단과 성공적으로 분리돼

궤도 비행을 시작했다. 비행이 계속 순조롭게 진행되면 스타라이너는 약 25시간 후 국제우주정거장(ISS)에 도킹하고, 우주비행사들은 약 8일간 ISS에서 머문 뒤 지구로 귀환할 예정이다. 스타라이너에는 미 항공우주국(NASA) 소속 베테랑 우주비행사 부치 윌모어(61)와 수니 윌리엄스(58)가 탑승했다. 윌모어는 미 해군 전투기 조종사, 윌리엄스는 미 해군 헬리

콥터 조종사 출신으로, 각각 두 차례 ISS에 다녀온 경력이 있다. 스타라이너는 제어된 프로그램에 따라 자율 비행이 이뤄지지만, 두 비행사는 중간중간에 수동으로 조종하며 시스템을 점검할 예정이다. 이번 시험비행 발사는 지난 한 달간 두 차례 발사 직전 취소 사태를 겪은 뒤 세 번째 시도 끝에 성공한 것이다. 보잉과 NASA는 지난달 6일 첫 유인 시험비행을 시도했다가



5일 발사된 보잉 우주선 '스타라이너'

카운트다운 2시간을 앞두고 로켓 상단의 산소 방출 밸브 오작동 문제로 발사를 연기했으며, 이후 발사 일정을 잡았다가 스타라이너의 추진기 발사에 사용되는 헬륨 누출 문제 등이 불거져 일정을 몇 차례 미뤘다. 또 이날 1일에도 발사를 시도했다가 카운트다운 3분 50초를 앞두고 컴퓨터 시스템 문제가 발생해 또다시 중단됐다. 이번 유인 시험비행은 2022년 5월 스타라이너가 우주비행사

를 태우지 않고 무인 비행에 성공한 이후 약 2년 만이다. 스타라이너는 2019년 12월 첫 무인 시험비행 때에도 소프트웨어 이상으로 ISS와 도킹하지 못하고 귀환하는 등 기술적인 문제가 거듭된 끝에 무인 비행에 어렵게 성공한 바 있다. 이번 유인 시험비행이 최종적으로 성공하면 NASA는 내년 부터 ISS 수송 임무에 스페이스 X의 '크루 드래곤'과 함께 스타라이너를 활용할 계획이다. 정은혜 기자

WMO "5년내 지구 평균기온 1.5도 넘게 오를 가능성 80%"

(세계기상기구)

앞으로 5년 안에 지구 기온 상승 폭이 1.5도를 돌파할 가능성이 80%에 달한다는 전망이 나왔다. 1.5도는 과학자들이 기후변화의 '티핑 포인트'(급격한 변화를 야기하는 지점)로 제시할 수 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인류가 파리협정 목표를 달성할 경로에서 벗어나 있다는 암울한 현실을 보여주는 수치"라며 "우리는 지금 지구와 러시아올렛 게임을 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5일 발표된 세계기상기구(WMO)의 '전 지구 1~10년 기후 업데이트(GADCU) 보고서'에 따르면, 2024~2028년 전 지구 평균 기온은 산업화(1850~1900년) 이전 대비 1.1~1.9도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기간 1.5도를 넘어서는 해가 나타

산업화 이전 대비 최대 1.9도 상승 가장 더웠던 작년 1.45도 이미 턱밑 파리협정 목표 깨지는 건 시간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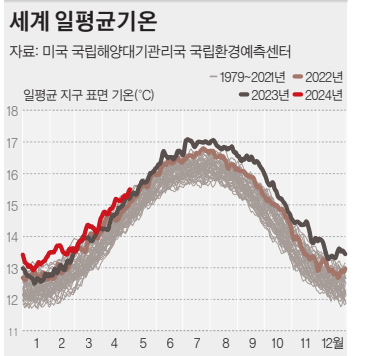
날 확률은 80%로 나타났다. 지난해 발표된 5년 내(2023~2027년 사이) 1.5도 초과 상승 확률(66%)에서 크게 오른 수치다.

WMO는 한두 해에 나타나는 일시적인 1.5도 초과 상승이 파리협정 기준 목표(수십 년에 걸친 평균 기온 1.5도 초과 상승)를 완전히 위반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파리협정이 깨지는 건 시간문제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보고서 역시 향후 5년의 총 평균 기온이 1.5도를 넘어설 확률이 47%로 전년 예측치(32%)보다 높아졌다고 밝혔다.

역사상 가장 더운 해로 기록

된 지난해 지구 기온 상승 폭이 1.45도로 이미 턱밑까지 올랐다. 엘니뇨 현상(동태평양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높은 상태)의 영향이 강했던 지난해 6월~올해 5월에 측정된 최근 1년치 평균 기온은 1.63도로 1.5도를 넘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협의체(IPCC) 제6차 보고서 주저자인 이준이 부산대 기후과학연구소 교수는 "6차 보고서에서 1.5도 초과 상승 첫 시기를 2030년대로 예상했는데, 추세를 보니 더 빨라질 것 같다"며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국 올 4월 기온, 역대 1위 기록=올해는 지구를 달궜던 엘니



세계 일평균기온. 자료: 미국 국립해양대기관리국 국립환경예측센터. 일평균 지구 표면 기온(°C). 1979~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노가 쇠퇴하고 라니냐(동태평양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낮은 상태)가 시작될 가능성이 크다. 보고서는 그런데도 5년 내 2023년 기온 기록이 깨질 가능성이 86%에 달한다고 밝혔다. 온실가스 배출에 따른 기후변화 영향이 더 강해진다는 뜻이다. 보고서는 향후 5년간 북극 온난화가 지구 평균 온난화의 3배 이상 빠를 것으로 예측했다.

Health Through LoveSpine Chiropractic Extremity Specialist

척추사랑

"여러분들은 건강을 위해서 얼마나 척추를 사랑하십니까?"

◀척추사랑▶ 교통사고/척추신경/손/발 전문 통증병원에서는 정확한 진단후, 근본적인 문제를 찾아 정성껏 집중 치료합니다.

교통사고 통증 치료전문 / 자세교정

진/료/과/목

- ◆ 교통사고후유증 (Auto Injury)
- ◆ 두통/목/턱관절 (TMJ) 통증
- ◆ 허리/척추디스크/좌골신경통
- ◆ 손목/팔꿈치/어깨 통증
- ◆ 운동상해/직장상해
- ◆ 발/무릎 통증/자주빠는 발목
- ◆ 만성피로/근육통/관절염
- ◆ 재활/물리/운동 치료
- ◆ 자세교정 및 건강유지
- ◆ 청소년 성장클리닉
- ◆ 임신부/산후 및 여성클리닉

필요하신 모든 절차를 불편함이 없으시도록 도와드리며, 치료에만 전념하실수 있도록 해드립니다.

각종 보험 및 자동차보험, 여행자, 유학생보험 / 각종 건강상담 환영

교통사고/척추신경/손/발 전문 통증병원

LoveSpine Chiropractic Clinic 척추사랑

각별 클리닉 T 301.231.7588 / F 301.231.7587 11820 Parklawn Dr., Suite 202 Rockville, MD 20852 Email: lovespineclinic@yahoo.com

센터빌/첼트리 클리닉 T 703.429.4622 / F 703.429.4623 14161 Robert Paris Ct., Suite B Chantilly, VA 20151 Email: lovespineclinic@gmail.com

김민지 변호사

Prosper Law PLLC 대표

VA·MD·DC 면허

가정법 (Family Law)

- 합의이혼, 양육권, 양육비, 위자료, 재산분할, 이혼소송
- 가정폭력/접근금지 명령
- 입양, 가디언십
- 유언장, 상속

민사 소송 (Civil Litigation)

- 리스 계약 분쟁, 집주인-세입자간의 분쟁
- 헌법/인권 침해 변호

항소 (Appeal)

- 버지니아 항소법원 (Court of Appeals) 에서 양육권/방문권, 이혼 관련 항소 케이스 다수 진행중

이민 (Immigration Law)

- 영주권/시민권
- 결혼 이민
- 가족 초청 이민
- 각종 비자
- 추방 방어
- 망명 신청
- 범죄 피해자를 위한 비자

VA 전화 TEXT: 703.593.9246 4115 Annandale Rd., Ste 301, Annandale, VA 22003

MD 전화 TEXT: 443.901.8693 3545 Ellicott Mills Dr., Ste 203, Ellicott City, MD 21043

mkim@prosperlawpllc.com

31년 연속 고객만족 1등 여행사
탑여행사 TOP TRAVEL
 서비스도 TOP 고객만족도 TOP
 한번고객은 평생고객
toptravelusa.com

센터빌 13880 Braddock Road #103, Centreville, VA
 703.543.2322 • 855.870.1235
애난데일 7023 Little River Tpke, #208, Annandale, VA
 703.256.0606 • 800.551.9373
엘리콧시티 9380 Baltimore National Pike #114, Ellicott City, MD
 410.480.0100 • 800.564.4429

카카오톡으로 빠른상담
 탑트래블USA 실시간상담!

번역및 공증 가족관계증명서
 혼인증명서 시만권

최우수한국항공권 소매, 도매 직판점
KOREAN AIR DELTA
 아시아나항공, 델타항공, 중국국제항공, 에어캐나다

민타넷보다 저렴한 **최저가 한국항공권**

유심칩 판매 한국방문시 로밍 걱정없!
 최저가 유심/데이터 전화, 문자 무제한!

항공권+유심칩 동시 구매하시면 할인 혜택드립니다.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제출
 제출 할 곳 : ceo@toptravelusa.com
 문의 : 703 543 2322 레나 고 실장

한국관광공사 KOREA TOURISM ORGANIZATION
VISIT KOREA YEAR 2023-2024
한국방문의 모든것!
 항공권, 고국관광, 건강검진, 출국전 준비까지

최고급 럭셔리
고품격 고국일주
 10박 11일 / \$2990+항공

31년 전통 탑여행사가 야심차게 준비한
고국투어! 직접 모시고 갑니다.

마감 2차 6/18-6/28 (영어가이드)
마감 3차 9/24-10/4
마감 4차 10/15-10/25
 5차 10/22-11/1 (단풍특선)

특선 워싱턴 최초 디럭스 28인승 리무진 우등 버스

모든 옵션 포함
 여수 해상케이블카/외도+해금강유람선/정동진 레일바이크/서귀포 유람선

최고급 호텔 숙박
 서울 롯데호텔/전주 한옥마을 라한호텔/여수 소노캄/거제 소노캄
 부산 그랜드조선/경주 라한셀렉트/속초 롯데리조트/제주 롯데호텔

고객 입맛을 고려하여 특별히 엄선한 업그레이드된 식사

호텔을 꼭 비교해 보세요!

롯데호텔 서울, 소노캄 여수, 소노캄 거제, 롯데호텔 제주
 라한셀렉트 경주, 롯데리조트 속초, 그랜드 조선 부산

고국 1~5차 모두 제주 배고 다낭이나 일본을 갈 수 있습니다.
 고국+제주/다낭/일본 원하시는 일정으로 선택 가능.

연합상품

- 3박 4일 **서남권** \$899+항공 **일출발**
- 4박 5일 **동해권** \$999+항공 **금출발**
- 5박 6일 **서남+제주** \$1499+항공 **일출발**
- 9박 10일 **전국일주** \$2149+항공 **일출발**

고품격 고국일주와 동남아, 일본 여행을 한번에!

- 다낭** 3박+고국 7박 (노출선) 3차 11/9-11/20 \$3090+항공
- 일본** 3박+고국 7박 4차 11/12-11/23 \$3590+항공

동경 \$999+항공
오사카 \$999+항공
일본완전일주 \$2690+항공

Wonderful TOUR 2024 Yearly Schedule

- 6/18~6/26 스위스 알프스 8박 9일 \$3990+항공 **대강**
- 6/18~6/28 고품격 고국일주 2차(영어가이드) **대강**
 10박 11일 \$2990+항공
- 6/28~7/08 북유럽 4개국 10박 11일 \$5290+항공 **대강**
대강
- 6/30~7/05 독립기념일 특선 캐나다 록키 **대강**
 5박 6일 \$2290(항공포함)
- 7/01~7/04 독립기념일 특선 옐로스톤 **대강**
 3박 4일 \$1290+항공
- 8/06~8/19 북유럽 4개국+발틱 3개국 **대강**
 13박 14일 \$5990+항공
- 8/09~8/19 북유럽 4개국 10박 11일 \$5290+항공 **대강**
- 8/14~8/19 여름방학특선 캐나다 록키 **대강**
 5박 6일 \$2290(항공포함)
- 8/15~8/21 알래스카 일주 6박 7일 \$2990(항공포함) **대강**
- 8/30~9/06 알래스카 크루즈 7박 8일 **대강**
 인사이드 \$1990~부터 (항공포함)
 발코니 \$2590~부터 (항공포함)
- 8/30~9/02 노동절 특선 옐로스톤 3박 4일 \$1290+항공
- 9/02~9/13 영국일주 11박 12일 \$5890+항공
- 9/10~9/20 정통 서유럽 10박 11일 \$3490+항공 **대강**
- 9/18~9/26 정통 동유럽 8박 9일 \$3290+항공
- 9/18~10/1 동유럽&크로아티아 발칸 **대강**
 13박 14일 \$4390+항공
- 9/20~10/2 파노라마 서유럽 12박 13일 \$3890+항공
- 9/25~10/1 크로아티아 발칸 6박 7일 \$2890+항공
- 9/23~10/2 정통 서유럽 10박 11일 \$3490+항공
- 9/24~10/4 고품격 고국일주 3차 **대강**
 10박 11일 \$2990+항공
- 9/25~10/5 그리스&튀르키예 10박 11일 \$2890+항공
- 10/03~10/16 독일 일주 13박 14일 \$5690+항공
- 10/08~10/18 스페인&포르투갈 **대강**
 10박 11일 \$3190+항공
- 10/09~10/19 정통 서유럽 10박 11일 \$3490+항공 **대강**
- 10/14~10/25 호주&뉴질랜드 11박 12일 \$3790+항공
- 10/15~10/25 고품격 고국일주 4차 **대강**
 10박 11일 \$2990+항공
- 10/17~10/30 프랑스 일주 13박 14일 \$5690+항공
- 10/17~10/26 캐나다&뉴잉글랜드 크루즈 **대강**
 9박 10일 \$1190(인사이드)
- 10/22~10/31 튀르키예 성지순례(소아시아 7교외) **대강**
 8박 9일 \$1990+항공
- 10/22~11/01 고품격 고국일주 5차(단풍특선) **대강**
 10박 11일 \$2990+항공
- 10/29~11/08 산티아고 순례 10박 11일 \$3590+항공
- 11/12~11/25 이집트&이스라엘&요르단 **대강**
 13박 14일(시내선) \$3980+항공
- 11/15~11/25 이스라엘&요르단 **대강**
 10박 11일 \$2980+항공
- 11/27~12/01 추수감사절 특선 코스타리카 **대강**
 4박 5일 \$1190+항공
- 12/07~12/19 남부카리브해 크루즈 **대강**
 12박 13일 \$1390(인사이드)
- 12/23~12/28 크리스마스 특선 파리 일주 **대강**
 5박 6일 \$2390+항공
- 12/23~12/29 크리스마스 특선 이태리 일주 **대강**
 6박 7일 \$2390+항공

TMCI 고국 건강검진

- 세브란스(기본검진) 한국국적 남 \$555/여 \$595 미국국적 남 \$720/여 \$770
- 경희대병원(특화검진) 남/여 \$610
- 삼성서울병원(기본검진) 남 100만원, 여 113만원
- 한양대학교(기본검진) 남/여 \$460

현대산병원/서울대병원/가천대길병원

동남아 여행 대한항공 한국경유여행 동남아항공 특가세일

방콕/파타야	푸켓	하노이/하롱베이	다낭	대만	싱가폴
3박 5일 \$590+항공 출발: 격주목요일 왓포사원, 콜로세움, 파타야 야시장, 산호섬, 전통수상시장, 플로팅마켓, 황금절벽사원, 꼬끼리 트래킹, 악어농장, 백만년비유원, 대국특산물	3박 5일 \$599+항공 출발: 격주수요일 팡야만 해양국립공원, 아프로디테스, 파동야시장, 피피섬, 왓살롱 사원, 꼬끼리 트래킹	3박 5일 \$590+항공 출발: 격주수요일 하노이, 엔드, 하롱베이, 하롱테마파크, 호치민영묘, 생할관, 비단광장, 한가동사원, 수상인형극	3박 5일 \$499+항공 출발: 격주일요일 마블마운틴, 호이안, 투봉강, 일본내원고 켄가사당, 풍홍의집, 광조화관, 바나힐국립공원, 후예성, 티엔무사원, 선짜사원, 다낭대사당	3박 4일 \$690+항공 출발: 격주목요일 국립고궁박물관, 자오궁, 101빌딩, 라오하계 야시장, 서문경거리, 태로산혈굴, 화원칠성담 해변, 일월담, 구족문회초, 아류해양국립공원, 자우편거리	3박 5일 \$790+항공 출발: 격주수요일 국립박물관, 가든바버비베이, 리버월드, 헨더슨웨이 브릿지, 허지레민, 부기스캐시앙, 마리아안공원, 차이타온, 센토사섬, 실로소버티

독립기념일 특선

- 뉴욕 불꽃놀이** 1박 2일 \$450
- 7월 4일 출발**
- 천성 몽프랑블랑 몬트리올/퀘벡** 3박 4일 \$950
- 노아의 방주** 3박 4일 \$950
- 성극 대니엘 +아미쉬마켓 당일** \$199 6/13, 7/11, 8/1, 8/22, 9/19, 10/17, 11/14

동부관광 탑여행사 가이드가 직접 행사합니다!

미동부 나이아가라/토론토 천섬/몬트리올/퀘벡 플래츠버그/뉴욕
 매주 **일출발** 5박 6일 \$1350
 대행버스 출발: 6/24, 7/22, 8/5

뉴욕 동부 명소 해관 약속
나이아가라 나이아가라 폭포 옆 호텔 숙박
 매주 **일출발** 2박 3일 \$650
 대행버스 출발: 7/22, 9/16, 10/7

뉴욕 미동부 베스트셀러
나이아가라 나이아가라 폭포 옆 호텔 숙박
 매주 **일출발** 3박 4일 \$899
 대행버스 출발: 7/8, 9/23, 10/21

뉴욕 1박 2일 \$399
컴버랜드 기차여행 당일투어 \$159
 출발: 10/17(목), 18(금), 19(토), 24(목), 10/25(금), 26(토), 11/2(토)

탑여행사 당일관광 워싱턴디씨 \$100, 루레이동굴 \$125

서부관광

미서부일주 서부의 주요 도시와 3대 캐년까지 일찬 여행
 8박 9일 **일출발** \$1450+항공

서부 4대 캐년 5박 6일 \$990+항공 매주 일

5대 캐년+세도나 6박 7일 \$1300+항공 매주 일

요세미티 샌프란시스코 5박 6일 \$990+항공 매주 수

옐로스톤 3박 4일 \$890+항공 **일출발**

캐나다 록키 4박 5일 \$1190+항공 **일출발**

해외여행은 출발 2개월전, 국내여행은 출발 3주전 결재하는 워싱턴 출발 요금이며, 모든 패키지 요금은 2인 1실 기준입니다. 상기 모든 내용은 사전 통보없이 변경 될 수 있으며 천재지변에 의한 일정 변경이나 취소는 책임이 없으며, 상품은 조기 매진될 수 있습니다.

교감 뺐 때린 초3... 학교들의 선택은 다른 학교 떠넘기기였다

학폭 등으로 학교 7곳 옮긴 학생 부모는 되레 “아동학대 신고할 것”
정신건강 치료 필요한 경우 많지만 학부모 거부 땀 검사도 불가능 “학교에 정신건강 진단요청권 줘야”



지난 3일 전주의 한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이 복도에 있던 우산을 뺐아 교실 문을 내리치고 있다(왼쪽 사진). 이어 이 학생은 조퇴를 하겠다고 하며, 이를 제지하는 교감의 뺨을 때리기도 했다. 학부모는 ‘학교 측을 아동학대로 신고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서 이 학생은 조퇴를 하겠다고 하며, 이를 제지하는 교감의 뺨을 때리기도 했다. 학부모는 ‘학교 측을 아동학대로 신고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 전북교사노동조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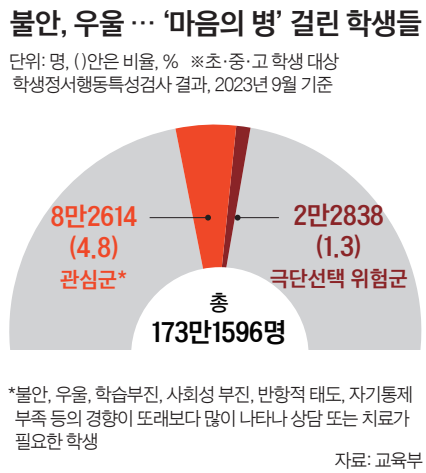
“문제 행동, 교권 침해 학생을 분리한 경험이었다”고 응답한 교사 2106명 중 559명(26.6%)이 “조치 후 학부모 민원 등이 제기된 적이 있다”고 답했다.
경기도의 한 중학교 교사는 “지난 3월 주먹으로 내 복부를 4대 가격한 2학년 학생이 강제전학 조치를 받았는데, 전학 후 학생 측으로부터 아동학대로 고소당했다”고 말했다. “문제 행동을 말리며 한 말을 꼬투리 잡아 정서적 학대라고 신고했다”는 것이다. 경북의 한 교사는 “문제 학생의 학부모에게 치료를 권하자 ‘우리 애 이모부가 의사인데 ADHD(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가 아니라고 했다. 교사인 당신이 뭘 아느냐’는 소리를 들었다”고 말했다.

“문제학생 전학 오자 교사들 우르르 병가”
사정이 이렇다 보니 강제전학 온 학생을 기피하는 교사들도 있다고 한다. 김희희 대한초등교사협회장은 “2022년 친구를 때리고 물통에 죽인 햄스터를 넣는 등 문제 행동을 일으킨 학생이 전학 온다고 하니, 선생님들이 우르르 병가를 내더라”고 말했다.
5일 대한초등교사협회는 “학교장이 교육청에 학생의 정신건강 검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학부모 동의 없이도 검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교육부에 보냈다. 김 회장은 “검사 결과 치료가 필요하면 교육과 치료가 함께 이뤄지는 병원학교에 들어가 적절한 조치를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는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생의 자유권을 침해할 수도 있어, 법 개정 없이는 강제하기 어렵다”며 “관련 법안 제정을 준비 중이지만 22대 국회가 막 시작된 상황이어서 시기를 특정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최민지·이기람 기자, 전주=김준희 기자

지난 3일 전북 전주의 한 초등학교, 책가방을 메고 학교 밖으로 나가던 3학년 A군을 교감이 제지했다. 말을 건네려고 잠시 뒷집을 진 교감의 왼뺨에 A군의 손이 날아왔다.
“개××야, 개××야, 개××야, 개××야, 개××야.” A군은 욕설을 내뿔으며 교감을 다섯 대 가격한 뒤 달아났다. 이 영상을 공개한 전북교사노동조합 측은 “학부모는 오히려 학교 측을 아동학대로 신고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5일 전했다.
전북도 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측은 학생이 학교생활을 정상적으로 하기 어렵다고 보고, 위(Wee)센터인 전북대병원 치료를 권했으나 학부모 거부로 성사되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위센터는 교육청 및 병원이 운영하는 정신건강위기 학생 치료·교육 시설을 말한다.
A군은 2021년 초등학교 입학 후 4년간 (지난해 유급) 인천과 전북 익산·전주 등의 7개 학교를 전전했다고 한다. 이 중엔 교권침해·학교폭력에 따른 강제전학도 두 번 있었다. 의무 교육기관이라 퇴학 조치가 불가능한 초·중학교에서 강제전학은 가장 강한 처벌이다.
교육계에선 이렇게 문제를 일으킨 학생을 강제전학시키는 것을 ‘학생 떠넘기기’로 부른다. 전학이 아니라 치료가 필요한 경우라도 학부모 동의 없이는 치료가 불가능하다 보니, 다른 학교로 학생을 떠넘리게 된다는 것이다.

교권침해로 전학·퇴학 2년새 3배로
실제로 교권침해를 이유로 강제전학이나 퇴학을 당하는 사례는 매년 늘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2020년 113건, 2021년 236건, 2022년 333건(이상 초·중·고교 합계)으로 2년새 약 3배로 늘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초·중학교에서 퇴학을 시키지 못해 강제전학으로 처벌이 내려간 경우도 있기 때문에, 퇴학과 묶어 집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학교폭력으로 인한 강제전학도 2019년 2127건에서 코로나19가 유행한 2020년 667건으로 급감했다. 2021년 1001건으로 다시 반등하는 추세다.
강제전학 조치가 내려지면 관련 법령에 따라 교육(지원)청이 학생을 다른 학교로 배치한다. 학생을 받는 학교는 부담스러워하면서도 거부하지 않는다고 한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학

교에 특수한 사정이 있을 때를 제외하곤 거의 다 전학을 받아준다”며 “전학을 받는 학교에서도 같은 이유로 전학을 내보낼 수 있기 때문에 서로 협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강제전학을 가더라도 또 비슷한 일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전북의 한 초등교사는 “작년에 졸업한 한 학생의 경우 중학교에 간지 일주일 만에 학교폭력 2건이 벌어져 강제전학 됐는데, 전학 간 학교에서 또 두어 달 만에 학교폭력위원회가 열렸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에서 학교폭력 건을 담당했던 전수민 변호사는 “과거 강제전학을 여러 번 갔던 초등생이 더는 전학 갈 데가 없어 원 학교로 다시 복귀한 사례도 있었다”고 했다.
교사들은 “학교생활이 힘들 정도로 폭력적 성향을 띠는 학생은 병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학부모 동의를 받기 힘들뿐더러, 학부모의 악성 민원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지난달 전국 유·초·중·고·대학 교원 1만1320명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김정숙 논란 직접 뛰어든 문제인 “초호화 기내식? 참 치졸한 시비”

“해외순방 기내식 비용, 일반과 달라 현 정부와 비교하면 알 수 있어” 반박 여당 “구차한 해명, 사과가 도리”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 기내식비 논란이 확산하자 문제인 전 대통령이 “참 민망하고 한심한 일”이라며 직접 해명 글을 올렸다. 국민의힘은 “좁스럽고 민망하다”며 “사과가 도리”라고 맞받았다.
문 전 대통령은 5일 페이스북에 “치

졸한 시비여서 그러다 말했거니 했지만, 점입가경으로 논란이 커지는 것을 보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몇 가지 기본적인 사실을 밝힌다”며 장문의 해명 글을 올렸다. 앞서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자료를 토대로 2018년 11월 김 여사 일행이 대통령 전용기로 인도를 방문하면서 기내식 비용으로 6292만원을 썼다고 공개했다. 왕복 18시간 비행 중 기내식이 네 번 나왔는데, 산술적으로 김 여사를 포함한 방문단 36명이 한 끼마다 44만원

여치를 먹은 셈이라 ‘초호화 기내식’ 논란이 일었다.
문 전 대통령은 “전용기 기내식은 일반 여객기와 마찬가지로 세트 메뉴로 제공된다. 더 고급의 음식을 주문할 수도, 먹을 수도 없다”며 “초호화 기내식이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식세트나 양식세트나, 밥이나 빵이나 정도의 선택 여지 밖에 없이 제공되는 기내식을 먹었을 뿐인 사람에게 기내식 총경비가 많아 보이니 ‘너 초호화 기내식 먹었지?’

라며 들이대는 것은 도대체 무슨 경우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부부의 해외순방 경비는 소관 부처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한다. 의문이 있다면 소관 부처에 물어볼 일”이라고 덧붙였다. 한 끼 평균 44만원이 든 데 대해선 “전용기 기내식 비용은 일반 항공기의 기내식 비용과 다를 수밖에 없다”며 “기내식 총경비가 통상보다 많았는지 여부는 현 정부의 순방 비용과 비교하면 알 수 있는 일”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광규택 수석대변인은 “길고 긴 해명 글은 참 구차하다”며 “국민은 장황한 해명보다 객관적 진실을 알고 싶다”고 비판했다. 박준태 원내대변인은 “외유를 나간 것은 김 여사인데, 그 여행을 둘러싼 책임과 의무는 모두 부처와 항공사에 있다는 좁스럽고 민망한 해명이다. 사과가 도리다”고 꼬집었다.
앞서 김정숙 여사는 기내식 논란에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정용환 기자

방법이 다르면 결과도 다릅니다

Jaewoon Lee
미국 이민변호사 협회 소속 • Attorney At Law
J.D. (법학박사) • Jaewoon Lee & Associates, LLC

나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신분 문제 아무에게나 맡길 수 없습니다. 오직 전문가만이 귀하의 성공적인 이민 생활을 책임질 수 있습니다.

길은 있습니다.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이민법을 비롯한 관련법을 모르거나 잘못 해석하여 주어진 기회를 놓치고 미국이민의 큰 꿈을 접어야 하는 기막힌 사연 또한 많습니다.

항상 저의 케이스를 진행한다는 마음으로 성실히 그리고 확실하게 여러분의 이민 문제를 풀어나가겠습니다. 복잡한 이민법, 오직 이민법만을 고집하는 이재운 변호사가 함께 하겠습니다.

Text, **myattorney** to 703-916-1111
“Text 로 이민상담 신청하세요!”

주요업무

- ◆ 취업이민 영주권 (EB2/EB3)
- ◆ 취업 비자 (H1-B)
- ◆ 종교 비자 (R1)
- ◆ 종교 특별 영주권 (R1/I-360)
- ◆ 투자/교역 비자 (E1/E2)
- ◆ 학생 비자 (F1)
- ◆ 주재원 비자 (L1)
- ◆ 시민권 신청 (N-400)
- ◆ 가족 초청 이민
- ◆ 결혼 이민
- ◆ 추방유예 (DACA)
- ◆ 사면준비
- ◆ 이민국 인터뷰
- ◆ 세계 각국 미 대사관 업무
- ◆ 기각된 서류 항소 및 재심사 요청
- ◆ 이민국 노동청 감사 답변
- ◆ 비자 연장 및 신분 변경

www.jaewoonlaw.com

이재운 이민법 변호사 | T. 703-916-1111 / 703-916-1215 | Fax. 703-563-6028
Jaewoon Lee & Associates, LLC | 7700 Little River Turnpike, Suite 502, Annandale, VA 22003 (예천 길건너편) | E-mail : lee@jaelaw.com

바디프랜드 • 파나소닉 • INADA 이나다 • 카후나 • 오사키 • 오레스트 워런티 걱정없는 미국제품 카우나/오사키 VA 공식딜러 전화주문시 미 전액 무료 배달이 가능

믿을 수 있는 곳, 믿음이 있는 곳, 나의 건강은 곧 가족의 행복

건강마을 Health Town

예약대입 **703-354-1515**
 오픈소롱 OPEN 4305 Markham St., Annandale, VA 22003
 OPEN HOUR ▶ 월-토: 오전 9시 30분 - 오후 7시 ▶ 일: 오전 11시 - 오후 5시
 센터빌 **703-712-7116 GRAND OPEN!**
 5738 Pickwick Rd. Centreville, VA 20121

6월 스페셜 Special SALE

최신 제품으로- 업계최초 GH NATURAL HEALTH GH 자연건강 **현재 매장내 체험가능** **입정기념 20%세일!**

102개의 6열 지압봉
중간 마진의 거품은 쏘옥~ 빼고
가격은 내리고 성능은 올리고

102개의 지압봉 온열 지압침대
2-WAY SYSTEM으로 편리한 기능 강화 지압, 마사지, 온열등 다양한 기능 탑재

무이자 할부 최고 36개월

지압 침대의 발명자가 최초 설계한 GH 오리지널 제품

지압침대의 특징

- 102개의 지압봉 + 2WAY 시스템 + 1-SHOT 침대
- 업계최초 102개의 지압봉으로 구성
- 2-WAY SYSTEM으로 편리한 기능 강화
- 인체 공학적 특수 설계 (지압봉 편심방지 기능 탑재)
- 강력한 파워를 기반으로 한 소음 최소화
- 지압, 마사지, 온열 등 다양한 기능 탑재
- 동작중인 지압봉의 위치표시

지압침대의 발명자가 최초 설계한 GH 오리지널 제품

지압침대의 특징

- 102개의 지압봉 + 2WAY 시스템 + 1-SHOT 침대
- 업계최초 102개의 지압봉으로 구성
- 2-WAY SYSTEM으로 편리한 기능 강화
- 인체 공학적 특수 설계 (지압봉 편심방지 기능 탑재)
- 강력한 파워를 기반으로 한 소음 최소화
- 지압, 마사지, 온열 등 다양한 기능 탑재
- 동작중인 지압봉의 위치표시

본토 휴침대는 세계 최초로 장판을 덮지 않고 고온에 굽지도 않고, 화학성분을 단 1%도 사용하지 않는 **체소를 키워서 먹을 수 있는 생황토로 만들어진 '누드 휴폼'을 사용한 자연주의 제품입니다.**

게르마늄 카우치 싱글침대 평상

본토휴침대 100% 생황토

온열 지압 카우치 / 온열 지압 삼강 평상

장운정의 휴표 휴 매트 침대

휴표 휴침대 워싱턴 대리점

황토에 한약재를 넣고 전자파가 나오지 않는 침대
 높은 원적외선을 방출하는 침대
 산소와 피톤치트를 공급하는 침대
 산림욕 효과
 슬립질 향상

휴표 휴매트

대(竹)와 황토의 만남

황토를 600도에서 고온숙성하여 만든 황토를 원료로한 휴표 휴매트는 전면은 최고급 인조양털, 후면은 시원한 고급 대(竹) 자리를 부착하여 침대 위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제작된 사계절용 만능 매트입니다.

전면: 고급 인조 양털 / 후면: 고급대(竹) 자리

3층 피복구조 무자계열선 적용으로 안전한 휴표휴매트

원적외선 명품매트

휴표 휴매트

대(竹)와 황토의 만남

황토를 600도에서 고온숙성하여 만든 황토를 원료로한 휴표 휴매트는 전면은 최고급 인조양털, 후면은 시원한 고급 대(竹) 자리를 부착하여 침대 위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제작된 사계절용 만능 매트입니다.

전면: 고급 인조 양털 / 후면: 고급대(竹) 자리

3층 피복구조 무자계열선 적용으로 안전한 휴표휴매트

버지니아 워싱턴 원단 지정 대리점

월턴편백반신욕기

입체발열 시스템으로 열효율 20%UP!

1 자연 그대로 정성으로 만든 친환경 반신욕기
 2 무도장 처리하여 전통 찜질방 방식으로 제작
 3 100% 300년이상 최고급 리오스산 히노키 원목
 4 천연 피톤치드의 놀라운 산림욕 효과
 5 3중 고온 안전처리
 6 전자파 안전 인증 제품
 7 5개 히터의 입체식 발열 시스템
 8 세계 최초 미립자 스팀 기능
 9 원적외선 특수 세라믹 방열판 히터 장착

명작의 감동 건강, 반신욕의영품

최고급 원목에서 나오는 풍부한 피톤치드
 원적외선과 찜질들의 효과로 완벽한 반신욕을 만들어 드립니다.

본토헬스 반신욕기 건식 반신욕기

입정기념 세일 ~~\$1,799~~ **\$1,499**

운동 전후에도, 산전 산후 관리에도, 일상생활 체온 관리에도, 혈액 순환에도 OK!

1 탁월한 발열 시스템 / 2 튼튼한 뉴질랜드 원목 / 3 간단 편리한 작동 / 4 우수한 안전성

최고의 퀄리티- 비교할 수 없는 좋은 가격-

발목펌프 자동운동기 **닥터 쿤**

발목까지 시원한 수직 마사지를

발목펌프 자동운동기

Hand/Wrist Massager

오사키 손목 마사지기 Osaki OA-AA01

손목, 손바닥 손가락 마사지가 가능합니다.

\$150 → **\$129**

NURIEYE-5800

누리아이 눈 마사지기

안구건조증 치료 의뢰기기

피로한 눈, 뻑뻑한 눈곱, 이물감, 부연시아, 눈부심, 충혈

Osaki OS-RK181

눈 마사지기

• 아이백 마사지
 • Shiatsu 자압
 • 온열질 / 진동
 • USB 충전
 • 내장 스피커

\$129

★히트상품★

마사지건

헤드 진동마사지 / 딥 티슈 마사지 건

바누 banu **저당 밥솥**

밥솥만 바뀌도 탄수화물이 빠진다!

실드 라이프

침사파 차단, 자동온도 조절 기능이 있는 보온매트

전자매트 시장점유율 1위 차지

일월 개화봉 매트

2020년형 업그레이드

황토불 원적외선 매트

기모크세사 일월 온열매트

온 가족 따뜻하고 편안하게

일월매트

토르마린 매트

토르마린의 효능

- 원적외선 방사
- 미네랄 분출
- 음이온의 계면활성 효과
- 깊은 숙면으로 유도

한일의료기 마루형 전기매트

한정판매/조기물품/가능 제품

중형 **\$199** 대형 정사이즈 **\$399**

스팀보이 온수매트

난방비 걱정없이 겨울 따뜻하게

스팀보이는 안전 온도조절 Safety Zone

‘이재명 맞춤 당헌’ 친명 일각도 반대... 그래도 밀어붙인다

민주당, 연석회의 열고 개정안 논의
친명 중진 “불필요한 오해 살 우려”
여당 “비이성적 야욕 드러나” 비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오른쪽 둘째)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회의장에서 국회의장 선출을 위한 투표를 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당헌·당규 개정 논란과 관련해 “간접민주주의를 훼손한다는 지적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재명 일극 체제 개정안’이라는 비판이 당 안팎에서 쏟아지는 상황에서 당헌·당규 개정의 지를 내비친 것이다.

민주당은 이날 전국지역위원장 및 국회의원 연석회의를 열고 2시간여 동안 개정안을 두고 토론했다. 당헌·당규 TF 단장인 장경태 최고위원의 설명 뒤에 참석자들의 질의와 자유 발언이 이어졌다. TF가 제출한 개정안에는 ▶당 대표가 대선 출마 시 1년 전 사퇴’의 예외 조항 신설 ▶부정부패 행위 기소 당직자 직무 자동정지 조항 삭제 ▶국회의장·원내대표 선거에 당원투표 20% 반영 등이 대표의 강성 지지층이 요구

해 온 조항이 대거 담겼다.

‘대선 출마 시 1년 전 대표직 사퇴’ 규정에 예외조항을 두느냐 마느냐가 최대 쟁점이었다. 한 3선 의원은 비공개 자유 토론회에서 “1년 사퇴 규정은 예측 가능한 스케줄”이라며 “당 대표나 최고위원이 대선에 나갈 때 언제쯤 관둬야겠다

고 계산한 상태에서 도전하면 되는 것이 아니겠냐”며 개정에 반대했다. 이 의원은 당 지도부가 중진 간담회(3일)에서 거론한 “헌법 개정으로 인한 대통령 임기 단축 및 대통령 탄핵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개정 이유(중앙일보 6월 5일자 1면)에 대해서도 “대통령 탄

핵을 특별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느냐”고 반박했다.

친명계는 “현실적으로 해당 규정은 필요하다”는 현실론을 앞세워 개정을 주장했다. 한 친명계 3선 의원은 “이 규정을 놓고 여러 가지 불필요한 오해가 나오는데, 차라리 오는 8월 전당대회 때 뽑는 당 대표는 2026년 6월 지방선거를 치르고 사퇴하도록 임기를 정해 놓는 게 어떨까”는 절충안도 냈다.

국회의장·원내대표 선거에 당원투표 20%를 반영하는 방안을 놓고도 공방이 오갔다. 한 3선 의원은 “이렇게 논란이 많으면 빨리 통과시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신중하게 의견 수렴을 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러자 대장동 변호인 출신인 한 초선 의원은 “국회의장을 뽑을 때도 당연히 당원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 당원과 국회의원의 생각이 그렇게 동떨어져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 대표들은 마무리 발언에서 “민주당의 힘의 원천은 민주당 지지자다. 그들

이 효능감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며 당헌·당규 개정 추진 의지를 드러냈다. 이 대표는 당원들의 당헌·당규 개정 요구에 대해서도 “받아들이든 아니든 있는 사실”이라며 “(친명) 양쪽 입장이 다 이해가 되지만 그 흐름은 피하기 어렵다. 대중들의 판단력을 믿어야 하고 같이 가는 길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한민수 대변인은 비공개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당원 중심의 대중 정당으로 가기로 모두가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한편 여권은 격하게 반발했다. 광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온갖 범죄 혐의로 재판 및 수사를 받는 이 대표가 탄핵과 같은 돌발 상황이 발생해야 감옥행을 피할 수 있다는 계산이자, 조기대선을 구실로 2026년 지방선거 공천권까지 거머쥐겠다는 포석”이라며 “이로써 이 대표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민주주의를 흔들고 사법 체계를 무너뜨려도 무방하다는 비이성적 민주당식 야욕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강보현·김정재 기자

오세훈, 사흘째 이재명 때리기... 경쟁구도 만들려는 큰그림?

오, 연금 모수개혁 등 연일 비판
총선 전 말야끼던 태도와 정반대



오세훈 서울시장의 연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비판의 날을 세우고 있다.

오 시장은 5일 페이스북에 “이 대표가 언급한 연금개혁 모수개혁은 더 내고 더 받는 것인데 국민연금 고갈 시점이 고작 9년 늘어났다”며 “이걸 두고 개혁이라고 하기도 민망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모수개혁을 해도 10대, 20대인 잘파(Z+알파)세대에게 연금은 내기만 하고 못 받는 돈이라는 사실은 변함



없다”며 “이 대표의 모수개혁 재촉은 불량품을 내놓고 빨리 사라고 종용하는 것”이라고 했다.

지난 4일에도 오 시장은 “이 대표는 이화영 특검법으로 사전 면죄부라도 받으려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3일 발의한 ‘대북송금 사건 검찰 허위진술 강요 진상규명 특검법’이 이 대표의 측근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라고 꼬집은 것이다. 지난 3일엔 이 대표가 “서울시에서 내놓은 정책 중에 정관 복원수술 지원 정책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하자 오 시장은 3시간 만에 “이 대표는 저출생을 위해 뭘 했나”며 반박에 나섰다.

오 시장이 이 대표를 3

일 연속 비판한 건 이례적이다. 지난 2월 오 시장이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 건립을 제안한 것을 민주당이 비판하자 서울시가 재반박하는 대리전 정도가 전부였다. 특히 4·10 총선 과정에서 오 시장은 정치 현안에 말을 아꼈었다.

오 시장의 변화에 대해 정치권에선 “자기 경쟁에 뛰어들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총선 참패 후 여당이 이 대표를 지원하게 꼬집지 못하고 연금개혁 등 정책 이슈에 질질 끌려다니는 상황에서, 이 대표와 대립각을 세워 ‘오세훈 대 이재명’ 구도를 만들려는 포석이라는 것이다.

동시에 ‘점잖은 오세훈’ 이미지를 깨려는 의도라는 시각도 있다. 그간 오 시장에 대한 “한 방이 없다”거나 “강단

이 부족하다”는 세평이 많았다. 여권 관계자는 “기존의 연성 이미지를 탈피하고 보수층에 어필하는 게 필요하다고 봤을 것”이라고 했다.

오 시장은 지구당 부활 논쟁에도 적극 참여했다. 그는 지난달 31일 “지구당 부활은 개혁이 어긋난 방향으로 퇴보하는 것”이라며 “지구당은 지역 토호의 온상이었고, 현금 많이 한 사람이 지방의원을 하는 사례가 비밀비재했다”고 지적했다. 초선 의원이던 2004년 이른바 ‘오세훈법’(정치자금법·정당법·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밀어붙였던 당사자로서 ‘지구당 부활-반(反)개혁’이라고 전선을 그은 것이다.

특히 그는 “여야가 동시에 지구당 부활 이슈를 경쟁적으로 들고나온 건 당

대표 선거에서 이기고 당을 일사불란하게 끌고 가려는 욕심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지구당 부활을 추진하는 이 대표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싸잡아 비판한 셈이다. 지난달 중순 오 시장은 국가인증통합마크(KC) 미인증 제품에 대한 해외 직구 정책을 놓고 한전위원장과 온라인에서 공개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다만 “우리 모두 국민을 위해 뛰자”며 화전은 피했다.

오 시장은 해외 직구 금지조치 논란 당시 “안전과 기업 보호는 직구 이용자의 일부 불편을 고려해도 포기할 수 없는 가치”라며 정부를 옹호했다. 당시 한전위원장과 나경원 의원, 유승민 전 의원이 “졸속 시행” “무식한 정책”이라며 현 정부를 맹공한 것과 궤를 달리했다. 오 시장은 5일 서울 강남동 공관으로 황우여 비대위원장과 비대위원을 초청해 만찬을 했다.

김효성 기자

‘밀양 성폭행’ 피해자 측 “가해자 공개 동의 안해...당황스럽다”

한 유튜브 채널이 2004년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정보를 연달아 폭로하는 가운데 피해자 지원단체가 “피해자와 가족은 가해자 공개에 동의한 적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밀양 성폭행 사건 피해자 지원단체 중 하나인 한국성폭력상담소는 5일 보도자료에서 “피해자 측은 (유튜브 채널) ‘나락 보관소’가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에 대한 첫 영상을 게시하기 전까지 해당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고 사전 동의를 질문받은 바도 없다”고 했다.

나락 보관소가 이날 “피해자 가족 측과 메일로 대화 나눴고 (가해자) 44명 모두 공개하는 쪽으로 결론이 난 상태”라는 공지를 올린 데 대한 반응이다.

한국성폭력상담소는 이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 피해자 측은 영상이 업로

드된 후 6월 3일 영상 삭제 요청을 했고 44명 모두 공개하는 방향에 동의한 바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해당 공지에 대해 삭제·수정을 재차 요청했다면서 “피해자의 일상 회복, 피해자의 의사 존중과 거리가 먼 일방적 영상 업로드와 조희수 경주에 당황스러움과 우려를 표한다”고 전했다.

이 유튜브 채널은 현재 공지에서 피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관련 영상을 잇달아 게시한 유튜브 채널 ‘나락 연구소’. 사진 유튜브 캡처

해자 가족 측과 대화를 통해 가해자 신상을 공개하기로 했다는 내용은 삭제한 상태다. 하지만 여전히 “피해자에

게 허락을 구했냐”라고 질문하는 분들이 많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맞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지혜 기자

한미법률사무소

변호사의 실력을 가늠할 수 있는 두 가지 여건은 경력과 학력입니다. 한미법률사무소의 임종범 변호사는 이 두 가지를 다 갖춘 변호사입니다. 임종범 변호사는 미국의 명문 조지타운 법대를 2003년에 졸업했으며, 그 후로 20여 년간 변호사 활동을 했습니다. 아울러 임종범 변호사는 2005년, 2007년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 대통령의 통역을 맡은 바 있으며, 2010년, 2012년, 2014년에는 싱가포르 상그릴라 장관회의에서 미국 국방장관의 통역을 담당했습니다.

임종범 변호사는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법원,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연방지법,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파산법원 등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미 법률사무소는 한국어와 영어로 속 시원한 상담을 약속드립니다.



대표변호사 임종범
James Yim Victory, Esq.

“지난 20여 년간 아낌없이 성원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인생을 살며 겪게 되는 크고 작은 많은 일들 혼자 갈 수 없는 길엔 동반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좋은 날이 될 수 있다고 믿는 당신에게 희망의 꽃 한 송이 드립니다.”

* 변호사 임종범 *

파산 : 한미는 연방법이 지정하는 채무구제 기관입니다.

이혼 : 합의 이혼, 재산분할, 양육비, 일방 이혼, 배우자 실종 이혼

상속 : 유언장, 트러스트, 가디언, 상속 분쟁

소송 : 오버타임, 항소, 계약위반, 부도수표

이름변경 · 교통사고 · 위임장

아포스티유 · 가족이민 · 추방재판

Hanmicenter.com 웹사이트를 방문하시면 파산 관련 정보를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임종범변호사”를 치시면 이혼, 파산, 생활법률에 관한 동영상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구글검색이나 중앙일보 웹사이트에서 “임종범변호사”를 치시면 한미법률사무소에서 기고한 300여개의 컬럼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사무장 김진주
Jinju Kim

“걱정도 많고, 궁금한 것도 많으실텐데, 저희 한미가 친절하게 도와 드리겠습니다. 먹구름 뒤에도 태양이 있고, 추운 겨울이 지나면 따뜻한 봄이 오듯이 포기하지 마시고 힘을 내세요.”

* 사무장 김진주 *

Hanmi Center for Justice, PLLC (한미 법률사무소) Tel. 703-333-2005 / 301-230-3122

4216 Evergreen Lane, #131, Annandale VA 22003

Hair **Z**one

20주년 기념 스페셜!!

20주년 특가 이벤트 !!

- Mens Hair Cut
Seniors (Up to 65)
Kids (Under 15)
Military

\$19,99

Jacky, Ellen 제외



Body Massage \$49,99 (애난데일점)

60-Minute Body Massage
 - Relaxation Full Body
 - Swedish with Free Essential Oil
 - Therapeutic Deep Tissue



Ellen

Business Hours

MON - SAT 10AM - 6PM
WED, SUN CLOSED

Burke

202-580-9398

8985 Hersand Dr
 Burke, VA 22015



Jacky

Business Hours

MON - SAT 9AM - 7PM
SUN 10AM - 3PM

Annandale

703-750-1020

6920 M Bradlick Shopping Center
 Annandale, VA 22003

뉴욕·한국·일본에서 30년 경력 스타일 리스트

Hair **Z**one

바버 or 미용사 / 바디 마사지사
 풀타임 / 파트타임 구함

Hair Zone 예약 App Download



Apple



Android

“인구감소 받아들이고 축소경제시대 생존 전략 찾아야”

(슈링크노믹스)

2024 미래사회 인구포럼

국가소멸 메시지론 청년 설득 못해 성장률 더 올려야 출생률도 올라가 AI기술 토대로 산업구조 개편 필요 외국인·여성 등 산업인력도 늘려야

지난해 한국은 0.72명이라는 사상 최저 합계출산율을 기록했다. 이제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단기 대책에만 몰두할 게 아니라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를 받아들이고, 경제가 축소되는 ‘슈링크노믹스(Shrink+Economics)’ 시대에 맞는 생존 전략을 모색할 시점이란 목소리가 나온다.

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는 이런 문제 인식을 바탕으로 ‘2024 미래사회 인구포럼’이 열렸다. ‘장기전제로 들어선 대한민국 미래사회 인구문제’를 주제로 중앙일보가 주최한 이날 포럼에는 정부·학계·재계 관계자 및 일반인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박정희 중앙일보 대표이사는 개회사에서 “더 이상 ‘인구소멸’ ‘국가소멸’ 등의 메시지로 청년들을 설득할 수가 없다”며 “이제 ‘인구감소는 꼭 재앙



5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중앙일보 주최로 열린 ‘2024 미래사회 인구포럼’에서 도쿠오 이와이사코 히토쓰바시대 경제학 교수가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작은 사진은 왼쪽부터 이상식 인구보건복지협회장, 주현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박정희 중앙일보 대표이사, 이와이사코 교수, 조영태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장, 김경록 기자

인가’와 같은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 봐야 한다”고 말했다. 축사를 한 주현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인공지능(AI)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토대로 한 산업구조 개편과 외국인 노동자, 여성 등 산업인력 확충이 필요하며 고령 인구의 경제활동 확대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조연설자로 나선 도쿠오 이와이사코 히토쓰바시대 경제학 교수는 “일본

은 고령자의 근로 의욕이 높고 가계 저축률이 높다는 점이 장점”이라면서도 “일본 경제가 ‘잃어버린 30년’에서 아직 완전히 빠져나오진 못했다. 경제성장률을 더 올려야 출생률도 올라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2004년 공적연금 개혁을 통해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재정 위기에 대비한 일본의 경험도 소개했다.

발표자로 나선 이상식(한양대 고령사회연구원장) 인구보건복지협회장은

“육아휴직 급여 제도만 해도 지난 20년 동안 15번 바뀌었다. 정책이 바뀌면서도 계속 짊어질 줄 아는 형태가 지속되다 보니 국민은 체감하기 어렵고, 정부를 신뢰할 수가 없게 됐다”고 비판했다. 진미정 서울대 아동가족학과 교수는 “통계적으로 일·가정 양립 수준이 좋아지고 있지만, 사업체 규모에 따라 편차가 크다”고 지적했다. 기업 사례를 소개한 포스코 김용근 기업시민전략그룹장은 “결혼부터 임신, 출산, 양육 등 직원

들의 라이프 사이클에 맞춰서 지원하는 제도 20여 가지를 운영하고 있다”며 “협력사 직원들도 같은 혜택을 보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영태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장은 “고령화를 모두 걱정하고 있지만 2019년에 64세였던 분과 2039년의 64세는 건강·경제력·교육 수준에서 다르다”며 “(이런 질적 변화를) 심분 활용하는 쪽으로 산업·노동 정책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마강래 중앙대 도시계획학과 교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청년들이 사람을 쉽게 만나서 연결되고 내공을 키울 수 있는 ‘혁신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시했다. 이주민 정책과 관련해 장주영 이민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국도 이주민의 선택을 받는 입장에 놓이게 될 것”이라며 “주요 인구감소국들은 한국에 비해 이주민 통합 정책을 확대하고 있다”고 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김경록 미래셋 자산운용 고문은 “고령층을 어떻게 (시장으로) 유도하고, 바이오·헬스케어 시장 확장 등의 변화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축소사회가 아닌 확장사회로도 나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남수현 기자

신설 예정 저출생부 ‘박정희 경제기획원 모델’로 간다

전부처 예산 심의·집행권 부여 검토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신설 계획을 밝힌 저출생대응기획부(저출생부)에 전부처의 저출생 예산 심의 및 집행 권

리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각 부처에서 저출생 예산을 편성할 때 저출생부와 협의할 필요성이 있다. 이후 돈을 제대로 썼는지 사후 감독을 받

게 될 수도 있다는 뜻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5일 “저출생부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예산 관련 권한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당정 간 논의를 거쳐 정부조직법 개

정을 곧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저출생부 모델은 박정희 정부 당시 주요 산업 정책의 예산 심의와 집행 권한을 함께 갖고 있던 경제기획원(EPB)에 바탕을 둔 것이라고 한다.

박태인 기자

야당 김현·최민희·정청래 진용에... 여당 과방·법사위 기피증

여야는 5일에도 상임위원장 배분 이견으로 원 구성 협상에 실패했다. 이날 국민의힘에서는 “협상도 협상이지만, 우리는 아직 어느 상임위에서 활동할지도 정해지지 않았다”(조선 의원)는 말이 나왔다. 국회법상 각당이 본인 지파와 전문성 등을 고려해 짝 상임위 명단을 국회의장실에 제출한 뒤에야 위원장을 선출할 수 있다.

하지만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원 구성 시한을 이틀 남긴 이날까지도 소속 의원 108명의 상임위 배치안을 내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30일 175명의 18개 상임위 진용을 다룬 것과 대조적이다. 국민의힘 지도부 인사는

“야당의 배치 의도를 분석해 희망보다는 전문성 중심으로 전략적 배치를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선호 상임위 풀림, 기피 상임위 공백 현상이 두드러져 조정이 적잖이 필요하다”고도 귀띔했다.

여당 내 구인안은 민주당이 ‘강성 라인’을 구축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두드러진다고 한다. 야당이 ‘친명 공천’으로 등원한 강경파를 배치하자 여당 의원들은 두 상임위를 기피한다는 것이다. 여론 관련 사안을 다루는 과방위와 상원 기능을 가진 법사위는 원래도 선호 상임위는 아니

었다. 전직 과방위원실 보좌관은 “산자위·정무위·국토위 등 ‘빅3’처럼 지역에 도움이 되는 상임위는 아니지만 주목도가 높아 환노위·문체위보다는 사정이 나왔는데 이번에는 ‘유배지’로 불리고 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이해찬 전 대표의 측근이자 조선 시절부터 공격적이고 날카로운 언행으로 ‘여전사’라 불린 김현 의원을 과방위 간사로 내정했다. 과방위에 포함된 노동운동가 출신 4인 이학영 의원을 비롯해 최민희·노종면 의원 등도 “싸움닭”으로 평가받는다.

국민의힘에서 과방위를 자진 지망한 건 비례 초선인 김경겸·박충권 의원 두

사람뿐이라고 한다. 김 의원은 MBC 사장을 지냈고, 박 의원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에 참여했던 탈북 공학도다. 나머지 과방위원을 찾기 위해 원내지도부는 방송사 앵커, 과학기술 연구자 출신 초선 여럿에게 합류를 권유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이 가면 좋겠다” “지역구부터 챙기고 후반기에 하겠다”는 반응이 돌아왔다고 한다.

법사위도 비슷하다. 민주당 법사위 간사로 내정된 김승원 의원은 2021년 당시 박병석 국회의장을 향해 욕설을 연상시키는 ‘GSGG’ 표현을 써 논란을 빚었다. 박지원(5선)·서영교·정청래(이상 4선) 등 검증된 화력의 중진에 ‘처럼

회’ 주축인 김용민(재선) 의원, 고검장까지 지낸 박군택·이성윤(이상 초선) 의원 등도 포진했다. 국민의힘 전직 법사위원은 “야당 라인업을 보니 징글징글하다. 21대 4년을 숨차게 싸웠는데 더 해야 하나 싶다”고 말했다.

당내에서는 “지도부 차원의 중장기적 상임위 관리 부재가 문제”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민주당의 경우 21대 후반기 과방위원과 법사위원에 친명 강성을 배치했고, 이들 대부분이 22대 총선에서 생환했지만 국민의힘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중진 의원은 “민주당은 투사를 챙기고 키우는 분위기지만 우리는 양지만 찾으려 한다”며 “웰빙 승승을 뿌리뿌지 못하면 희망이 없다”고 말했다.

심새롬 기자



통증·재활의 최고 전문가가 집중 케어 해 드립니다



진료 과목

- 목, 허리 통증 (디스크, 좌골신경통)
- 스포츠 손상/직장상해
- 교통사고 손상/뇌졸중
- 척추손상 후 재활치료

- 주요 근육 관절 통증
- 사전/산후 통증
- 관절수술, 척추수술 후 재활/물리치료
- 자세교정 운동 (측만증, 후만증)

진료 내용

근골격계 치료
레드코드 치료, 사전근육안정화 치료, 척추측만증 치료, 맥켄지 치료, 메이틀랜드 치료

중추신경계 손상치료
신경발달치료, 보박스치료

통증치료
근육 통증치료, 관절 / 근육이완치료, 전기치료

원장 김우기 DPT

- 연세대학교 재활학전공
- 고려대학교 대학원 질병역학전공

- Doctor of Physical Therapy from Dominican College in New York
- Licensed in Virginia, Maryland
- Certified Neurodevelopmental Treatment Practitioner
- Certified Redcord Practitioner
- Certified Dry Needling Practitioner

교통사고·메디케어

■ 각종 의료보험, 메디케어, 캐쉬플랜

CORE Physical Therapy & Rehab

김우기 통증 재활 물리치료

T. 703-865-6455 F. 703-649-6455

[예약환자에 한하여 주말에도 진료합니다]

14153 Robert Paris Ct. Ste. A, Chantilly, VA 20151

[센터빌, 첼렌리 지역]

구강교육치과

나투라 치과

dental implants | bright smile

원장 강동호 Don Kang

무분양자를 위한 **무이자 Plan, Care Credit**

-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졸업 DDS
- 유엔 (Univ. Of Pennsylvania) 치과대학원 졸업 DMD
- 뉴욕대 (NYU) 치과대학 임플란트 수술 / 보철 과정 수료
- 씨애틀 인스티튜트 수료 (Seattle Institute)
- 한국, 미국에서의 22년 임상경력
- 100여명의 치료 의사들이 활동하고 있는 필라 A-1 Family Dental Care에서 최고 기여 치과의사상 수상

“염증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건강한 치아

www.naturadent.net



임플란트
Implant

응급환자
Emergency

잇몸치료
Periodontal Surgery

치아성형
Veneer Lumineers

치아교정
Orthodontics Invisalign

신경치료
Root Canal Treatment

naturadent

dental implants | bright smile

나투라 치과 페어팩스 T. 703-652-4265

9508 Lee Highway, #A, Fairfax, VA 22031 (구)롯데 쇼핑 근처에 있는 IHOP에서 Lee Hwy 건너편

아프리카 14억명 시장 잡는다...대통령 “경제동반자협정 추진”

한·아프리카 비즈니스 서밋 개최
“기업 교역 원활하게 제도 갖추고
개발원조 국가엔 맞춤형 협력”

윤석열 대통령이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이틀째인 5일 “최근 지정학적 리스크로 글로벌 공급망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아프리카의 역할이 크게 주목받고 있다”며 “아프리카 주요국과 ‘핵심 광물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가치를 공유하는 협이체인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을 통해 상호 호혜적인 자원 협력이 확대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4 한·아프리카 비즈니스 서밋’ 기조연설에서 이같이 말했다. MSP는 핵심 광물 공급망 안정과 다변화를 위해 2022년 6월 미국 주도로 출범한 협이체로 한·미·일과 캐나다·영국·호주·유럽연합(EU) 등이 참여하고 있다. 전날엔 한국과 아프리카 48개국 정상, 4개 국제기구 대표가 ‘핵심 광물 대화’를 발족하기로 합의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4 한·아프리카 비즈니스 서밋’에 참석해 박수를 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 대통령은 경제 협력 방안으로 ▶ 교역·투자 규모 확대 ▶ 기후변화 해결을 위한 에너지 전환 ▶ 아프리카 역내 격차 해소 등도 제시했다. 아프리카는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AFCFTA) 출범으로 지역 총생산 3조

4000억 달러, 인구 14억 명의 거대 단일 시장으로 부상했다.

윤 대통령은 기조연설에서 “기업들이 원활히 교역과 투자 활동에 나설 수 있도록 경제동반자협정(EPA)·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를 체결

해 제도적 기반부터 다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기후변화 해결을 위해 원전·태양광·수소 등과 같은 무탄소에너지(CFE)로의 전환이 필수적”이라며 “세계 최고의 시공 능력과 운영 노하우를 보유한 한국 기업과의 협력을 확대해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아프리카 역내 격차 해소를 위해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며 “공적개발원조(ODA)를 받는 국가의 수요에 맞는 맞춤형 개발 협력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한·아프리카 비즈니스 서밋은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와 연계된 공식 경제 행사로, 윤 대통령을 비롯한 한국 정부 인사와 아프리카 22개국 대통령(국왕·총리), 양국 경제계 인사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과 최근 아프리카에 공을 들이고 있는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도 자리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무함마드 울드 가주아니 모리타니 대통령과 양국 간 양해각서(MOU) 체결식 및 오찬 회담을

했다. 양 정상은 천연자원이 풍부하고 젊은 인구가 많아 성장 잠재력이 큰 모리타니와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한국이 협력을 계속 강화해 시너지 효과를 내자고 인식을 같이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오후에는 한·적도기니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에리트레아·코모로·보츠와나·에스와티니·중앙아프리카공화국·세이셸과 양자회담을 연이어 진행했다. 회담에선 각 나라와 한국의 인연, 투자사업, 경제협력, 국제 무대에서의 공조 방안 등이 논의됐다.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는 아프리카 54개국 중 쿠데타 등 정치적 이유로 초청이 불가능한 6개국을 뺀 48개국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원수가 참석한 25개국 모두와 양자회담을 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래 최대 규모의 다자 정상회담이자, 한국이 최초로 아프리카를 상대로 개최한 다자 정상회의라는 의미도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국 외교의 지평을 더욱 넓혔으며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도 한층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현일훈·최현주 기자**

국민 지킨 영웅전 잠든 ‘동물 현충원’

14살 실종 소녀 구해낸 ‘달관’ 포함
군견·경찰견·수색견 등 8마리 안장

의견(義犬)의 고장인 전북 임실엔 국가에 헌신한 경찰견·군견 등을 안장하는 ‘동물 현충원’이 있다. 국내 유일한 공공 반려동물 장례식장인 ‘오수펫 추모공원’이 그곳이다. 이곳 잔디장(葬)터(1333㎡) 중 645㎡에 조성됐다. 임실군은 2018~2020년 국비 등 50억원을 들여 오수면 1만354㎡ 부지에 화장·봉안 시설과 자연장(수목장·잔디장) 장지 등을 갖춘 펫 추모공원을 만든 뒤 민간 업체(株)동물사랑에 운영을 맡겼다.

5일 임실군에 따르면 2021년 8월 문을 연 오수펫 추모공원 내 동물 현충원엔 개 8마리가 안장돼 있다. 2021년 12

월 안치된 장애인 도우미견 ‘사랑이(웰시코기)’를 시작으로 가장 최근엔 32사단 소속 군수색견 ‘달관(셰퍼드)’이 지난 2월 이곳에 묻혔다. 12년간 술한 인명을 구조한 ‘달관’은 2019년 8월 2일 충북 청주에서 가족과 등산을 갔다 실종된 조은누리(당시 14세)양을 발견해 10일 만에 가족 품으로 돌려보내 ‘국민 군견’으로 불렸다.

경찰견 중에선 지난해 5월 안치된 광주경찰청 소속 ‘렉스(셰퍼드)’가 처음이다. ‘렉스’는 살해·유기 사건 피해자 시신 발견부터 건물 붕괴 사고 실종자 수색까지 평생 구조 현장을 누볐다. 이어 지난해 12월 경찰인재개발원 소속 ‘킷(라브라도 레트리버)’과 ‘라텔(셰퍼드)’도 동물 현충원에 나란히 잠들었다.



동물 현충원이 조성된 오수펫 추모공원 내 자연장 전경. [사진 임실군]

다. 임실군 관계자는 “지역이 의견의 고장임을 알리고 증가하는 반려견 장례시설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동물 현충원 등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간 “경찰견은 인명 구조부터 과학 수사까지 다양한 업무를 보조하지만, 장례 절차가 특별히 정해져 있지 않고

장례 비용도 별도 지원이 안 돼 예우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경찰인재개발원은 지난 4월 임실군과 경찰견 장례 절차를 체계화하는 업무 협약을 맺었다. 두 기관은 오수펫 추모공원에 경찰견 안장 구역을 확보하고 관리·유지에 힘쓰기로 했다.

임실은 의견 오수개로 유명하다. 주인을 구하고 죽은 오수개 이야기는 고려시대 문인 최자(1254년)에 쓴 『보한집』에 나온다. 973년 김개인이라 사람이 집에서 키우던 개와 외출해 술을 먹고 돌아가다가 숲에서 잠들었다. 갑자기 들불이 번져 주인이 위태로워지자 개가 근처 냇가를 수백 번 왕복하며 몸에 적신 물로 불길을 막았다. 잠에서 깬 김개인이 이 사실을 알고 몹시 슬퍼하며 죽은 개를 땅에 묻고 갖고 있던 지팡이를 꽂았다. 이 지팡이가 나중에 커다란 나무가 됐다. 개 오(獒)와 나무 수

(樹)를 합한 지명 ‘오수’가 여기서 유래했다고 한다.

1996년 문을 연 민간 단체인 오수개 연구소는 1000여 년 전 실종했던 고려 개를 근간으로 2008년 오수개를 복원했다. 오수개 연구 추진위원회를 주축으로 3차례에 걸쳐 복원·육종 사업을 추진한 끝에 ‘다롱이(암컷)’를 오수개 기본형으로 제정·선포했다.

오수개연구소는 현재 오수개 약 70마리(민간 위탁 포함)를 기르고 있다. 오수개 눈은 황금빛에 아몬드 형태라고 한다. 귀는 역삼각형이고, 털은 주황색이다. 꼬리는 공작처럼 말려 올라갔다. 이질형 오수개연구회 기획연구팀은 “오수개는 고려개·더팔개(긴 털이 더부룩하게 난 개) 등으로 불린 품종이 한반도에 내려온 뒤 1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한국 기후·풍토에 맞게 토착화했다”고 말했다. **임실=김준희 기자**

일자리 옮긴 근로소득자, 3명 중 1명은 월급 줄었다

직장인 김모(55)씨는 대전의 한 은행에서 27년간 일하다 지난해 퇴직했다. 퇴직을 앞두고 일자리를 알아보다 중소기업업체로 이직했다. 김씨는 “인생 2막을 빨리 열고 싶어 공백없이 이직했다”며 “월급은 은행보다 적지만, 일이 편하고 정년 없이 오래 다닐 수 있어서 좋다”고 말했다.

직장을 옮긴 월급쟁이 3명 중 1명은

월급이 더 적은 곳으로 이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이가 많을수록 이런 경향이 두드러졌다. 통계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잦아들던 2022년 당시 상시 임금근로자(일용직·특수직 제외) 중 이직자 415만9000명을 분석한 결과다.

5일 통계청 ‘2022년 일자리 이동 통계’에 따르면 나이가 들수록 이직 시

임금 ‘다운 그레이드’를 감수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이직자 중 임금이 더 적은 곳으로 이직한 비중이 60대 이상(39.3%)에서 가장 컸다. 이어 50대(37.9%), 40대(34.4%), 30대(30.9%), 10~20대(29.4%) 순이었다.

이직 전후로 월급이 감소한 폭은 25만원 미만(10.8%)이 가장 많았다. 이어 50만~100만원(6.9%), 25만~50만원

(6.2%), 100만~200만원(5.2%), 200만원 이상(5.0%) 순이었다. 성별로는 남성(35.0%)이 여성(32.6%)보다 임금이 줄어든 비중이 더 컸다.

이직이 가장 활발한 세대는 2030 청년층이었다. 임금 근로자 중 이직률은 10~20대(22.1%), 30대(16.6%)가 높았다. 이어 60대 이상(14.7%), 40대(14.0%), 50대(14.4%) 순이었다. 한창 가정을 꾸려나가는 4050세대 이직률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직 시 ‘월급쟁이’ 선호도가 높은 점도 두드러졌다. 임금 근로자는 이직 하더라도 92.9%가 임금 근로자로 남았다. 자영업자 등 비(非)임금 근로자는 85.8%가 임금 근로자로 바뀌었다.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이직 장벽’도 여전히 중소기업 이직자 중 대기업으로 이직한 비율은 12.0%에 그쳤다.

업종별 이직률은 건설(34.6%), 사업시설·지원(24.7%), 보건·사회복지(17.5%)에서 높았다. **세종=김기환 기자**

보험 에이전트 모집합니다.

유니티 보험은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보험/재정 전문가를 양성합니다.

- / 다양한 보험상품을 배울 수 있는 기회
- / 안정된 수입이 가능한 평생 전문직
- / 경력자, 보험 배우시고 싶은 분 모두 환영

유니티의 강점

- 업계 최고의 보험/재정 전문가들의 교육과정
- 기초부터 최근 이슈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교육
- 유니티의 각분야 보험 전문가들과 인적 네트워크
- 다양한 보험상품을 한곳에서 배울 수 있는 기회

유니티 보험

Uniti Global Insurance Services Inc.
14631 Lee Hwy, Unit #408, Centreville, VA 20121

대표번호: 888-756-7549

교통사고

- 목, 허리 디스크
- 좌골 신경통
- 어깨, 무릎 통증
- 직장사고, 운동사고
- 척추 교정 및 물리치료
- X-ray, 재활운동 시설 완비

수술없이 목·허리 디스크를 치유하는
최신 디스크 감압치료
DRX 9000-C

김응권 척추신경 전문의

모든 통증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정확한 진단, 차별화된 치료로 고통에서 자유로워 지십시오!

교통 사고 후 필요한 모든 절차를 불편함 없이 도와드립니다.

“내 가족을 보살피듯 정성을 다해 치료합니다!”

김응권 척추신경 전문의

- Johns Hopkins, MBA
- Kyung Hee University
-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 LCA Member
- VA, MD Boards License with PT Privilege
- Certified Disc Treatment Specialist.
- Certified DRX (디스크 감압치료 전문의)
- Whiplash & Brain Injury Traumatology Specialist (교통사고 치료전문)

VA 센터빌
703-815-2300
13880 Braddock Rd., #207
Centreville, VA 20121

MD 락빌
301-881-1000
12230 Rockville Pike, #250
Rockville, MD 20852

MD 엘리콧 시티
410-715-3500
8860 Columbia 100 Pkwy, #311
Columbia, MD 21045

한인 MRI+초음파 센터

T. 410-740-0055

8860 Columbia 100 Pkwy, #10
Columbia, MD 21045

우리말 바꾸기

‘되어서’는 ‘돼서’가 되고

‘되/돼’와 관련해 맞춤법에 혼란을 겪는 이들이 많다. “엄마가 되어서 딸이 됐다”고 하면 안 된다. “엄마가 돼서 딸이 됐다”가 바르다. “부모가 되어야 부모의 마음을 안다”도 마찬가지다. ‘되어야’는 ‘돼야’로 축약된다. “엄마가 되니 엄마가 보인다”는 어떨까? ‘되니’는 더 줄지 않는다.

동사 ‘되다’의 어간 ‘되-’에 모음 어미 ‘-어/-어서/-었-’ 등이 붙어 활용될 때는 ‘되-’와 ‘-어’를 축약해 ‘돼/돼서/됐다’와 같이 ‘돼’로 적는다. 자음 어미가 붙어 활용될 때는 줄어지지 않으므로 ‘되고/되니/되면’처럼 ‘되’로 표기한다.

사실상 발음으로는 ‘되/돼’를 구분하기 쉽지 않다는 점도 혼동을 주는 요인이다. “안 되요”와 “안 돼요”, “안 되죠”와 “안 돼죠”가 특히 헷갈린다. 구분법은 간단하다. 무엇을 써야 할지 망설여진다면 ‘되어’를 넣어 보면 된다. 자연스러우면 ‘돼’로 표기하고, 어색하면 ‘되’로 적는다고 생각하면 쉽다. “안 돼요”의 ‘돼’를 ‘되어’로 바꾸면 “안 되어요”가 돼 부자연스럽다. “안 되죠”가 바른 표현임을 알 수 있다. ‘-죠’는 어미 ‘-지’에 보조사 ‘요’가 결합한 ‘-지요’의 준말이므로 “안 되지요” “안 되죠”로 써야 한다. “안 돼요”의 경우 ‘돼’를 ‘되어’로 바꿔도 자연스럽다. “안 되어요”는 말이 되므로 “안 돼요”가 바른 표현임을 알 수 있다.

독자 참여를 기다립니다

한인커뮤니티를 위한 제언, 신문을 보고는 낯, 문예작품, 독자투고 등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워싱턴 중앙일보 편집국 오피니언 담당자: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이메일: dc.thekoreadaily@gmail.com 전화: 703-281-9660

◆오피니언은 본지 편집방향과 관련이 없습니다.

중앙일보 The Korea Daily
dc.koreadaily.com

대표전화 : 703-281-9660
(광고·구독 문의 및 기사제보)

발행인 김영천
편집국장 박세용 광고국장 송동윤

2001년 9월 22일 창간
7023 Little River Tpk #310, Annandale, VA 22003

본사 전채 계약 제휴사
한국중앙일보, Washington Post

Washington Joongang Newspaper inc. is not a branch office of Koreadaily, subsidiary or franchise of the company, but a licensee of the content of the company.

중앙칼럼

‘루프탑 코리안’ 이 남긴 유산



최인성
사회부 부국장

키던 정신은 아직 남아있는지 궁금하다. 예를 들면 한인타운 내 D 식당은 몇 년 전 서울에서 온갖 기술과 메뉴를 공수해오면서 한 가지 고수한 원칙이 있었다. 한인 사회 내 언론과는 관계를 갖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주류 방송사를 섭외해 촬영하고 타인종 손님들을 끌기 위해 각종 소셜미디어를 동원했다. 아직도 이런 전략이 효과를 발휘하는지 알 수는 없다.

10년 전쯤만 해도 한인타운에 새로운 식당이 오픈하면 오래 직원들과 몰려가 식사 겸 메뉴 품평도 하고 식당 대표의 고향과 출신학교까지 물으며 친구이자 선�후배가 되기도 했다. 한인 사회가 새로운 식구를 반기는 일종의 의식이었던 것이다.

한인 사회가 그냥 업소를 차리고 장사를 하면 되는 신도시 같은 곳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D 식당 측은 한인 사회 바비큐 식당들이 어떤 시행착오를 거쳐 자리를 잡았는지, 커뮤니티 일원으로서 할 것은 무엇인지 돌아보기를 바란다. 단만 벌면 된다는 생각보다는 커뮤니티에 대

한 최소한의 존중이 필요하다. 한인 단체들도 힘이 빠져 있다. 팬데믹을 거치며 참여자가 줄고 운영자금도 빠듯해진 탓이지만 그래도 할 일은 많고 해야 한다. 단체 관계자들은 이곳저곳에 얼굴을 비치고 사진을 만들어 언론에 노출되면 그것이 활동 성과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루프탑 코리안’의 비장함까지는 아니더라도 커뮤니티의 최소 교두보는 지켜주길 기대한다. 열심히 활동하는 분들은 억울하다고 할 수도 있지만 한인 사회를 대표하고 봉사한다고 홍보하며 정부와 기업들의 지원을 받는다면 그 정도의 책임과 의무감은 필요하지 않겠다. 예전 베트남 커뮤니티의 한 단체장 이야기가 아직 귀에 남는다. 그는 거리에서 시니어들이 대우받는 모습을 보면 커뮤니티의 수준이 보인다고 했다. 우리는 모두 나이가 들면 노년이 되기 마련이다. 또 현재는 경제력이 있지만 앞으로 가난해질 수도 있다.

미주 한인 이민 역사도 120년이 넘었다. 한인 사회가 시니어들을 어떻게 대우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할 것이다. 그들은 지금은 외롭고 힘들지만 한 때는 한인 사회의 얼굴로 한인 사회를 이끌었던 분들이다. 이들이 한국과 미국에서 경쟁하고 버틴 기록이 없다면 오늘의 한인 사회가 가능했을까. 거리에서 식당에서 모임에서 만나는 어르신들을 더 공경하고 배려하자. 커뮤니티리안에게 꼭 필요한 덕목이다.

열린 광장

무엇을 위하여 싸우고 있는가



백인호
송강문화선양회
미주회장

군인은 국방을 튼튼히 해 국가와 국민을 지킬 의무가 있고, 정치인에게는 국민이 잘살 수 있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요즘 한국 정치권을 보면 걱정이 앞선다.

특히 집권 보수 세력의 내부 혼란이 심각해 보인다. 이런 상황에 대해 모 신문에는 “국가의 침몰 위기에도 보수 우파 정치인들은 싸움도 할 줄 모르고, 투쟁력도 없고, 쓸개도 자존심도 없고 오로지 보신주의 계산만 하고 있다”고 비판하는 칼럼까지 게재됐다.

칼럼은 이런 상황을 “비겁하고 천박한 이기적 욕망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정치인들이 정의를 위해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국익을 위하여 열정과 끈기없이 남의 집 싸움 구경하듯 보고만

있어야 되겠냐는 질타다. 집권 여당은 과연 여당의 역할을 하는지 그럴만한 능력이 되는지 의구심을 버릴 수 없다는 지적이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침공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언제 어디서 또 전쟁이 일어날지 모른다.

그런가 하면 세계는 잇단 천재지변과 전염병 등과 싸우느라 몸살을 앓고 있다. 사회에 만연된 불법과도 싸워야 한다. 세상은 온통 싸움판이고 전쟁터다.

인류의 평화를 위해 늘 싸울 준비를 해야 한다. 그러나 목표가 어디고 목적이 무엇인지 알고 싸워야 한다. 군대는 주적이 분명해야 작전계획을 세워 승리할 수 있듯이 정치는 국민을 위한 올바른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인간이 좋은 세상을 만들기엔 역부족인가. 왜 무의미한 싸움을 끝없이 하는 것인가. 탐욕을 썩 버리고, 국민의 삶을 위해 말싸움도 하고 성난 곰과 같은 투쟁력을 보여주는 것은 어떨까. 저 푸르고 높은 하늘 바라보며 마음의 문을 열고 서로 사랑하며 잘 살아야 하지 않겠는가.

임마누엘 홈헬스

임마누엘 간병인들은 치매교육과 노인 질환 및 장애인 수발법등 이론과 실습을 마친 간병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무료 간병사혜택 서비스 신청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이드 소지자, 장애인, 퇴역군인(Veterans Affair) 혜택자

전문 간병인이 되고 싶으신 여러분을 위해 임마누엘이 도와드립니다.

임마누엘은 신뢰를 바탕으로 간병사님들의 의견을 소중히 생각하며 간병사님들의 복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간호학 박사의 명강의로 노인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교육
- 간병인 교육과 심폐소생술(CPR)/응급처치(First Aid)를 한주에 수료 가능
- 유급병가(paid sick leave)
- 간병인 영주권 스폰서 가능

간병인에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문의 바랍니다.



Emmanuel Adult Medical Day Care Center **최고 시설 최대 규모**

임마누엘 어덜트 메디컬 데이케어 센터

한인 어르신분들을 가족같은 분위기로 행복하고 즐거운 노년을 보내실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신장비를 갖춘 물리치료실(치료사 상주), 마사지체어실, 영화관람실, 노래방

전문적인 의료 및 간호서비스 소셜서비스 / 통근서비스

활기차고 재미있는 맞춤형 액티비티 최고의 맛과 영양을 자랑하는 식사

443-288-6677 8174 Lark Brown Road, Suite 201, ElkrIDGE, MD 21075
Email: care@emmanuel.care / www.emmanuel.care 1801 Research Blvd, Suite 580, Rockville MD 20850

443-828-7777 6612 Baltimore National Pike Catonsville, MD 21228

443-288-6677 8174 Lark Brown Road, Suite 201, ElkrIDGE, MD 21075
Email: care@emmanuel.care / www.emmanuel.care 1801 Research Blvd, Suite 580, Rockville MD 20850

북은 오물, 남은 전단... '바람 전쟁'이 군사 충돌로는 번지지 말아야

(北) (南)

남과 북이 같은 레일 위에서 마주 보며 달리고 있다. 남북이 대북 전단과 오물을 담은 풍선 살포에 이어 군사적인 대치 국면을 이어가면서다. 북한은 지난해 말 남북관계를 “교전 중인 적대국”으로 규정했다. 이어 한국을 겨냥한 단거리 미사일로 위협하고 나섰다. 특히 북한은 최근 오물을 담은 풍선을 날리면서 서해에서 충돌 가능성을 언급하고 나섰다. 이에 맞서 정부는 지난 4일 국무회의를 열어 휴전선 일대에서 군사 활동을 중단키로 한 9·19 군사합의 효력을 정지하는 조치로 맞섰다. 북한이 꺼리는 대북 방송이나 전광판 설치 카드도 만지작거리고 있다. 남북이 ‘강대 강’으로 대치 수위를 높이며 충돌 가능성이 커졌고, 한반도와 동북아 안보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1 북한이 지난달 28일 쓰레기와 두엄 등을 넣어 살포한 오물 풍선이 경북 영천에 떨어졌다. 2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지난달 10일 북한으로 보내는 전단 풍선을 들고 있다.



2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지난달 10일 북한으로 보내는 전단 풍선을 들고 있다.

임을 보면 추가 움직임도 예상된다. 북 국방성 부상은 담화에서 대남 대응 방향 세 가지를 공개했다. 대남 공세적 대응, 해상 주권 보호를 위한 자위력 행사, 오물 풍선 살포 등이다. 이후 북한은 정찰위성과 18발의 초대형 방사포 동시 발사, 위성항법장치(GPS) 교란 등 군사적 행동에 나섰다. 오물 풍선이 치밀한 시나리오 속에 진행되고 있다는 방증이다. 북한의 오물 풍선에 한국이 대북확성기 카드를 꺼내 들자 수 시간 만에 오물 살포를 중단하겠다고 밝힌 게 확성기가 무서워서라기보다 일종의 연막일 수 있다는 얘기다.

특히 북한이 언급한 해상, 즉 서해의 긴장은 우려되는 부분이다. 서해는 한반도의 화약고라고 불릴 만큼 천안함 폭침 사건, 연평도 포격전, 연평-대청 해전 등 북한의 도발과 남북한의 군사적 충돌이 끊이지 않은 곳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 1월 헌법을 개정하고 영토 조항을 삽입하도록 했다. 북한이 헌법에 해상 경계선을 현재의 북방한계선(NLL)이 아니라 자신들이 주장하는 NLL 이남으로 삼을 경우 남북 간 경계선을 둘러싼 물리적 충돌 우려가 있다. 북한이 이번 여름 대규모 한-미 연합훈련 등을 도발 명분으로 삼을 수도 있다.

북한은 천안함 폭침이나 목함지뢰 등 한국이 예상하지 못한 뒤통수 치기 도발에 나선 전례가 있다. 지난 2일 북한은 대북 전단 살포를 잠정 중단한 뒤 일단 잠잠하다. 어쩌면 기상천외한 ‘방법’을 준비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 풍선이 오가며 긴장이 고조된 상황이 군사적 충돌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능력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풍선은 바람의 방향에 좌우되지만 군사적 충돌은 남북 정책결정권자들의 의지로 얼마든지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정용수 통일문화연구소장·논설위원

① 북한은 왜 오물을 날렸나

정부가 9·19 군사합의 효력을 정지하는 강경 카드를 꺼낸 직접적인 배경은 북한의 오물 풍선이다. 북한은 지난달 28일과 지난 1일 한국을 향해 거름과 담배꽂초, 생활 쓰레기를 담은 수 천개의 풍선을 살포했다. 북한은 지난달 10일 탈북자가 주축이 된 국내 단체들이 날린 대북 전단에 대한 대응이라고 주장한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이 북한 체제를 비판하는 전단과 미국 달러화, 개수 임영웅씨의 노래를 담은 USB를 담아 풍선을 날린 것에 오물로 대응한 것이다. 북한은 ‘우리 식’을 내세우며 서방 문화를 저질로 취급한다. K-팝으로 불리며 전 세계가 열광하는 한국의 문화를 북한은 반동 문화로 규정하고, 주민들이 접해선 안 될 극도의 경계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이다. ‘오물’ 또는 ‘쓰레기’로 규정된 남측 문물을 담은 풍선에 자신들은 ‘진짜 쓰레기’로 맞선 모양새다.

게다가 북한은 자극적인 전단 내용의 전파를 중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북한으로 날린 전단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비난하거나, 그의 부인을 비하하는 내용도 담겼다. 북한의 체제 운영 원리인 유일사상 10대 원칙은 최고지도자의 “권위를 훼손시키려는 자그마한 요소도 융화묵과(融和黙過)하지 말고 비상 사건화”하도록 하고 있다(3조3항). 한국을 찾았던 북한 응원단이 비에 젖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사진을 보고 울며 한국 정부에 항의하며 수거에 나섰던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렇지만 북한이 지난달 25일 오물 풍선 살포를 예고하며 군사 분야에서 대남 공세적 대응과 서해 충돌을 암시했다는 점을 눈여겨봐야 한다. 오물 풍선이 대북 전단에 대한 대응 차원을 넘어 의도적인 긴장 조성을 위한 유인책일 수 있기 때문이다.

② 남북 '전단 전쟁'의 오랜 역사

군에서 전단은 심리전의 일환이다. 적의 지도자나 정책, 전략을 비난하거

나 전황을 알려 적군의 동요를 시도하는 수단 중 하나가 전단이다. 또 외부 소식을 전달해 상대를 동경하는 심리가 싹트도록 하려는 목적도 있다. “유엔군 수용소에는 따뜻한 잡자리와 좋은 음식과 충분한 약품들이 북한군 장병인 당신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식이다. 남북이 28억 장의 전단을 살포했던 6·25전쟁이나 적군의 투항을 유도하기 위해 대대적인 전단을 뿌렸던 베트남 전쟁은 전단을 활용한 심리전의 대표적 사례다. 여기에 6·25 전쟁 때는 ‘안전보장증명서’(SAFE CONDUCT PASS)나 귀순증을 전단 형태로 만들어 뿌리기도 했다.

휴전 이후에도 남북의 전단 살포는 멈추지 않았다. 북한은 수시로 전단을 날려 자신들의 체제를 선전했다. 한국은 국민(초등)학교에서 북한의 전단을 발견할 경우 신고하도록 교육하고, 발견한 전단을 학교나 경찰에 가져가면 책받침이나 자, 노트 등 학용품을 지급하기도 했다. 하지만 1980년대 들어 한국이 체제 경쟁에서 확연히 우위를 점

하고, 90년대 북한이 경제난을 겪으면서 대남 전단은 줄어들었다. 반면, 한국은 탈북민을 중심으로 결성된 민간단체들이 20여년 전부터 북한의 핵 개발이나 체제를 비판하는 전단을 공개적으로 날렸고, 북한은 반발했다. 북한은 풍선을 향해 고사총을 쏘며 대응하기도 했고, 이 과정에서 북한이 쏜 탄환이 남측 접경지역 민가에 떨어지기도 했다. 남북은 돌발적인 충돌을 막기 위해 2018년 전단 살포를 비롯한 적대행위를 중단하기로 했다.

③ ‘치고 빠진’ 북, 여기서 멈출까

북한은 지난 2일 잠정적으로 오물 풍선 살포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한국군이 휴전선 일대에서 군사훈련을 재개키로 하긴 했지만 9·19 군사합의를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라고 조건부로 무효화하며 나름대로 관리에 나선만큼 북한 역시 여기서 멈춘다면 다행이다. 그러나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나 정치국 회의(지난달 24일), 국방성 부상의 담화(지난달 25일) 등 일련의 움직

수사는 외과수술에 비유되곤 한다. 환부만 도려내는, 거역만 처벌하는 수사를 최고로 친다. 수술 이후 환자의 섭생이 바뀌지 않는다면 재발 여지가 크다는 점도 비슷하다. 구조를 바꾸지 않는 한 범죄는 재발한다. 섭생을 바꾸는 게 환자의 몫이듯, 수사가 끝난 뒤 문제의 체계적 원인을 제거하는 건 수사기관이 아닌 다른 이의 몫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채상병 수사는 그런 의미에서 윤석열 정부 국정운영의 이정표가 될 성싶다. 임성근(사진) 해병대 1사단장 등 지휘부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뒤집기 위해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국방부 등이 외압을 행사했는지는 수사로 밝혀질 일이다. 그러나 국정 운영의 구조적 난맥상은 수사의 메스로 도려낼 수 없다.

채상병 수사 뒤에 남은 일들

과거에는 권력 핵심부가 수사 라인에 ‘원 포인트’ 전화 한 통화로 결과를 주무르기도 했다. 그런데 이번엔 “대통령 참모와 군 관계자들이 계통도 없이 우왕좌왕하며 국방부와 군, 경찰 여기저기 전화를 걸고 썰러 댄 덕에 증거가 많이 남았다”(전 공수처 관계자)고 한다. 수사가 매끄럽게 흘러가지만, “다른 국정 운영도 이렇게 하는 것 같아 걱정”이라는 그의 말에는 뼈가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과 비화폰(도청방지 전화)이 아닌 개인 명의 휴대전화로 통화를 주고받은 사실이 밝혀진 건 황당하다 못해 우려스



럽다. 안보 참사가 터지기 전에 드러난 걸 위안으로 삼아야 할 것 같다. 윤 대통령이 참모들과 회의에서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게 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냐”고 질책했다는 ‘VIP 격노설’도 그렇다. 그 자체로는 범죄가 아닐 수 있다. 그러나 대통령이 국민 생명을 어떻게 대하는 지를 엿볼 수 있는 틈새가 벌어진 순간이다. ‘VIP

격노설’의 사실 여부에 언론이 관심을 갖는 이유 중 하나다. 윤 대통령이 지난달 취임 2주년 회견에서 “생존자를 구조하는 상황이 아니라 돌아가신 분의 시신을 수습하는 일인데, 왜 이렇게 무리하게 진행을 해서 인명사고가 나게 하느냐”라고 국방부장관에게 질책당 당부를 했다는 해명도 ‘VIP 격노설’이 여론에 미칠 위력을 알고 있기에 한 말일 것이다. 수술이 끝난 뒤에는 보양(保養)을 하고 체력을 회복해야 한다. 수술의 성패도 거기에 달렸다. 이 전처럼 하다가 병이 재발하면 수술이 무용지물이 된다. 수사 이후에 윤 대통령과 그 참모들이 바뀔지가 중요한 것도 그 때문이다. 박헌준 사회부 기자

김원근 변호사

이민비자 영주권
비즈니스 관련·파산신청

- 결혼 영주권·취업 영주권·한국영사 심사 E-2 비자 등 각종 비자·신분변경
- 리스계약·비즈니스 세틀먼트·프랜차이즈
- 개인·비즈니스·챗터 7·챗터13·학자금용자 감면
서브챗터 5·챗터 11·파산법원의 각종재판

Weon G. Kim
VA, MD, DC Attorney at Law

TEL: 571-278-3728

8200 Greensboro Dr., #900
McLean, VA 22102

www.GIANTREALTY.com

자이언트 부동산

- 부동산 전문지식
- 협상능력
- 리스팅 전문 서비스

결과가 다릅니다!

자이언트 부동산 사장 **수잔 오**
Licensed in VA·MD·DC
703.975.4989
susanoh@giantrealty.com
office. 703.641.4989

VA

FAIRFAX HQ Office 703.641.4989 Fax 703.641.0033
2751 Prosperity Ave., #580, Fairfax, VA 22031

MD

ELLCOTT CITY Office 410.750.8040 Fax 410.750.3992
3277 Pine Orchard Ln., Suite 2, Ellicott City, MD 21042

시 설

시작부터 파행... 22대 국회, 개원부터 왜 이 모양인가

어제 22대 국회가 첫 본회의를 열어 전반기 국회의장으로 우원식 의원을 선출했다. 국회의원은 민주당의 일방적 선출 절차에 동의할 수 없다며 본회의에 출석하지 않았다. 국민의힘 몫의 국회부의장 후보도 내지 않았다. 반쪽 개원했던 21대 국회 때와 달라진 게 없다. 그나마 21대 때는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이 본회의에 전원 참석한 뒤 표결 직전 곧바로 퇴장했다. 총선 과정도 그랬지만 개원 과정도 여야 모두 국민에게 희망은 커녕 실망만 안겨주고 있다. 법제사법위원회·운영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위원장을 서로 가져가려는 신경전 때문이라고는 하지만, 국민의힘은 적어도 국회 의장을 뽑는 본회의에는 출석해야 했다. 국회법에는 개원 직후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국회의장단을 선출하고 3일 안에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게 돼 있다. 타협이 됐으면 더 좋았겠지만, 국회법을 따르지 않는 국회의원이 어떻게 국민에게 법을 지키라고 할 수 있겠는가.

22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 지 1주일밖에 안 됐지만 그 사이 발의된 법안들을 보면 더욱 기가 막힌다. 단 5일 만에 특검법이 5건이나 발의됐다. '1일 1특검'이다. 지난 14대 국회 이후 30여 년간 역대 국회에서 발의된 특검법(118건)의 4%지만, 이렇게 단기간에 무더기로 내놓은 건 처음이다. 민주당이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김건희 여사 의혹 관련 특검안을 잇따라 내

놓자 국민의힘도 김정숙 여사의 호화 외유 의혹 관련 특검으로 맞불을 놓으며 일어난 일이다. 수사기관의 수사가 미진한 사안에 한해 특별히 적용하는 게 특검의 본질이다. 그런데 정치적 의도에 의해 "의혹만 있다면 일단 특검하자"고 나서면 그건 더 이상 특별하지도, 옳지도 않다. 이런 상황을 초래한 민주당은 각성해야 한다. 국민의 불신과 피로감만 초래할 것이란 점을 명심해야 한다.

우원식 신임 국회의장은 어제 당선 인사에서 합의된 기준의 준수, 현장성 제고, 사회적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국회는 국민의 뜻을 실현하고 국민의 삶에 보탬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옳은 지적이다. 무엇보다 국가 특검 정파의 의도만을 실현하는 장이

돼선 곤란하다. 국회의장은 대통령과 행정부를 견제도 해야 하지만 이른바 '개팔'로 표현되는 민주당 강성 지지층의 팬덤에 휘둘러선 안 된다. 그러다간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국민에게 한숨과 절망만 안길 것이다. 우 의장은 이와 함께 여야의 정쟁을 방관만 하지 말고 균형추로서 절충안·대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하는 입법부, 나아가 우리 사회의 최고 어른 역할을 해줘야 한다. 여의도 율타리에 머물러 있지만 말고 글로벌 경쟁 속에 대한민국이 살아남고 우뚝 설 수 있도록 입법적 정책 뒷받침도 선도해 달라. 이제 우 의장의 어깨가 무겁다.

여당, 표결 불참하며 '반쪽 국회의장' 탄생 유감 야당 '1일 1특검' 반복... 의장의 균형자 역할 절실

또 날아든 기후 위기, 당장 폭우 대비가 시급

기후 위기에 대한 경고장이 또 날아왔다. 세계기상기구(WMO)가 어제 발표한 기후 업데이트 보고서는 2024~2028년 지구의 평균온도가 산업화 이전보다 일시적으로 1.5도를 초과할 가능성이 80%에 이른다고 밝혔다. 1.5도는 2015년 파리협정이 정한 지구 평균온도 상승의 마지노선이다. WMO가 80%의 가능성을 예고한 1.5도 초과는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의미해 파리협정이 정한 한계선을 지속해서 넘어서는 수준까지는 못 미친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지구 온도가 위험수위를 높은 확률로 넘나든다는 사실은 결코 간과할 사안이 아니다. 2015년만 해도 0에 가깝던 '1.5도 초과 가능성'이 2017년엔 20%로 높아졌고, 지난해엔 66%에 이르렀다. 이제 80%까지 치솟았으니 특단의 대책이 없으면 마지노선을 넘는 건 시간문제다.

지구 온난화 시나리오는 끔찍하다. 지구의 지표 근처 온도(1.2~2m 높이 온도)가 2도 상승 시 플랑크톤 감소로 수산 자원의 17%가 줄고 산호초의 99%가 사라질 수 있다. 3도 오르면 생물의 54%까지 멸종할 가능성이 있다(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패널, IPCC).

그런데도 세계 각국은 자국의 이해에 매몰돼 공동 대응이 난관에 봉착한 상태다. 지난해 12월의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에선 합의문에 화석연료의 '퇴출' 문구를 넣는 문제로 충돌한 끝에 '전환'이

란 용어로 절충해야 했다.

우리 상황도 심상치 않다. 최근 3년 봄철 평균기온은 1973년 이후 역대 1~3위를 기록했다. 우리 정부는 세계 무대에서 거창한 계획을 발표했으나 실천 의지와 역량에 의문을 자아냈다. 문 전 대통령은 2021년 COP26에서 "2030년까지 온실가스 40% 감축"을 목표로 제시했다. 그러나 탄소 감축에 기여가 큰 원전을 위축시켰고, 태양광 등에서선 비리가 횡행했다.

윤 대통령은 2022년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개발도상국의 저탄소 에너지 전환을 도울 것"을 약속했고, 작년 유엔총회에선 "끓는 지구로 인해 폭염뿐 아니라 폭우, 태풍 같은 극한 기후가 일상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작 기상 이변으로 인한 각종 재난에 대한 대처는 어설피기만 했다. 지난해 오송 지하차도 참변이 대표적이다.

WMO의 발표가 아니더라도 기후 위기를 늘 체감할 수 있는 시대다. 지난해를 초록색 낙엽이 길에 쌓였고 서울에 사상 처음 '산불 2단계'가 발령되기도 했다. 당장은 폭우 등 재난에 대비하는 일이 급선무다. 이와 함께 원전뿐 아니라 신재생에너지를 확충해 탄소 감축을 실현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탄소배출량이 세계 10위권인 우리나라가 기후 대응 성과는 온실가스 배출 상위 60개국 중 57위(뉴클라이밋연구소)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야 한다.

백종원이 보여준 영리함



김현기의 시사각각 時 視 各 角

#1 "내 걸 내가 스스로 디스(폄하)해야 하네." 최근 본 동영상 중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요리연구가 겸 사업가인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의 이 독백이었다. 그는 홍콩반점0410 프랜차이즈를 운영한다. 2006년 첫 매장을 연 이후 상당수 상권을 장악했다. 매장 수만 300개가 훌쩍 넘는다고 한다. LA·도쿄 등 해외에도 진출했다. 하지만 덩치가 커지면 누수가 생길 수밖에 없는 법. 백 대표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에 몇몇 지점 음식을 '기습 점검'한 결과를 공개했다. A지점의 짜장면을 먹어보곤 "이건 미리 삶아놓은 걸 살짝 데쳤거나 오버 쿠킹(너무 푹 삶음)됐다"고 불만을 털어놓았다. B지점 짜장밥에는 "이 짜장은 색깔은 연한데 짜장이 왜 이렇게 짜지. 소스 아끼려고 간장을 넣었나"라고 의문을 표했다. C지점의 탕수육을 맛보곤 "도대체 뭘 생각으로 이러시는 거야"라고 화냈다. 탕수육 튀김옷이 너무 두꺼워 배달 용기에 붙어 있거나 고기끼리 붙어 떨어지지 않자 "떡 탕수육"이라고 한탄했다. 말 그대로 디스다. 짜장면까지 너무 붙어 먹기 불가능한 수준인 것을 확인하곤 "사장님들 이리시면 안 됩니다. 제가 육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러면 장사가 안 돼요"라고 분노했다. 결국 백 대표는 담당자에게 지시해 C지점의 긴급 점검을 명령했다. 그러곤 시청자들에게 "이런 집들 때문에 잘하는 다른 홍콩반점들이 육먹고 있다"고 했다. 자신의 결점을 공유하는 백 대표의 접근 방식은 신선했다. 자신의 약점이나 결함을 보여주는 건 쉽지 않다. 리더는 더욱 그렇다. 하지만 적절한 방법으로 그걸 스스로 보여줄 때 오히려 상대방은 진정성을 인정하게 된다. 2020년 김종인 전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차기 대선주자'로까지 언급했던 백 대표가 그걸 알고 오히려 고차원 마케팅으로 활용했는지도 모른다. 어찌 됐건 백 대표는 영리했다.

#2 하버드 비즈니스리뷰에서 레슬리 K 존 하버드 경영대학원 교수는 "타인에게 완벽하게 보이는 것보다 진실해 보이는 리더가 더 효과적인 리더십

을 발휘할 수 있다"는 실험 결과를 공개했다. 구글 임원에게 예비 직원들을 대상으로 자신의 약점을 드러낸 연설과 자신을 강하고 정당화하는 연설 양쪽을 들려준 다음 효과를 측정했다. 대다수가 전자에 공감했고, 실제 업적·동질성·협력 의지가 크게 향상됐다. 물론 억지로 또는 들켜서 약점이 공유된 경우는 예외였다.

우리 정치에 이를 대입하면 어떨까. 윤석열 대통령은 검사로서 다양한 수사를 해봤기 때문에 누구보다 폭넓게 잘 안다는 생각이 강하다고 한다. 거슬러 올라가면 이명박 전 대통령도 그랬다. 책임 중 입버릇이 "내가 해봐서 아는데"였다. 경제 문제만 나오면 "내가 기업을 운영해 봐서 아는데"라고 했다. 천안함 사건 직후에는 "내가 배를 만들어 봐서 아는데"라고 했다. 2007년 버시바우 당시 주

스스로 결점 내보이며 진정성 호소 우리 정치인은 "해봐서 아는데..." 설득 아닌 공감의 새 소통방식 필요

한 미국대사에게 "내가 후세인을 만나 봐서 아는데 미국은 이라크를 잘 모르고 있다"고 한 말은 정말 압권이었다. 국정이 탕수육이나 짜장면처럼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 지도자의 권위 또한 무시할 수 없다. 하지만 너무 좋은 것, 강한 것, 잘한 것만 내세우려다 보면 모든 일을 독단적으로 결정하게 되고 국민과의 심리적 거리가 멀어질 위험이 크다. '진짜 전문가'가 아니면 더욱 그렇다. 지난 3일 첫 국정 현안 브리핑을 "동해에 막대한 양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물리탐사 결과가 나왔다" "매장 가치가 삼성전자 시가 총액의 5배 수준"이란 깡깡 발표로 시작한 것을 지켜보며 드는 생각이다. 반가움과 조급함이 이해는 되면서도 여전히 겸손함과 신중함과는 거리가 있음에 마음이 편치 않다. 다음 번 국정 현안 브리핑 때는 백종원식 반성회 성격의 장을 한번 만들어 보는 것은 어떨까. 거창한 설득형 홍보보다 미흡함을 시과하고, 고충도 털어놓고, 그런 뉘가 진정성 있는 모습을 국민은 더 기대하고 있는 것 아닐까.

논설위원

중앙일보

구독신청: 02-751-3600 / 080-023-5001 홈페이지: http://jibfe.joongang.co.kr 광고접수: 02-751-5555 / FAX 02-751-5806 홈페이지: http://ad.joongang.co.kr 기사제보 및 기사관련 물품: 불만 처리센터 02-751-9000 / 080-023-5002 / E-메일: sarangbang@joongang.co.kr 03909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산로 48-6 안내전화 02-751-5114, 9114 본사 인쇄: 제1저리사 THE NEW YORK TIMES, THE WALL STREET JOURNAL, LOS ANGELES TIMES, NEWSWEEK 영국: FINANCIAL TIMES 일본: 時事通信社, 日本経済新聞	시장·발행인: 홍정도 주필: 이하경 편집인: 최훈 신문제작총괄: 고현곤 편집국장: 김중윤 1965년 9월 22일 창간 / 1965년 7월 30일 등록번호: 기00195 본지는 신문윤리규약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저작권 © 중앙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워싱턴 중앙일보

전자신문 보기

주 6일 발행되는 워싱턴 중앙일보 전자신문을 이제 스마트폰으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내 손안에 신문! 언제든 간편하게!

QR코드를 스캔해주세요!

 Bank of Hope 와 함께 하는

43rd 중앙일보 Student Art & Video Contest

학생미술·영상공모전



제43회 학생미술·영상공모전 이렇게 달라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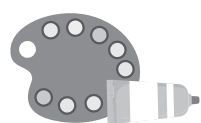
- ✓ 온라인 출품 시스템 (미주 전 지역에서 온라인 출품 가능)
- ✓ 아시안 최대규모 시상 및 장학금 수여 (총 241명 / 총 11,700 불)
- ✓ 미술부문 최대 3 작품까지 출품 가능 (주요상 제외 중복 입상 가능)
- ✓ 영상부문 8학년 이상 (개인, 팀(최대 4인)단위로 참가 가능)

작품 접수

접수기간:
2024년 5월 20일(월) ~ 7월 7일(일)

참가비 안내

\$20 (참가자 전원 기념품 제공)
Bank of Hope 고객 50% 할인 /
10인 이상 단체 10% 할인 (중복 할인 없음)



미술 부문

- 참가대상 프리스쿨 ~ 12학년 (현재 학년)
- 작품주제 자유 주제
- 참가부문 유치부 (Preschool ~ kinder)
초등부 저 (1~2 학년)
초등부 고 (3~5 학년)
중등부 (6~8 학년) 고등부 (9~12 학년)
- 작품규격 제한 없으나 기재 필요
(태블릿 드로잉 허용) (3D 조각, 조형물 제외)



영상 부문

- 참가대상 8 학년 ~ 12 학년 (현재 학년)
- 작품주제 희망 (Hope)
- 참가부문 개인, 팀(최대 4 인) 단위 참가 가능
- 작품규격 영상길이
(1~3 분, 16:9 가로비율)

총 시상
241명

시상금
총 만불 이상

시상내역

상 명	부 문	미술부문		영상부문	
		수상인원	시상금	수상팀(전부문)	시상금
대상	Bank of Hope 상	초등 이하	1명 \$1,000	1팀 \$500	
		중등 이상	1명 \$1,000		
1등	Bank of Hope 행정상	각 부문 (1명)	5명 \$300	2팀	\$300
2등	중앙일보 사장상	각 부문(3명) 중고등부(6명)	21명 \$200	5팀	\$200
3등	해피빌리지상	전 부문	70명 \$20	15팀	\$20
4등	가작	전 부문	100명 상장	20팀	상장

*영상부문 인기상 1팀 \$200



세부 정보 및
온라인 참가 신청
artcontest.koreadaily.com

문의:
213-368-3723 (2577)
(중앙일보 교육연구소)

Sponsored by  Bank of Hope

Hosted by  The JoongAng

LOTTE PLAZA **market**

물가안정
63탄

롯데플라자 마켓 물가잡기 프로젝트

**인플레이션을
이기자** 

BEAT INFLATION WITH LOTTE PLAZA MARKET!

JUN.6th - JUN.13th, 2024

바다 내음, 싱싱 세일



해푸름 청정바다 통영굴

HAEPURUM FROZEN OYSTER (I.Q.F)



Don't miss this chance!

해푸름 청정바다 통영굴
Haepurum Oyster (I.Q.F)

2 EA **FOR 700**
8 OZ

GRAND OPENING
Richmond, VA
7801 W Broad St.
Richmond, VA 23294

Stafford, VA
30 Palmyra Hill Dr. Stafford
VA 20165

Centreville, VA
5900 Centreville Crest Ln.
Centreville, VA 20121

Chantilly, VA
13955 Metroloch Dr.
Chantilly, VA 20181

Annandale, VA
5204 Port Royal Rd.
Springfield, VA 22151

Ashburn, VA
43830 Farmwell Hunt Place
Ashburn, VA 20147

Herndon, VA
4900 Eden Street
Herndon, VA 20170

Elliott City, MD
8801 Baltimore National Pike
Elliott City, MD 21043

Catonville, MD
6600 Baltimore National Pike
Catonville, MD 21228

Rockville, MD
1902 Viers Mill Rd
Rockville, MD 20851

Gaithersburg, MD
221 Muddy Branch Rd.
Gaithersburg, MD 20878

관심 중 오일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부 품목은 시장에 따라 조기 품절 또는 수량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 may contain errors. Quantities and price of sale items are subject to change.

곽태우 변호사
K Law Firm, PLLC
이민 / 부동산 매매 (1031 Exchange)
비즈니스 매매 / 리스
리빙트러스트 / 이혼 / 유언장
T. 571.405.6540

파이낸스 & 연예/문화 Sports
부동산·금융·회계
① 중앙일보 JoongAng Ilbo Thursday, June 6, 2024 C

빙·난방 제대로 설치해야 반영구적!
오래되고 낡은 고장의 기계
더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교체해드립니다.
덕트 클리닝
최신장비로 서비스 전후를
확실히 비교해 드립니다.
www.LBuniversal.com
Office: 703-618-4822
Cell : 703-678-1749

연방파산법이 지정하는 채무구제 기관
법무법인 한미
파산
이혼
상속
임금소
임종범 대표 변호사 (VA/MD)
703-333-2005
301-230-3122
4216 Evergreen Ln., #131, Annandale, VA 22003

김용용 변호사
JOY LAW GROUP
이민법
영주권 (결혼/취업)
시민권
NIW
간호사(RN)
E2, R 비자
703-246-9100
703-309-1455
joylawgroup@gmail.com

Dental Implant \$1,000
(치과 임플란트)
Implant Crown - Extra
(임플란트 크라운은 별도 \$750)
40 years of experience
In every aspects of
Dental Implants, especially
in Full Mouth Cases
다양한 종류의 치과 임플란트
특히 Full Mouth Case
40년 경력
Kie D. Lee, DDS, MD
WashingtonImplantCenter.com
6220 Old Keene Mill Ct.
Springfield, VA 22152
(703)569-8000

간병인의 도움이 필요 하십니까?
CSC Home Care (Hanmi Homehealth)
회사는 1,200여명의 간병사를 교육하여
배출한 정량있는 정직한 회사입니다.
특히, 개인 부담으로 간병사를 구하시는 분은
특별 상담하여 드립니다.
www.Hanmihomehealth.com
6214 Old Keene Mill Ct., Springfield, VA 22152
한미간호학교
Hanmi Nursing School
한미 간호 학교는 미주 지역에서
유일하게 이중언어로 CNA
교육과정을 제공 하고 있습니다.
T. (703)303-4556 / F. (703)303-0988
www.Hanminursingschool.com

모기지 사전 승인받고 컨틴전시 제거 유리

복수오퍼 경쟁에서 이기려면 높은 모기지 이자율로 팬데믹 동안 뜨거웠던 부동산 시장이 한풀 꺾일까 싶었으나 올해도 주택판매 및 가격은 둔화세 없이 그 꾸준함을 이어가고 있다. 전국부동산중개인협회(NAR)에 따르면 기존 주택판매는 올해 1월부터 2월까지 9.5% 증가했다. 2월 수치는 전년대비 3.3% 감소했지만 공급 대비 높은 수요로 집값은 계속 상승세를 타고 있다. 또 부동산 중개업체 레드핀(Redfin)에 따르면 4월 초 전국 평균 판매가는 37만8250달러로 전년대비 4.5% 올랐다. 또 주택 리스팅의 28% 이상이 리스팅 가보다 높게 판매됐다. 이는 적잖은 지역에서 바이어간 매입 경쟁이 있었음을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특히 남가주는 많은 지역에서 매입 경쟁이 치열하기로 유명한데 이처럼 치열한 주택 매입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팁을 알아봤다.



모기지 사전 승인을 비롯해 셀러의 상황에 맞춘 유연한 협상태도를 가져야 주택 매입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 (Unsplash.com 제공)

현금 구입, 에스컬레이션 조항 도움 감정가차액보증도 구입 가능성 높여

▶ 현금 구입
복수 오퍼 상황에서 예비 바이어의 현금 구입 오퍼는 낙점 가능성을 높일 수 밖에 없다. 셀러 입장에서 바이어의 현금 구입은 모기지 대출 승인 여부를 걱정할 필요 없이 즉각적으로 거래를 성사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금 구매를 위해 무리하게 현금을 조달하는 것은 위험하다. 한 부동산 중개인은 “부모가 성인 자녀의 집 구매를 위해 401(k)까지 인출하는 것을 본 적이 있다”며 “그러나 은퇴자금까지 청산해서 집을 구매하는 것은 최선의 방법이 아니므로 자금 조달 시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모기지 사전 승인
예비 바이어가 구매력에 대해 셀러에게 확신을 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모기지 사전 승인을 받는 것이다. 모기지 사전 승인은 주택 대출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것인데 신청자가 소득, 신용 점수, 자산 등의 정보를 대출기관에 제출하면 대출기관은 가능한 융자금액

을 알려준다. 승인서(Pre-approval letter)가 나오기까지는 일반적으로 60~90일정도 걸리는데 이는 대출기관마다 차이가 있다.

▶ 유연한 협상 태도
복수 오퍼 상황에서 오퍼에 응자 컨틴전시나 감정 컨틴전시 같은 컨틴전시 조항(Contingencies)이 포함돼 있으면 불리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복수 오퍼가 있는 인기 매물을 꼭 구입하고 싶다면 컨틴전시를 제거해 에스컬레이션을 완료하겠다는 의지를 셀러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 물론 이는 에이전트와 충분히 의논해 결정해야 이후 낭패를 막을 수 있다.

또 셀러의 상황을 최대한 고려하는 유연한 협상 태도도 중요하다. 예를 들어 셀러마다 클로징 후 즉시 이사를 원하는지, 아니면 이사 준비를 위해 바이어가 조금 늦게 이사를 오길 원하는지 각기 상황이 다를 수 있다. 이때 바이어의 입장만 고수하기보다는 셀러의 상황에 맞춰주는 것이 계약을 성공시킬 가

능성이 크다.

▶ 에스컬레이션 조항
복수 오퍼가 예상된다면 에스컬레이션 조항(Escalation clause)을 넣는 것도 유리하다. 이 조항은 경쟁 오퍼가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할 경우, 일정 한도 내에서는 제시한 오퍼 금액보다 더 지불할 의향이 있음을 명시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100만달러 한도 내에서 다른 경쟁 오퍼보다 1만달러를 더 지급하겠다”는 조건이 이에 해당된다. 이 한도액과 지급액에 대해선 부동산 중개인과 상의해 적정 금액을 찾아야 한다.

▶ 인스펙션
복수 오퍼가 생기면 주택 인스펙션 면제를 셀러에게 제안해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고 싶은 유혹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위험천만한 발상이다. 지금 당장 걸론 문제없어 보여도 나중에 큰 문제가 드러날 수 있기 때문이

다. 대신 요즘 많이 제안하는 합격/불합격 검사(pass-fail inspection)를 진행하는 것이 좋다. 이는 인스펙션을 진행하되 작은 문제 발생 시엔 셀러에게 수리를 요청하지 않겠다는 조건이다. 물론 인스펙션 후 큰 문제가 발견돼 인스펙션을 통과하지 못할 시엔 계약은 성사되지 않는다. 그러나 사소한 문제만 발견되면 인스펙션은 통과된 것으로 간주하고 구입 후 구매자가 수리를 하는 것이다.

▶ 감정가차액보증
셀러 마켓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이 바로 주택 감정가와 매매가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감정가는 90만달러인데 복수 오퍼로 인해 판매 계약이 100만달러에 성사되기도 한다.

이주현 객원기자
▶ 6면 '복수오퍼'로 이어집니다

공인회계사 김서규 CPA
703.914.0085
7535 Little River Tnpk., #310-B Annandale, 22003

김철민 변호사
이민법 / 상법
취업이민, 가족초청, NIW, H1B, F1, E2비자
비즈니스, 계약, 리스, 회사설립, 투자자문
703.973.8700
7700 Little River Tnpk., #303, Annandale, VA 22003

염증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나투라 치과
구강교육치과
dental implants
bright smile
703-652-4265

JJL Contractor Inc.
지붕 고민 / 돈 걱정
이제 그만하세요
Tel. 703.835.0945

승경호 부동산
Realtor **K. Soung**

- ✓ 가치 극대화 및 성공적인 매각 목표
- ✓ 입주전 전체적 통합 서비스 제공
- ✓ 순조로운 임대차 계약 및 갱신 업무
- ✓ 최적의 입지와 컨설팅 제공
- ✓ 최신 부동산 시장 동향 파악 및 분석
- ✓ 맞춤형 주택 매입과 최고의 주택 매각

승경호 추천 매물

버지니아 상가건물 3백10만불, 1.8에이커 Cap Rate 7%, 임대 5개 연순수익 \$218,000	디시 유명 델리 주인 없이 운영 판매가 55만불 정부임주 건물 1층 순수익 = 주인운영 없이 1만불	버블티 가게 1년 70만불 매출, 렌트 6천불 순수익 한달 1만6천 판매가 36만불	Beer & Wine Shop 주2만불 수입, 렌트 \$7200+Cam 2,300SF 몽고메리카운티, 메릴랜드 조건부임대계약, 35만불	식당 자리 4,675 SF, 임대 메릴랜드 락빌
창고 전기시설 완벽한 창고자리 임대 9000 SF 현트, 버지니아	사무실 애난데일, 1200 SF 사무실, 병원적합, 35만불	상가 맥클린, 단독건물 4백5만불, 6,000 SF	Beer & Wine Shop 주1만8천불수입, 렌트 \$7200 2400 SF, 알링턴 버지니아 조건부임대계약, 35만불	식당 자리 5500 SF, 임대 버지니아 페어팩스카운티
	사무실 워싱턴 디시, 교통 좋은곳 사무실 임대하실 회사찾습니다	상가 비엔나, 버지니아 상가매매 연순수익 52만불, 8백만불	콘도 방2개, 화장실2개, 차고1개 있습니다 메트로근처, 웨그맨옆 관리해드립니다 매매가 49만불	식당자리 제과점 건물매매 0.5 에이커, 3500 SF 매매가 5백만불, 버지니아맥클린

**이 자리에 광고받습니다
지금 전화주세요!**

주 택 투자 컨설팅 **주재원 렌딩 서비스** **703.928.5990 승경호**
상가/사무실/아파트/공장/창고 **사업체** **공장/사무실/창고 설립**
k@dwellwashington.com

7925 Jones Branch Dr. #3100
McLean, VA 22102
703.928.5990

Realty One Group은
미 전국에 15000명의 부동산 에이전트가 일하는
미국 부동산 회사입니다

THE SCHNEIDER TEAM
www.dwellwashington.com

내 집 장만
부동산 전문 소사지

무턱대고 사지 마라, 맞춤형 금 투자법



“번영할 때는 옥, 어려울 때는 금.” 중국 속담이다. 실제 최근 심각한 경기 침체를 겪고 있는 중국인 사이에선 이 옛말에 따라 ‘금 모으기’ 열풍이 불고 있다. 지난 5일 뉴욕타임스는 “중국이 내일이 없는 것처럼 금을 사들이고 있다(China is buying Gold like there’s no tomorrow)”고 표현했다.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무력충돌, 미국과 중국의 신경전까지. 세계 곳곳이 일촉즉발인 가운데 안전자산인 금을 사려는 수요는 전 세계적인 현상이다. 각국 중앙은행도 올해 1분기 금을 역대급으로 사들였다. 금은 어떻게 투자하느냐에 따라 수익률이 2배 이상 차이가 난다. 머니랩은 골드바와 골드뱅크, KRX 금시장, 그리고 국내외 금 상장지수펀드(ETF) 등 다양한 금 투자법을 비교했다. 김연주 기자 kim.yeonjoo@joongang.co.kr



위기 때마다 오른 금

자료: Economic Policy Uncertainty, Bloomberg,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그래픽=김호준

15% 올라야 본전인 골드바 ... '2배 수익' 금 따로 있다

세금·수수료 다 뺀 '뽀' 수익률 1등은?

머니랩이 분석한 6가지 금 투자법 중 가장 수익률이 좋았던 건 KRX 금시장을 통한 투자였다. 연초 KRX 금시장을 통해 금을 투자했다면 수수료(0.3%)를 제외하고도 17.85%의 수익을 낼 수 있었다. 골드바(0.81%), 골드뱅크(11.73%), 금 관련 ETF(7.56~17.49%)보다 많게는 2배 이상 높은 수익률이다. 상장지수펀드(ETF) 중에는 'ACE KRX 금현물 ETF'의 수익률이 제일 높았다. 만약 일반계좌에서 투자했다면 연초 이후 15.3%, 연금계좌를 활용했다면 17.49%(연금소득세 3.3% 제외) 수익률을 냈다. 연초 이후 7.5%를 낸 'TIGER 금선물(H)'과 대표적인 미국 금투자 ETF인 'SPDR Gold Shares ETF'(8.76%)보다 수익률이 월등했다.

KRX 금시장과 ACE KRX 금현물 ETF가 수익률이 좋은 데는 '환율 효과'가 컸다. KRX 금현물과 이를 추종하는 ACE ETF는 국제 금시세에 달러당 원화 가치를 반영하기 때문에 사는 시점과 파는 시점의 환율 변동에 따라 환차익이 생길 수도, 환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다. 최근 미국의 금리 인하 시점이 지연될 것인 전망에 달러화는 계속 강세다. 통상 금값은 금리가 높거나 달러가 강세면 약세를 보인다. 하지만 중동 리스크로 인한 안전자산 선호 현상에 달러화와 금값이 동시에 오르는 상황이 벌어졌다. 시중은행에서 판매하는 골드뱅크도 환노출형이다. 하지만 수

수료가 상대적으로 크다 보니 수익률이 낮았다. 반면에 TIGER와 KODEX 골드선물(H)은 환헤지 상품으로, 달러당 원화 가치의 변동이 수익률에 영향을 주지 않는 상품이다. 올해는 환차익을 누리지 못해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부진한 모습이었다.

수익률만? 딱 맞는 투자법 중요

금 투자는 당장의 수익률이 전부 아니다. 어떤 목적으로 금을 투자하느냐에 따라 적합한 투자 방법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세금 부담을 낮추고 수익률을 극대화하려면 한국거래소가 운영하는 KRX 금시장이 가장 유리하다. 거래 수수료가 0.3% 내외로 골드뱅크 수수료보다 낮다. 게다가 금값이 올라 이익이 나도 양도소득세·부가가치세·배당소득세 등 세금이 면제되고 종합소득세에서도 빠진다. 세금 측면에서 가장 유리한 투자법이다. 투자 방법도 주식과 비슷해 쉽다. 실물로도 찾을 수 있지만 이 때는 거래 가격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내야 한다. 여기에 거래 수수료(0.165~0.33%)를 포함해 운송수수료와 출고 수수료(증권사마다 상이)도 붙기 때문에 실물로 찾을 땐 꽤 많은 비용을 내야 한다.

주식처럼 거래되는 금 상장지수펀드(ETF) 역시 최근 인기 있는 방법이다. '금 ETF 투자'는 추가 계좌 개설 없이 주식 계좌에서 매매 가능하다. 점에 가장 편리하다. 다만 골드바 등 실물로

인출할 수는 없다. 연금계좌를 활용하지 않을 시 배당소득세(15.4%)가 발생한다는 것도 KRX 금 투자보다 불리한 점이다. 금 ETF 고를 때는 현물(실제 금 가격을 추종)과 선물(미래 특정 시기에 투자 자산을 약속한 가격에 사고팔기로 한 계약을 거래)을 구분해야 한다.

한국내 금 현물 ETF는 한국투자신탁운용의 'ACE KRX 금 현물' ETF가 유일하다. 현물 ETF의 큰 장점은 퇴직연금 계좌에서 투자할 수 있다는 것이다. 퇴직연금에서 투자할 경우 매매 차익 배당소득세(15.4%)가 부과되지 않고, 향후 퇴직연금으로 수령할 때 낮은 세율(3.3~5.5%)로 세금을 낼 수 있어 유리하다. ACE KRX 금 현물이 추종하는 KRX 금현물 지수는 금 1kg 가격 수익률에서 보관비를 차감한 순수익률을 반영한 지수다. 원화환산지수이므로 달러 환율 성과가 반영된다.

반면에 삼성자산운용[KODEX 골드 선물(H)]과 미래에셋자산운용[TIGER 골드 선물(H)]은 선물이자 환헤지 형식으로 출시했다. 즉 달러 하락 시 환손실 없이 금 성과만 추종한다. 대신 환헤지 수수료가 연간 3~5%가량 발생한다. 해외에도 많은 금 ETF가 상장돼 있다. 대표적으로 'SPDR Gold Shares ETF(티커명 GLD)'다. 세계 최대 규모의 금 ETF로 유동성이 풍부하다는 게 장점이다. 또 해외 ETF인 만큼 자산 상황에 따라 한국내 ETF보다 세금 면에서

유리할 수 있다.

많은 사람이 한 번쯤 집 안 금고에 가득 쌓인 골드바를 상상하곤 한다. 한국금거래소에선 1kg, 500g, 375g, 37.5g 등 다양한 중량의 골드바를 판매한다. 장점은 보유세 및 매매차익에 따른 배당소득세가 비과세란 점이다. 하지만 현물로 금을 사는 건 단점도 많다. 골드바는 살 때와 팔 때의 가격 차이(11~16%)가 커서 수익을 내기 어렵다. 또 구매할 때 10%의 부가가치세와 금 세공비 및 거래수수료(5%) 등을 포함해 15% 안팎의 추가비용도 든다.

사실상 금값이 15% 정도 상승하지 않는 이상 수익을 보기 어려운 구조다.(*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는 '뽀금'이 암암리에 거래되기도 하지만, 이는 불법이다.)

은행의 금 계좌(골드뱅크) 역시 대표적인 금 투자 방법 중 하나다. 최소 0.01g 단위 소액 투자가 가능한 게 장점이다. 무엇보다 자동이체로 적립식 투자가 가능하다. 문제는 골드뱅크에 붙는 수수료가 만만치 않다. 금을 살 때와 팔 때 각각 1% 수수료가 붙는다. 금값이 올라 팔더라도 차익엔 배당소득세(15.4%)가 부과된다. 또 골드바(현물)로 인출할 경우 10% 부가가치세가 붙는다. 일반 예·적금 통장과 달리 5000만원 이하 예금자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

너무 올랐는데, 지금 사도 돼?

집수리비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먼저 저렴하게 수리해 드리고 팔아 드리겠습니다!!

▶ 북버지니아 부동산 협회 탐 프로듀서
▶ 질로우 프리미어 에이전트
▶ Top 15% Nationwide Agent by Homesnap

리스버그 싱글홈

\$1,110,000

방5, 화5, 차고2
5289 Sf
잘 관리한 집

레스틴 콘도

\$426,000

방2, 화2, 1076 Sf
굿 로케이션
넉넉한 주차공간

로턴 타운홈

\$580,000

방3, 화3.5, 차고1, End Unit
Walk Out, 1층 전체 마루
굿 로케이션

"고급가구 Moving Sale 합니다! 관심 있으신분 연락 바랍니다."

“ 여전히 매물이 부족합니다. 동네 최고가로 팔아드리겠습니다. ”

김경아

FAIRFAX REALTY 50/66 LLC 11130 Fairfax Blvd. #105 Fairfax, VA 22030

인연을 소중히 여기는 **김경아 부동산 703-919-0472** jennetpro4u@gmail.com

타이슨스 코너 DC Eye Clinic

전 안 과

23년 over 9300 백내장/녹내장 수술 over 12000 레이저 치료경력

진료과목

- 백내장 레이저 수술 (Cataract Laser Surgery)
- 안구 건조증 치료 (Dry Eyes Therapy)
- 녹내장 레이저 치료&수술 (Glaucoma Laser and Surgery)
- 눈 당뇨병 레이저 & 주사 (Diabetes Laser and Injection)
- 노년기 황반변성 주사치료 (Macular Degeneration Injection Th)
- 안검하수(눈꺼풀 처짐 개선) (Eyelid Surgery (Blepharoplasty))
- 정기적인 눈 검사 (Routine Eye Exam)

구인 리셀서니스트/테크니션 구합니다! 이종연어 이력서: dceyeclinic@yahoo.com

원장/ Benjamin Chun, MD

- Brown University BA Degree
- Brown Dartmouth Medical School MD Degree
- Tripler Army Medical Center Internship
- Madigan Army Medical Center Residency
- Madigan Research Ophthalmology - Participated
- Harvard Cardiovascular Research Program - Participated
- American Board of Ophthalmology Certified
- Voted 2020 Best Eye Dr from Top Doctors Pittsburgh Magazine
- Korean Daily Medical Columnist

Vienna T: 703 853 1966
8381 Old Courthouse Rd Suite #345
Vienna, VA 22182 dc-eyeclinic.com

White Oak T: 412 681 8505
1985 Lincoln Way Suite # 15
White Oak, PA 15131

Shady side T: 412 681 8505
5438 Centre Avenue
Pittsburgh, PA 15232

Southside T: 412 681 8505
144 South 20th Street
Pittsburgh, PA 15232

한국말로 진료 받으세요!!

시시대 귀한 몸 된 구리, 지금 투자 타이밍? “과대평가 주의”

구리ETF 몰리는 뭉치돈

인공지능(AI) 붐으로 구리 수요가 급증할 것이라는 예상에 구리 값이 치솟으면서 최근 구리 실물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한국내 상장지수펀드(ETF)의 괴리율이 10%대까지 높아졌다. 구리 품귀 현상에 구리의 실제 가치보다 10% 정도 비싼 가격에 ETF가 거래된다는 의미라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달 2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한국내 유일의 구리 실물 ETF인 'TIGER 구리실물'은 지난 20일부터 28일까지 7거래일 연속으로 괴리율이 2%를 초과했다. 특히 22일에는 괴리율이 11.4%까지 올랐고, 27일에도 9.74%를 기록하는 등 지난 주 내내 7% 이상 괴리율을 보였다.

괴리율은 ETF가 따르는 기초지수인 순자산가치(NAV)와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 간의 차이를 뜻하는 지표다. 괴리율이 0보다 크면 자산가치보다 가격이 고평가됐다는 의미다. 한국거래소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해외 자산을 담은 ETF의 괴리율이 2%를 넘을 경우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구리 가격은 최근 급등세다. 런던 금속거래소(LME)에 따르면 구리값은 올해 3월까지만 해도 1t당 8000달러 대에 거래됐지만, 지난달부터 급등해 이달 20일에는 사상 최고치인 1만 857달러까지 올랐고, 28일엔 1만 331달러(호가 기준)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TIGER 구리실물 ETF 가격이 3월 1만 원대에서 지난 22일 1만 5025원까지 올랐다.

한국내 구리실물 ETF는 미국의 스탠더드앤amp;포어스(S&P) GSCI 구리 현

금 지수를 기초지수로 한다. 기초지수와 한국내 ETF의 가격 사이 괴리율이 커진 것은 구리 선물 가격의 움직임 때문이다. 미국 증시가 마감되면 기초지수는 고정되는데, 한국내 증시 거래 시간 동안 선물 가격이 반영돼 ETF 가격이 움직이기 때문이다. 이도선 미래에셋자산운용 ETF매니저는 “최근 구리를 구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가격이 고평가됐고, 투기적 매수세가 나타나면서 선물 가격이 뛰어올랐다”며 “다만 구리 값이 다소 떨어지면서 28일 괴리율은 2.4%로 안정화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금 수요와 가격은 앞으로 더 치솟을 것이라 전망이 나온다. S&P 글로벌은 최근 보고서에서 세계 구리 수요가 현재 연간 2500만t에서 2035년엔 5000만t으로 향후 10년 동안 두 배로 커질 것으로 예상했다. AI 열풍으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신재생에너지 확대에도 전력 기기인 구리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는 헤지펀드 매니저 피에르 안두랑과의 인터뷰를 통해 “전기차, 태양광, 풍력 발전, 데이터센터 등 전세계의 전기화로 1t당 구리 가격이 4년 뒤엔 4만 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너무 많이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투자에 주의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황병진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장기적으로 구리 투자는 낙관적이지만, 최근 가격 급등세는 과열로 본다”며 “1t당 9000~1만1000달러 사이에서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고 했다. 이도선 매니저는 “실시간 괴리율을 확인하면서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남은서 기자

미분양 넘쳐나는 제주... 78가구 중 74가구 빈집도

제주특별자치도의 미분양 적체가 심각한 수준이다. 4일 국토교통부의 '주택통계'에 따르면 제주 미분양 주택은 2485가구로 한 달 전보다 14.2% (352가구) 늘었다. 2021년 말(836가구)의 3배 수준이다. 이 가운데 '악성 미분양'으로 꼽히는 준공 후 미분양은 지난 4월 1241가구로 전체 미분양 주택의 44%에 달했다. 특히 전국 준공 후 미분양 주택(1만2968가구)의 10분의 1이 제주도에 나왔다.

서귀포시의 미분양 적체가 특히 심각하다. 2021년 9월 준공한 서귀포시의 O아파트는 120가구 가운데 절반이 넘는 71가구가 여전히 미분양으로 남아있다. 지난해 1월 준공한 H아파트는 78가구 중 74가구가 빈집이다.

제주의 미분양 적체가 유독 심각한 건 부동산 경기 침체의 영향이다. 제주의 경우 분양뿐만 아니라 재고 주택의 거래도 씨가 마른 상황이다. 지난 4월 한 달간 제주에서 주택 매매거래량은 514건으로, 같은 달 기준으로는 2010년 (429건) 이후 14년 만에 가장 낮은 수



치를 기록했다.

외지 유입 인구가 감소한 것도 원인이다. 한때 중국 관광객, 유명 연예인의 제주 살기 유행으로 세컨하우스 수요가 폭등했다. 이에 2016년 제주 순유입 인구는 1만5000명까지 늘었다. 하지만 사드 사태 여파, 코로나19 이후로 인구 유입이 줄어들더니 지난해 14년 만에 처음으로 1678명의 인구 순유출을 기록했다. 외지인 주택 구입 비율도 2021년 31.4%, 2022년 27.1%, 지난해 23.0%로 줄곧 감소 중이다.

고분양가도 발목을 잡고 있다. 지난 4월 기준 제주 아파트 평균 분양 가격은 m²당 750만원으로, 전국에서 서울

(1177만원)과 대구(927만원)에 이어 3번째로 높다. 섬인 제주의 특성상 높은 물류비 등으로 건축비가 상대적으로 비싼 데다 10여년 전부터 투기 열풍이 불면서 제주 땅값이 크게 오른 영향도 있다. 한 분양업계 관계자는 “외지 유입 인구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이들을 타깃으로 해 고분양가 정책을 쓴 탓도 있다”고 설명했다.

제주도에서 분양 중인 한 아파트 시행사는 전체 24가구 중 선착순 5가구에 대해 8000만원(분양가의 20% 수준)을 할인해 주고, 분양 대금 일부를 비트코인 등 가상 화폐로 납부할 수 있다고 홍보하기도 했다. 제주도 역시 주택 인허가 승인 취소, 공공 매입 등 대책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 교수는 “제주 미분양은 인구 규모, 구매력 등에 비해 주택 공급이 과도하게 이뤄진 영향”이라며 “건설·시행사가 할인 분양 등을 통해 미분양 해소 노력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원 기자 사진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아시아사모펀드 시장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전 세계 기관투자자들은 자산의 상당 부분을 다양한 사모펀드에 분산 투자한다. 고위험·고수익을 추구하는 그들은 연기금·보험사·패밀리 오피스·재간접투자펀드(Fund of Funds) 등 기관별 성격이나 운용 자산의 규모 또는 자금의 출처 등에 따라 사모펀드 투자 전략을 수립하고, 그 전략에 적합한 투자처를 찾는다.

코로나19에 따른 팬데믹이 발생하기 이전까지, 적어도 아시아 사모펀드 시장에서 기관투자자의 최우선 투자처는 당연히 중국이었다. 리스크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빠르게 성장하는 거대한 규모의 경제는 사모펀드 시장에 최적의 환경을 제공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팬데믹과 중국 정부의 급격한 정책 변화 그리고 미·중간의 갈등이 본격화되면서 상황은 급변했다.

현재 중국에 투자해왔던 기관투자자들은 기존 투자금에 대한 손실을 감내해야 함은 물론, 투자금의 회수 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다는 공포에 휩싸여 있다. 문제는 매우 특별한 전환점이 생기지 않는 한, 이런 상황이 반복되기는 어려워 보인다는 사실이다. 그로 인해 상당수의 기관투자자는 중국에 대한 투자 자체를 중단한 상태다. 대신 그들은 일본과 인도에 주목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사모펀드 시장이 그다지 활성화되지 않았다. 그러나 낮은 인수금융 이자율, 매도

인들의 가격에 대한 낮은 기대, 주식시장의 호황에 따른 투자 회수 용이성 등으로 인해 현재는 호황을 구가 중이다. 특히 고령화에 따른 기업 승계 문제를 가진 중견기업들을 인수하여 성공적으로 재매각하는 사례들이 늘어나면서 큰 점수를 얻고 있다.

인도의 경우, 중국에 버금가는 경제 성장성, 안정된 정치·경제 시스템 그리고 폭등하는 주식시장 상황이 맞물려 사모펀드에 대한 투자도 역대급으로 성장하고 있다. 최근 사모펀드 운용사 케다라(Kedaara) 캐피탈이 해외 기관투자자들의 자금을 모아 2조원이 넘는 인도 사상 최대 규모의 경영권 인수 사모펀드를 출범시킨 것은 아주 상징적인 사건이다.

반면 한국의 경우 해외 기관투자자들로부터 큰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다. 중국을 제외하고는 아시아에서 가장 빠르게 사모펀드 시장이 성장했지만, 현 시점에서 일본과 인도에 비해서 매력도가 떨어지기 때문이다. 정치·경제 시스템에 대한 우려, 제한된 성공적 투자 회수 사례, 불분명한 장기 산업경쟁력 등이 가장 큰 이유다.

이는 전 세계적인 주식시장의 상승 랠리에서 한국만 소외되고 있는 상황과도 무관하지 않다. 결국 '주식회사 대한민국'이라는 투자처를 해외 기관투자자들이 어떻게 바라보는가의 결과로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이다.

이철민 VIG파트너스 대표

어떤 투자법이 내게 맞는지 골랐다면 남은 문제는 '지금 사도 될까'다. 금 가격이 이미 너무 오른 상황인 만큼 고점이 아닐지 고민될 수밖에 없다.

금이 많이 오른 건 맞지만 아직 역대 '최고 가격'은 아니다. 한국내 원자재 전문가인 최진영 대신증권 연구원은

“금의 ‘실질가격(물가 대비)’을 고려하면 온스(약 28.35g)당 2400달러(약 324만원) 후반이 직전 최고치이기 때문에 더 올라갈 여지가 남아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미 많이 오른 만큼 단기보다는 장기적인 투자처로 추천했다.

외국계 투자은행도 긍정적인 예측

을 하고 있다. 골드만삭스는 지난 2일 발간한 보고서에서 “연말까지 금이 온스당 2700달러까지 오를 거라고 예상한다”며 “지정학적 위기와 미국의 재정과 달러 시스템에 대한 우려로 중앙은행의 금 수요가 탄탄하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연주 기자

단기연금 개런티 이자

/ 개런티 이자
/ 단기 (3년, 5년, 7년)
/ 복리 이자

이제는 원금보장과 함께 은행보다 높은 이자를 받을 때입니다.

원금	3년	5년	7년
\$100,000	4.95% \$115,597	5.30% \$129,461	5.30% \$143,548
\$300,000	4.95% \$346,791	5.30% \$388,385	5.30% \$430,645

*이자율은변경될 수 있습니다. **Virginia 기준

앤디 김

VA Lic# 639047

유니티 보험

상담 예약 및 문의 Tel: 703-200-1412

신성재 변호사

경기 침체로 어려운 시대에 당신이 믿을 수 있는 최고의 변호사.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지킬 것은 지켜 드립니다. 파산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입니다.

지난 10년간 1,000건의 파산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해결한 믿을 수 있는 로펌.

교통사고 / 개인파산

- 교통사고 / 최대보상
- 개인상해 보상청구
- Chapter 7: 개인 파산
- Chapter 13: 개인 파산-Payment Plan
- 비즈니스 관련 민사 소송

교통사고 최대보상! 소송전문 변호사들이 약속 드립니다.

아무리 작은 케이스라도 법원에서 끝장을 보는 근성 있는 변호사들!

같이 일하실 사무장 구합니다.

전화 또는 이력서를 이메일 sjshin.esq@gmail.com 으로 보내주시시오.

DC LAW GROUP

LEGAL COUNSELORS

VA 571.999.2755

4326 Evergreen Ln. #C Annandale, VA 22003

MD 301.775.2774

630 E. Diamond Ave, Suite F Gaithersburg, MD 20877

Regina Domingo Esq. | Chris Shin Esq. | Robert Harris Esq.

Hours: Mon-Fri (10:00 ~ 18:00)

E-mail: sjshin.esq@gmail.com / Fax: 240.775.3004

집주인 “4년치 손해 본 만큼 올려받겠다” 세입자 “1년새 5억 뛰어, 영끌해도 막막”

(서울 흑석동 84㎡, 7억8000만~13억3000만원)

#1 “아파트 전셋값이 1년 사이 5억원 넘게 올랐어요. 오는 10월에 재계약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금액을 맞춰야 할지 막막합니다. 모든 돈과 대출을 ‘영끌’해도 무리입니다.” 서울 동작구 주민 김진화(43·가명)씨는 기자와 대화하는 내내 ‘막막하다’는 표현을 수차례 썼다. 김씨가 전세로 거주하는 흑석동 아크로리버하임 84㎡(이하 전용면적)는 최근 13억3000만원에 전세 계약이 이뤄졌다. 1년 전 7억8000만원보다 정확히 5억5000만원이 올랐다. 김씨는 4년 전 전세 계약 때 7억원대의 전셋값을 냈고, 2년 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서 5%를 추가로 냈다. 김씨는 “아직 임대인과 얘기하지 않았지만 현재 시세와 비슷한 금액을 원할 가능성이 크다”며 “결국(전셋값에 맞게)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토로했다.

#2 경기도 판교에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한 임대인 조모(66)씨는 올 가을 전셋값을 크게 올려 받을 계획을 하고 있다. 4년 전 지금의 세입자에게 집을 내준 조씨는 “코로나19(팬데믹) 등으로 물가가 경총 오른 데다, 전셋값도 많이 올랐는데 4년간 임대차법에 손발이 묶여 사실상 손해를 보고 있지 않았느냐”며 “손해 본 만큼(전셋값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조씨가 보유한 백현동 판교푸르지오그랑블 105㎡의 전셋값은 4년 전 9억4500만원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3억8000만원 오른 13억2500만원 선이다. 인근 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는 “임대차법 시행 4주년을 앞두고 전셋값에 대한 임대인과 임차인 문의가 폭주하고 있다”며 “임대인들이 한꺼번에 3억, 4억원씩 올린다고 하니 당혹감을 보이는 임차인이 적잖다”고 전했다.

2020년 7월 26일,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해 주택임대차기간을 2년 연장하고 전셋값 상승률을 4년간 5%로 제한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임대차법)이 시행됐다. 다음 달이면 4주년을 앞두고, 임대차시장은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두고 재계약을 고민 중인 세입자들의 공포와 혼란으로 어수선한 분위기다. 새 임대차법 시행 당시 급등했던 전셋값이 2021년 고점을 찍고 하락세를 보였지만, 지난해부터 전셋값이 다시 눈에 띄게 반등하면서 웬만해선 금액을 맞추기 힘든 상황까지

주간 전셋값도 54주째 상승 행진 수원·대전·부산도 1억~3억씩 급등

다다라서다. 지난 정부가 세입자 보호를 명분으로 마련한 2+2년 임대차법의 주택시장 불안정 유발 부메랑이 4년을 돌고 돌아 여전히 세입자들을 옥죄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기에 전세 물량까지 급감하면서 혼란이 커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의 주간 전셋값은 지난해 5월 넷째 주부터 지난달 넷째 주까지 54주째 상승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이는 부동산원이 관련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12년 이후 세 번째로 긴 상승 기간이다. 2017~18년의 54주 상승 기록과 공동 3위(최장 기록은 2014~17년의 135주)다. 올해 1월 첫째 주 0.07%였던 주간 상승률이 지난달 셋째 주와 넷째 주 0.1%까지 치솟은 것도 주목할 만하다. 올 들어 가장 높은 주간 상승률이다. 임대차법 시행 4주년이 가까울수록 시장도 한층 들쭉이고 있다는 의미다. KB부동산 등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지난달 27일 기준 6억58만원(원)보다 14.8% 올랐다.

전셋값이 수억원 오른 단지도 속출하고 있다. 서울 성동구 행당동 서울숲리버뷰자이 128㎡ 전셋값은 올해 4월 15억5000만원을 찍었다. 2월만 해도 10억원이었다. 불과 두 달 사이 5억5000만원이 오른 것이다. 4년 전과 비교해도 대표적 부촌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나, 서울 집값의 마지노선으로 인식되는 이른바 ‘노도강(노원·도봉·강북)’ 등 지역을 가리지 않고 전셋값이 급등했다. 강남구 대치동 대치아이파크 84㎡ 전셋값은 최근 15억원으로 4년 전(12억6500만원) 대비 2억3500만원 올랐다. 도봉구 장동 동아정슬 84㎡는 현재 5억원으로 4년 전(1억9000만)보다 3억1000만원 올랐다.

내년 전국 신규 입주 물량 최저 전망
송파구 잠실동 리센츠 84㎡(10억원→12억원), 강북구 미아동 래미안트리베라1차 84㎡(3억5000만원→5억3000만원) 등도 4년간 전셋값이 가파르게 올랐다. 서울뿐만이 아니다. 수도권과 지방 주요 도시도 경기 수원시 영통동 영동e편한세상 84㎡(3억원→4억

원), 대전 유성구 도룡동 스마트시티2단지 134㎡(6억5000만원→9억8000만원), 부산 해운대구 우동 해운대아이파크 111㎡(4억2500만→6억7000만) 등으로 비슷한 상황이다. 부산의 한 아파트에 사는 세입자 이우정(40)씨는 “전세살이 안 해본 지인들이 눈높이를 낮추라면서 내 예산과 시장 상황에 맞게 평수를 낮춰 집을 옮기라는 말을 한다”며 “하지만 자녀 학교 문제도 있고 직장도 마음대로 옮길 수 없는데 그게 말처럼 쉬운가”라고 반문했다.

최근 전셋값이 상승하는 가장 큰 요인은 2+2년의 임대차계약이 처음 만료되면서 임대인이 지난 4년간 오른 전셋값을 한꺼번에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세입자가 계약 갱신청구권을 사용해 2년을 추가로 살았기 때문에 임대인은 현재 세입자와 재계약을 하든,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을 하든 시세만큼 전셋값을 올릴 수 있다. 전셋값 자체도 많이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졌다. 코로나19 팬데믹 직후 고금리로 주택시장이 침체하면서 주택 매매 수요가 전세로 늘려왔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달 셋째 주 서울의 전세수급지수는 101.4포인트로 3주 연속 100을 넘겼다. 100보다 높으면 전세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다는 뜻인데, 100을 돌파한 것은 2021년 11월 넷째 주(100.5) 이후 2년 5개월 만이었다.

실제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지난해 27일 기준 2만8482건으로, 1년 전인 지난해 5월(3만7801건)보다 24.7% 감소했다. 경기도 동탄신도시의 한 공인중개사는 “집값 폭등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뒤로 미룬 세입자 수요는 꾸준한 반면, 전세 물량은 적어 전셋값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세 수요가 꾸준히 매대로 돌아서야 전세시장이 안정될 수 있는데, 이런 구조



www.GIANTREALTY.com

자이언트 부동산

부동산 전문지식
협상능력
리스팅 전문 서비스

결과가 다릅니다!

자이언트 부동산 사장 **수잔 오**
Licensed in VA • MD • DC
703.975.4989
susanoh@giantrealty.com
office. 703.641.4989

VA FAIRFAX HQ
Office 703.641.4989 Fax 703.641.0033
2751 Prosperity Ave., #580, Fairfax, VA 22031

MD ELLICOTT CITY
Office 410.750.8040 Fax 410.750.3992
3277 Pine Orchard Ln., Suite 2, Ellicott City, MD 21042

약척같은 부동산
비키리

6월 **HOT** 리스팅

집 팔기 딱 좋은 계절이 왔습니다.

믿을 만한 부동산을 찾으십니까?

최소한의 비용으로 집을 수리하시고 싶으신가요?

집값은 최고로 받고, 빨리 팔고 싶으신가요?

비키리 부동산에 지금 당장 전화!! Tel: 703-231-5572

주택 매매 / SA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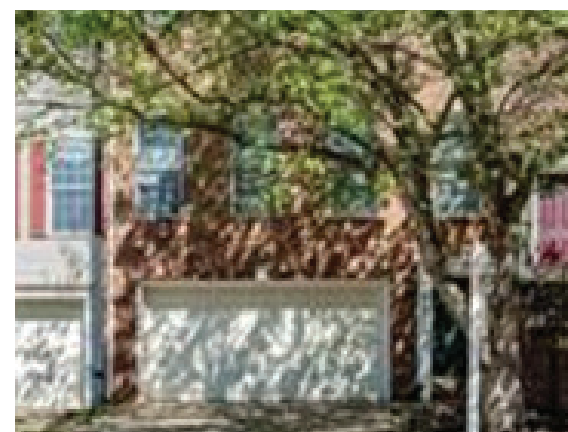
**센터빌
타운홈**
방3+화2/2+차고2
2004년집,
넓고 환한 엔드유닛
\$650,000

주택 매매 / SALE



**센터빌
타운홈**
방3+화2+차고2
H마트 부근
\$560,000

주택 매매 / SALE



**센터빌
타운홈**
방3+화3.5
2,184sqft,
2000년
\$730,000

주택 매매 / SALE



**센터빌
콘도 (타운홈타입 3층짜리)**
방2+화2+차고1
1,270sqft, 2002년
콘도비 \$463
\$430,000

힘든 세입자나, 밀린 렌트비로 고민중이시면 연락주세요.

부동산 매매, 임대주택 리스팅, 임대주택 관리

약척같은 부동산

비키리 부동산

전화 문자 **703-231-5572**

15년 연속 북버지니아협회 선정
다이아몬드 클럽 탑에이전트

브로커 비키리

NVAR Lifetime Top Producer
VA · MD · DC 브로커 면허소지

vikkilee@AmplusRealtyllc.com
www.AmplusRealtyllc.com



앰플러스 부동산 / 탑 프라퍼티 임대관리회사

DC, 메릴랜드 / 301-399-0140 | 버지니아 / 703-863-0321

용자 칼럼

FHA VS CONVENTIONAL

낮은 다운페이먼트로 주택용자를 신청하는 많은 이들이 FHA 정부용자가 더 유리한지 아니면 conventional 일반용자가 더 유리한지 최근 문의를 하곤하는데 오늘 지면을 빌어 간략히 정리해 드리고자 한다.

딱히 둘중에 어느것이 더 좋은 프로그램이냐고 묻는다면 나의 답은 일단 conventional 일반용자가 정답이라고 말씀 드리고 싶다. 물론 예외도 있지만 말이다.

사실 최소 요구 다운페이먼트가 3.5%인 FHA 정부용자는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Conventional 일반용자에 비해 이자율이 상대적으로 낮고, 크레딧에 차등적으로 이자율이 적용되는 일반용자와는 달리 어느정도 나쁜 크레딧임에도 (보통 640점 이상이면 차등없이 같은 이자율을 받을 수 있다) 이자율과 또 모기지 보험료의 차등을 받지 않는다는 점 (FHA 용자는 크레딧과 상관없이 똑같은 모기지 보험료를 적용받는다), 그리고 허용되는 소득대비 채비율이 높기 때문에

일반용자에 비해 같은 소득에서 더 많은 금액의 주택용자가 가능한점 등이 장점이다.

뿐만 아니라, 과거의 나쁜 기록들 (예를들면 차압, 파산, 솟세일등등) 갖고 있는 이들이 다시금 재기의 기회를 주택용자에서 얻을 수 있는 유예기간이 conventional 일반용자에 비해 짧다. 즉, 낮은 크레딧 점수에도, 또 멀지 않은 과거의 나쁜 기록에도 불구하고 주택용자가 가능해졌기 가장 큰 장점이라 할 수 있겠다. 그렇다고 좋은점만 있는것은 아니다. FHA 정부용자의 단점이라면 무엇보다도 비용이 많이 든다는 점과 그리고 한번 들면 쉽게 없앨 수 없는 모기지 보험이다.

일반용자와는 달리 FHA 정부용자에는 기본적으로 용자금액의 1.75%가 보증수수료로 발생한다.

대다수의 낮은 다운페이먼트 옵션으로 주택용자를 얻는이들에게 사실상 전체 용자금액의 1.75% 라는것은 상당히 큰 부분이다.

통상 3.5% 다운을 하고 용자를 얻는



배준원
그린웨이 펀딩그룹 부사장



이의 입장에서보면 다운하는돈의 절반정도를 추가로 보증수수료로 지불해야하는 부담이 생긴다. 물론 이러한 보증수수료를 용자금액에 올려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클로징 시에 직접 가지고 와야하는 돈이 그만큼 늘어나는것은 아니지만 보증수수료만큼 늘어난 대출금을 결국 내가 갚아야할 비용이 되므로 당장의 부담으로 작용하지는 않지만 결국 비용이 늘어난다는점은 꼭 명심하시길 당부드린다.

FHA 정부용자의 또 다른 단점은 바로 재용자를 하지않고서는 쉽게 없앨 수 없는 모기지 보험이다.

이에 반해 일반용자는 크레딧과 다운페이먼트에 따라 여러가지 차등이 있는타라 특히 크레딧 점수가 높고 소득이 충분히 안정적일 경우 월등히 장점이 많다.

최소로 요구되는 다운페이먼트가 3% 부터인 conventional 일반용자는 무엇보다 비용적인측면에서 많은 장점을 갖고 있다.

낮은 다운페이먼트임에도 FHA 정

부용자처럼 어떤 보증수수료가 없다. 물론 크레딧과 다운에 따라 차등이 있긴 하지만 모기지 보험요율도 크레딧이 우수한 고객의 경우 FHA 정부용자에 비해 낮을뿐 아니라 FHA 정부용자와는 달리 재용자 하지 않고도 언제든지 모기지 보험료를 없앨수있는 옵션을 갖고 있다는 점, 또한 크레딧이 높은 경우 모기지 보험을 은행이 대신 내주는 LPMI (Lender Paid Mortgage Insurance) 옵션이 가능하다는 점이 conventional 일반용자의 장점이다.

정리를 하자면 낮은 크레딧 그리고 조금은 부족한듯한 소득에서 FHA 정부용자가 유리한경우도 있겠지만 통상 크레딧이 우수한 경우 낮은 다운페이먼트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낮은 APR의 저렴한 비용이 장점인 conventional 용자가 FHA 정부용자 보다는 올바른 선택이라는 점을 알고 스스로에게 가장 알맞는 프로그램을 잘 선택할수 있는 지혜로운 여러분들 되길 바란다.

>문의: 703-868-7147

부동산세 효율적 관리

현재 부동산 시장의 혼란 속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고가의 주택을 판매해 이익을 본다. 하지만 판매 이익이 담합하더라도 세금을 마주하면 쓸쓸해 질 수 있다. 두 가지 강력한 전략인 양도소득세 주택 면제와 1031 교환을 이해하고 합법적으로 세금 부담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먼저 양도소득세주택 면제부터 살펴보자. 주거용 부동산을 판매할 때 2년 이상 거주했다면 이익의 일정부분을 면세 받을 수 있는 혜택이다. 싱글의 경우 최대 25만 달러, 결혼한 경우에는 최대 50만 달러까지 면세가 가능하다. 이 혜택은 2년에 한번만 가능하지만, 상당한 세금 절감을 기대할 수 있다.

다음은 1031 교환이다. 투자용 부동산을 팔고 그 이익을 새로운 투자용 부동산에 재투자할 때 세금 지불을 유예 해주는 것이다. 그러나 판매 후 45일 안에 새로운 투자를 찾아 정해야 하고, 180일 안에 구매를 완료해야 한다. 이 규칙은 변화하는 부동산 시장에서 빠르게 행동하는 투자자에게 유리하다.

이러한 절세 전략을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사항들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우선, 양도소득세 주택 면제를 위해서는 실제로 해당 주택에서 거주 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며, 해당 기간 동안 다른 주택에 대한 유사한 면세 혜택을 받지 않았어야 한다.

1031 교환에 있어서는 새로운 부동산이 '같은 종류' 또는 '같은 등급'의 교환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주거용 부동산을 팔고 상업용 부동산을 사는 것도 허용된다. 다만 1031 교환을 통해 연기된 세금은 영원히 면제되는 것이 아닌 해당 부동산을 최종적으로 판매할 때 세금으로 납부해야 하므로 장기적인 재정 계획의 일부로 고려해야 한다.

물론 이 두 전략을 조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예를 들어 투자용 부동산으로 이동하면서 1031 교환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종종 세금 부담 없이 재산을 이전할 수 있다.

하지만 전략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각자의 세금 상황과 부동산의 상세한 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다. 게다가 세법은 자주 변한다.

복잡하고 미묘한 재정 상황을 혼자 넘어서기 보단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세무 전문가, 부동산 컨설턴트, 변호사까지 포함한 현명한 부동산 판매 전략은 성공적인 재정 관리의 핵심이다. 세금을 줄이는 것은 투자의 한 방법이므로, 이를 어떻게 실행할지 계속해서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이 중요하다.

양도소득세 주택 면제와 1031 교환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이익을 가져다 주었다. 이번 기회에 이 방법들을 잘 활용해보시기를 바란다.

제니 박·콜드웰뱅크 베스트부동산

▶ 1번 '복수오피'에서 이어집니다

이때 대출기관은 감정가에 대해서만 대출을 해준데 만약 바이어가 감정가 차액보증 (Appraisal Gap Guarantee) 조항을 제시했다면 10만달러는 바이어가 셀러에게 현금으로 지불하게 돼 셀러는 안전하게 계약을 마칠 수 있다. 이 조항은 셀러에게 판매가보다 감정가가 낮아도 계약이 무산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줄 수 있어 오피가 많은 인기 매물에서는 유리하게 작용한다.

▶ 4번 '임대차법'에서 이어집니다

올해 2만3786가구로 지난해(3만2759가구)보다 27% 줄어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엔 2만3000가구, 2026년엔 3200가구로 더 줄어든다. 제한된 땅덩이에서 아파트 신규 공급의 최대 해법인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공사비 급등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어서다. 주거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전국 도시정비사업 평균 공사비는 2020년 3.3㎡당 480만3000원으로 지난해 687만5000원으로 급등했다. 3년 사이 43% 오른 것이다. 팬데믹 이후 폭등한 원자재값과 인건비가 공사비 급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공사비 부담이 급증하면 조합원들의 분담금이 급증하는 등 채산성이 낮아져 재건축·재개발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학과 겸임교수는 "전세 물건은 기본적으로 주택 공급이 꾸준히 이뤄져

▶ 클로징 비용 부담

셀러에게 타이틀 비용 및 커미션 등 셀러의 클로징 비용을 지불하겠다고 제안하는 것도 입찰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방법. 대략 집값의 2~5%를 차지하는 적잖은 이 클로징 비용을 바이어가 지불하겠다는 것은 셀러에게는 꽤 매력적인 제안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모든 조항들은 부동산 중개인과 충분히 상의한 뒤 자신의 재정적 상황에 맞춰 제시해야 이후 경제적 손실이나 낭패를 막을 수 있다.

야 늘어나는 건데 공사비 급등, 주택시장 침체 등으로 수년간 그게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진단했다.

전국 평균 공사비 3년새 43% 폭등 문제는 전셋값 상승세가 더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2021년 고점을 기준으로 봤을 때 전셋값 상승 여력이 여전히 많이 남아 보인다"며 "2026년까지 주택 공급량이 부족한 것까지 고려하면 2~3년간 전셋값 상승이 이어질 공산이 크다"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전세 시장 안정화 대책 강화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한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팀장은 "임대주택 공급 확대로 전세 수요를 분산시키는 등 정부가 아파트 전세 수급 불균형 완화에 초점을 맞춘 대책을 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리얼티 원 부동산

3450 Ellicott Center Dr. Suite 107, Ellicott City, MD 21043 / O: 410-696-2268 / F: 866-531-7541

MONTGOMERY, HOWARD, ANNE ARUNDEL
PRINCE GEORGE 카운티 전문

집을 예쁘게 꾸미는 것은 주택매매에 결정적인 도움이 됩니다.

Realtor
지니 최
301-318-4242
Jinny19619@yahoo.com

추천 주택 리스트 집매매, 렌트 놓으실때 (자체 인테리어 소품 구비) **"집을 예쁘게 단장 해 드립니다"**

SOLD Bowie \$645,000 싱글홈, 방4, 화4, 차고2	UNDER CONTRACT Edgewater \$575,000 싱글홈, 방3, 화2, 0.45에이커	UNDER CONTRACT Rockville \$280,000 콘도	UNDER CONTRACT Elkridge \$899,000 싱글홈, 방5, 화3.5, 차고2	UNDER CONTRACT Odenton \$365,000 타운홈, 방3, 화2
SOLD Cooksville \$1.3Million 싱글홈, 방6, 화4.5, 차고3 Finished Basement	UNDER CONTRACT Ellicott City 55+ Luxury \$425,000 콘도, 방2, 화2, 1,438sf	UNDER CONTRACT Ellicott City \$475,000 타운홈, 방2, 화2.5, 차고1	UNDER CONTRACT Rockville \$520,000 싱글홈, 방4, 화2	SOLD Cockeysville \$470,000 싱글홈, 방4, 화2.5

《《《 렌트 매니지먼트 해 드립니다. 》》》

정직, 신용, 친절로 도와드리겠습니다

Realtor
스테이시 양
443-668-0453
stacy4989@gmail.com

RENT

집 렌트하기 원하시는 분들!!!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RENTED Elkridge 월 \$2,400 타운홈 방3, 화3	RENTED Hanover 월 \$3,100 타운홈 방3, 화2.2, 차고2, 전채마루	RENTED Germantown 월 \$2,400 타운홈 방3, 화4	RENTED Glen Burnie 월 \$1,750 타운홈 방2, 화1	COMING SOON Hanover 월 \$3,000 타운홈 방3, 화3, 차고2	RENTED Odenton 월 \$2,500 타운홈 방3, 화3, 차고
---	---	---	--	--	--

고객님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World Bankcard Service가 새로운 혁신과 서비스로 찾아왔습니다.



1 새로운 크레딧 카드 기계:
결제 중 끊김과 오랜 결제 시간 등의 불편을 해소합니다.
신속하고 원활한 결제를 보장합니다.

2 새로운 POS 시스템:
효율적이고 신속한 POS 시스템을 도입하여
여러분의 사업을 한 단계 높여드립니다.
간편한 운영으로 비즈니스 성과를 더욱 향상시킵니다.

3 더 낮은 카드 수수료:
부담스러운 고물가 시대!
사장님들을 위해 더 낮은 카드 수수료를 제공합니다.
여러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World Bankcard Service와 함께라면 더욱 원활하고 효율적인 비즈니스 운영이 가능합니다.
저희와 함께 성공을 이루어가십시오. 더 많은 정보 및 문의는 아래 연락처로 문의 바랍니다.



함께하는 비즈니스의 파트너가 되어드립니다.
함께 성장해나가는 여정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TEL. 703-225-5500, 1-800-927-5675 | FAX 703-225-5507
10855 FAIRFAX BLVD 3rd FL., FAIRFAX, VA 22030
World Bankcard Service

‘박세리 맨발 투혼’ 26년만에... 한국, 톱10 ‘0명’ 골욕

(US오픈)

일본의 사소 유카가 3일(한국시간)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 인근 랭카스터 골프장에서 끝난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메이저 대회인 US여자오픈에서 함께 4언더파 276타로 우승했다. 아버지가 일본인, 어머니가 필리핀 출신인 사소는 2021년 필리핀 국적으로, 이번엔 일본 국적으로 우승했다.

톱 10에 든 한국 선수는 한 명도 없었다. 일본은 챔피언 사소와 2위 시부노 히나코(합계 1언더파)를 비롯해 5명이 10위권 이내에 입상했다. 이어 태국은 3명, 미국은 2명, 호주는 1명이 톱10에 들었다.

US여자오픈은 미국의 내셔널 타이틀 대회지만, 한국 프로골퍼에게도 상징적인 대회다. 1998년 경제위기 시절 박세리가 맨발의 투혼을 발휘한 끝에 우승해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그래서인지 한국 선수들은 전통적으로 이 대회에 강했다.

박세리 이후 지난해까지 26차례 대회에서 김주연(2005년)·박인비(2008·13년)·지은희(2009년)·유소연(2011년)·최나연(2012년)·전인지(2015년)·박성현(2017년)·이정은(2019년)·김아람(2020년) 등 한국 선수가 10차례나 우승했다. US여자오픈 톱 10에 한국

HOLE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PAR
YUKA SASO	4	4	4	4	4	3	5	3	4	4	4	3	5	4	4	4	3	4	4
HIRAKO SHIBUNO	5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ALLY EWING	5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ANDREA LEE	5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ARSPICHAYA YUBOL	E	E	E	E	E	E	E	E	E	E	E	E	E	E	E	E	E	E	E
AYAKA FURUI	5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ATTHAYA THITIKUL	5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WICHANEE MEECHAI	5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RHO TAKEDA	5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US여자오픈은 한국 선수들이 강세를 보였던 대회다. 올해는 27년 만에 처음으로 톱10에 한 명도 들지 못했다. 함께 4언더파로 우승을 차지한 일본의 사소 유카. 박세리는 1998년 US오픈에서 ‘맨발의 투혼’으로 우승해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작은사진).



선수가 한 명도 이름을 올리지 못한 건 1997년 이후 27년 만에 처음이다.

1998년부터 2023년까지 26개 대회에서 US여자오픈 톱 10에 든 한국 선수는 평균 3.3명이었다. 전성기를 달리던 2006년부터 2017년까지 12개 대회에서는 절반에 가까운 4.8명이 톱10에 들었다. 2017년엔 8명이 톱 10에 입상했다. 당시 한국을 방문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국회 연설에서 이

야기를 꺼내기도 했다. 그런데 7년 만에 US여자오픈 톱 10에 입상한 한국 선수가 0명으로 줄었다. 2022년과 23년에는 3명, 2021년에는 2명이었다.

일본 투어는 1980년대 엔화 강세를 발판으로 세계 최고 상금을 자랑하는 여성 골프투어로 성장했다. 선수들은 안락한 일본 투어에 안주했고, 일본 여자골프협회는 선수들의 해외 진출을 장려하지 않았다. 고립된 상태에서 잃어버린 30년을 겪으면서 쇠락의 길을 걸었다. 그런데 이번 대회 톱10에 5명이나 이름을 올리면서 부활을 알렸다.

일본은 축구·야구가 그랬던 것처럼 여자 골프도 선진국형으로 발전하고 있다. 우물 안 개구리를 넘어 세계 최고가 되려는 선수들이 꾸준히 등장하고 있다. LPGA에 진출한 프로골퍼 하타오카 나사가 대표적이다. 그의 이름 ‘나사’는 미 항공우주국(NASA)처럼 다른 사람이 가지 않은 길을 가겠다는 뜻이다.

일본여자프로골프협회(JLPGA)는 최근 선수들의 해외 진출을 장려하고 있다. JLPGA 소속 선수가 LPGA 투어 메이저 대회에 나가면 대상 포인트를 일본 일반 대회(3라운드 대회)의 4배를 준다. 이에 따라 선수들의 해외 진출이 크게 늘었다. 태국 여자골프의

성장세도 눈부시다. 에리아 쭈타누간이 세계랭킹 1위에 오른 뒤 선수들 사이에 하면 된다는 자신감이 붙었다. 많은 상금(US여자오픈 우승 상금 33억 원)도 선수들을 끌어당긴다.

쭈타누간 자매, 패티 타바타나킷, 아티야 티피꾼 등이 LPGA 투어의 주력 선수로 자리 잡았는데 이외에도 많은 ‘태국의 박세리’들이 도전장을 내밀었다. 이번 대회엔 지역예선을 통해 참가한 태국의 무명 선수 2명이 우승 경쟁을 벌였다.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곳곳이 버티는 31세의 위차니 미차이와 태국 투어에서 성장한 22세의 아프리카차야 유불이다.

한국 여자골프는 쇠락기의 전형적인 특징을 보여준다. 선수들이 해외 진출보다는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투어에 안주하려는 기색이 역력하다. KLPGA는 임원들의 자리 싸움으로 시끄럽다. 투어가 사회 분위기에 영향을 받는 듯하다. 실력보다는 외모가 뛰어난 선수들이 앞다퉈 광고 모델로 데뷔한다. 스타 선수의 팬클럽은 대회 때마다 치열한 세 대결도 불사한다. 정치권을 빼담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유상건 상명대 스포츠 ICT 융합학과 교수는 “맨발의 투혼 시대가 막을 내리면서 한국 여자골프는 일본과

김선욱·조성진 ‘피아노 듀오’까지...강원 산골서 첫 협연

지난 2일 저녁 강원도 평창군 계촌리의 야외 무대 ‘계촌 로망스 파크’. 오케스트라와 피아노의 1부 공연이 끝나고 앙코르 무대가 준비될 때 객석이 술렁였다. 무대의 피아노에 악보를 놓는 보편대, 또 피아노 의자가 하나 더 들어섰기 때문이다.

이어 피아니스트 겸 지휘자인 김선욱(36)과 피아니스트 조성진(30)이 함께 무대에 올랐다. 피아노 한 대에 나란히 앉은 이들이 연주한 곡은 브람스의 헝가리 무곡 5번. 청중 7000명의 환호를 부른 깜짝 앙코르였다. 이들은 공연 응모자 1만7000명 중 추첨이 된 청중이다. 좋은 자리에 앉기 위해 하루 전부터 와서 기다렸던 이도 많았다.

스타 음악가인 김선욱과 조성진의 공동 공연은 이날이 처음이었다. 김선욱이 경기필하모닉 오케스트라를 지휘했고 조성진이 이들과 함께 쇼스타

코비치의 협주곡 1번을 연주했다. 실내 클래식 공연장의 3배 이상인 크기의 야외 공연장만큼 이들의 음악적 해석은 더 분명했다. 조성진은 ‘진지한’ 공연장에서보다 한층 밝고 과감한 색채로 음악을 표현했다. 그 자신이 좋은 피아니스트인 김선욱은 그 세계를 존중하며 오케스트라를 이끌었다. 이 곡이 끝난 후 한 대의 피아노로 함께 연주한 앙코르는 야외 공연의 축제 분위기에 맞는 선곡이었다. 김선욱과 경기필하모닉은 이어진 2부에서 브람스의 교향곡 2번을 연주했다.

두 피아니스트는 일찍이 국제 콩쿠르에서 우승하고 이름을 알렸다. 김선욱은 18세에 리즈 국제 콩쿠르에서, 조성진은 21세에 쇼팽 국제 콩쿠르에서 우승하며 스타덤에 올랐다. 하지만 같은 무대에 설 기회는 없었다. 이날 공연은 이들이 지휘자와 피아니스트로,



2일 강원도 계촌에서 클래식 축제에 함께 출연한 김선욱(왼쪽)과 조성진. [사진 현대차정몽구재단]

또 같은 피아니스트로 함께 한 독특한 무대였다.

김선욱과 조성진의 공연은 현대차 정몽구 재단이 주최한 계촌 클래식 축제의 마지막 무대였다. 지난달 31일 시작해 피아니스트 백건우·이진상, 베이

스 바리톤인 사무엘 윤, 지휘자 정치용과 한국예술종합학교 오케스트라 등이 축제에 출연했고, 지역 주민을 포함해 총 1만4000명이 관람했다. 축제는 두 개의 야외 공연장과 비닐 하우스, 거리에서 열렸다.

화려한 출연진이 다녀간 계촌은 인구 1700명의 작은 마을이다. 축제의 발단은 2009년 계촌 초등학교의 폐교 위기였다. 바이올리니스트였던 권오이 당시 교장이 전교생이 참여하는 오케스트라를 창단하며 학교를 살렸다. 이 소식을 들은 현대차 정몽구 재단은 2015년부터 오케스트라 교육을 지원하고 문화 사업을 운영하며 축제를 시작했다. 한국예술종합학교도 콘서트 지원과 교육 사업에 힘을 보태고 있다. 축제는 그렇게 올해로 10회를 맞았다.

김선욱과 조성진의 첫 협연을 성사시킨 계촌에는 가로등의 스피커에서 늘 음악이 흘러나오고 ‘클래식을 듣고 자란 농작물’이라는 홍보 문구로 특산품이 판매된다. 현대차 정몽구 재단 측은 “사업 초기에는 인프라가 없는 외딴 마을이었지만 지금은 공원·공연장·조형물 등이 들어서며 지역과 함께 만드는 예술 마을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고 전했다. 김호정 기자

인터넷 마케팅은 **인텔리시스템**에서

구글지도 광고로 경쟁사를 앞지르세요

가장 잘 보이는 TOP3 업체 위에 사장님 사업체를 뜨게 해 드립니다!!

고객이 많이 찾는 구글 로컬 검색때..

새고객, 매출 증가가 잘 안되시나요?
내 사업 불경기 탈출,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지금 전화주세요!
703-337-0123
www.intellicsystems.com

인텔리시스템의 3가지 장점

1. 저렴한 비용
2. 편리한 플서비스
3. 믿을 수 있는 회사 (2002년 부터 지금까지)

웹사이트 제작, 구글광고 & SEO, 고객 리뷰관리, 소셜미디어 광고, 문자 마케팅, 온라인 쇼핑물, 이메일 마케팅, 아마존 스토어 마케팅, 구글 스마트 쇼핑, 기타



Jim & Roger's 본바닥 영어

해설:스티브 박(CIU교수)

California International University
www.ciula.edu (213)381-3710

head up to (head down to); ~을 향해 나아가다

Jerry and his wife Laurie are talking.
(제리와 아내 로리가 얘기하고 있다.)

Jerry: I really need this long weekend. I'm burned out.
제리: 난 이번 주말처럼 긴 연휴가 꼭 필요했어. 녹초가 됐거든.
Laurie: I know what you mean. The last two weeks have been brutal.
로리: 그 심정 알아. 지난 2주간 참 혹독했어.
Jerry: I just have a few odds and ends to take care of before we head up to the mountains.
제리: 이제 산에 가기 전에 몇 가지 잡무만 처리하

면 돼.
Laurie: It will be nice to get out of the city for a while.
로리: 잠시 도시를 벗어나면 좋을 거야.
Jerry: Absolutely! The mountains are my favorite place to unwind and take my mind off all the daily hassles.
제리: 그렇다 마다! 긴장을 풀고 골치 아픈 모든 일상을 잊는 데 산행만한 게 없잖나.
Laurie: I really want to hike.
로리: 하이킹 진짜 하고 싶다.

Jerry: Sounds good. I want to do some fishing too.
제리: 그거 좋지. 난 낚시도 좀 할래.
Laurie: This is a perfect time for you to teach me how to fish.
로리: 이번이 딱 좋은 기회인데 낚시 어떻게 하는 지 가르쳐 줘.
Jerry: I'll teach you to fish if you cook the fish we catch.
제리: 잡은 물고기 요리해 준다면 가르쳐 줄 수 있지.

Laurie: It's a deal! Now let's stop talking and get ready.
로리: 약속! 이제 말은 그만하고 떠날 준비해.
기억할만한 표현
▶ to be burned out: 과로하다, 일이 많아 녹초가 되다
"John is burned out so he quit his job."
(존이 녹초가 돼서 일을 그만뒀어.)

날말퀴즈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가로열쇠

(1) 멀리 볼 수 있도록 높은 곳에 만든 대 (3) 노지에서 겨울을 보내어, 속이 들지 못한 배추. 봄을 가장 먼저 알리는 채소로, 초봄에 잃은 입맛을 살릴 수 있는 먹거리조 (5) 어둠 속에서 빛을 냅. ~ 시계 (7) 동서남북 방위를 알려 주는 계기 (9) 가지가 길게 밑으로 처지는 나무. ~이 하늘 하늘/바람을 타고 하늘하늘/물동이 이고 가는 처녀/치맛자락 하늘하늘(손석우) (10) 공중이나 땅 위에 무엇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 (11) 과거에서, 갑과에 첫째로 급제함 (12) 그 수를 알 수 없음.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매우 많음 (14)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음. 호□□□ (18) 얼굴에 나타난 건강 색. ~가 환하다 (19) 들이나 교외로 나가서 노는 모임 (20) 적군이 이용하지 못하도록 모든 시설이나 물자를 불태워 버리는 전술 (22) 어떤 일에 익숙하지 못하고 서투른 사람 (25) 집채 안에 널빤지를 깔아 놓은 곳 (26) 부모가 돌아가실 때 그 곁에 지키고 있음 (27) 입신출세를 위한 어려운 관문이나 시험. 중국 황허강 상류의 급류인 용문을 오르면 용이 된다는 전설에서 유래하죠

세로열쇠

(1) 온 나라. ~ 노래자랑 (2) 유럽과 아프리카 대륙, 남북 아메리카, 남극 대륙으로 둘러싸인 지구상에서 두 번째로 넓은 바다 (3) 봄맞이하러 잠시 외출함. 나리 나리 개나리 입에 따다 물고요/병아리 때 종종종 ~ 갑니다 (4) 남녀가 잠자리를 같이함 (6) 전라북도 남원에 있는 누각. <춘향전>의 배경으로 유명해졌으며, 경내에 춘향의 사당이 있다 (8) 얼마쯤 믿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의심함. □□반□ (9) 상수도에 보낼 물을 모아 두는 곳 (11) 건강하고 씩씩한 사내. ~의 한 말이 천금같이 무겁다 (13) 거의 죽을 뻔하다가 도로 살아남. □사□□ (15) 몸을 보호하기 위한 무술. 태권도, 유도 따위 (16) 먹을 용도의 물 (17) 처음부터 끝까지의 과정. 일의 ~을 세세히 보고하다. 자□□□ (19) 산이나 들에서 저절로 나서 자란 말. 제멋대로 행동하거나 성질이 활발하고 거친 사람 (21) 자동차 따위의 앞에 달아 앞쪽을 비추는 등. 헤드라이트 (23) 값을 치르지 않음. ~ 승차 단속 (24) 매일 소식을 전해 주는 간행물. 지금 보고 계시는 ~은 한국 최초의 스포츠 연예 전문 ~이죠

스도쿠

	3		9	7			8	
		9	6		2	3		
				1	8		4	
8	2				3	1	6	5
	4			6		8		3
6	1		5	8	7	9		4
		6				5		2
	5			2	4	6	9	
		1					3	

자료제공 = 올드독 (www.gobook2.com)

스도쿠 문제풀이 스토리는 집중력을 필요로 하는 게임입니다. 가로·세로는 물론 사각형 3X3 안에도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적어 넣어야 합니다.

8	3	4	6	5	2	1	6	2
7	6	9	4	2	1	8	5	3
2	1	5	9	3	8	9	6	4
4	2	6	7	8	5	3	1	9
3	7	8	1	9	2	5	4	6
5	9	1	3	6	4	7	2	8
6	4	7	8	1	3	2	9	5
1	5	3	2	4	9	6	8	7
9	8	2	5	7	6	4	3	1

① 워싱턴 중앙일보

정기구독 신청 1년 (\$120) 및 가판대 무료배포

1년 정기 구독료 \$120

워싱턴 한인 커뮤니티의 유일한 종합일간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발행

주요 한인 마켓과 식당 등 80개의 기존 가판대에서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무료로 매일 배포

중앙 생활안내 구인/구직 줄 광고도
지역 한인 커뮤니티를 위해 무료로 게재



① 워싱턴 중앙일보 구독신청서

성명 (Name)	영문 (Eng)	한글 (Kor)
주소 (Address)		
연락처 (Phone #)	Home	Cell
구독료 (Subscription Fee)	1년 선납 \$120	지불 방법 <input type="checkbox"/> Check <input type="checkbox"/> Bill <input type="checkbox"/> Credit Card <input type="checkbox"/> Pay to the Order of: The Korea Daily
	카드 종류 <input type="checkbox"/> VISA <input type="checkbox"/> Master <input type="checkbox"/> Amex <input type="checkbox"/> Discovery <input type="checkbox"/>	카드 뒷면 3자리
신청서 보내실 곳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20 년 월 일 서명 (sign):		

* 신청하신 신문은 신청일(구독료 완납기준) 2일 후부터 배달되며 2일이 지나도 신문이 배달되지 않을 경우 구독부(703-281-9660.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정기구독 신청 및 문의: 703-281-9660,1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김진욱

척추신경전문의

- 교통사고
 - 직장사고
 - 운동사고
- 최신형 의료시설 / X-Ray 완비
• 교정 및 물리치료 • 의료보험 취급

703-691-3111
7023 Little River Tpke #409
Annandale, VA 22003

직원모집

닥터오피스
리셉션니스트
구함

파트타임/플타임 가능
703-256-3005
703-830-0993
mercy4resume@gmail.com

회계사 사무실

구인

- 유경험자 우대
- Benefit 있음 (건강보험/보너스/유급휴가)
- 영주권 스폰서 가능 함
- 무경험자도 함께 성실히 열심히 함께 일하실 분

* 이력서 보내실 곳 *
luvacct1986@gmail.com

정성웅보험

- 보험료를 확 줄일 수 있는
- 경제적인 보험!**
내가 탄 거리만큼만 내는
- 실속형 보험!**
- 종합보험 • 자동차보험
 - 사업보험 • 생명보험
 - 화재보험

703.825.29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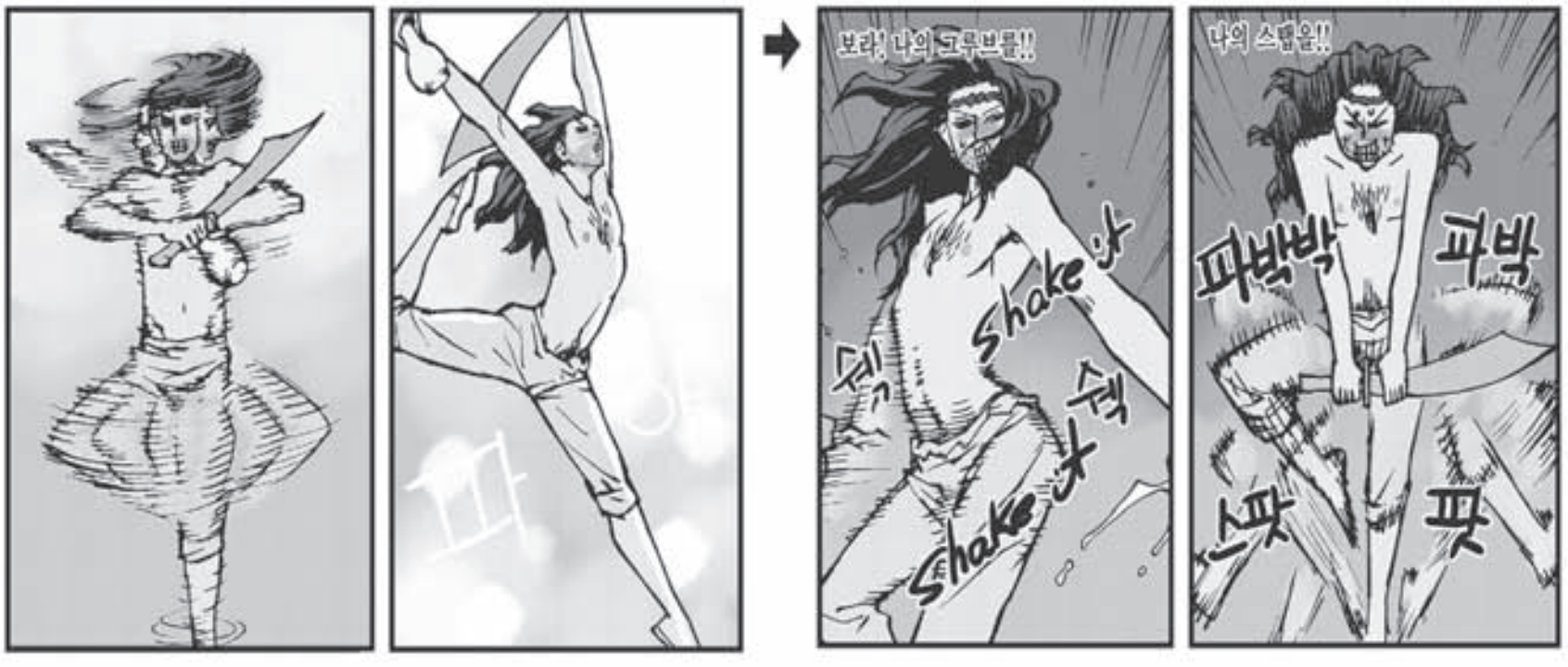
카툰 릴레이

식스센스

THE SIXTH SENSE

오늘의 주제 **직업**

이상신 · 국중록 · 고리타 · 병수씨 · 장우혁



바른 정보 · 빠른 신문 중앙일보

무슨 신문 읽으세요?

Tel: 703-281-9660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직장사고

운동사고

교통사고

김진욱 척추신경전문의

최신형 의료시설 완비 / 최신형 X-Ray 완비 / 교정 및 물리치료 / 의료보험

진료과목

- Whiplash 전문치료
- 목 디스크, 목, 통증, 두통
- 목이 뻣뻣한 증상
- 목을 돌리기 어려운 현상
- 목을 들지 못하는 증상
- 어깨가 쭈시고 아픈 증상
- 팔이 저리고 감각이 둔한 증상
- 팔을 올리지 못하는 증상
- 허리 디스크
- 허리 통증
- 다리가 저리고, 당기는 증상
- 좌골신경통 마비



7023 Little River Tnpk., #409, Annandale, VA 22003

Dr. 김진욱

- UCLA Biology
- Palmer College of Chiropractic (Davenport, Iowa)
- Board Certified in Permanent Impairment Rating
- Fellow of American Back Society
- Member and Board Eligible for Diplomat Status of the American College of Forensic Examiners
- Member of the American Board of Disability Analysts
- Member and Academic Consult of the National Board of Forensic Chiropractors
- Chiropractic Rehabilitation Diplomat Program



CHIROPRACTIC AND REHABILITATION

김진욱 척추신경전문의 Tel. (703) 691-3111

Office Hours by Appointment

6월
구
인
광
고

WBS
월드뱅크카드 서비스
직원 모집

▶ 모집분야 ◀
사무직 (월-금)
▶ 대우 ◀
유급휴가 / 건강보험
취업비자/영주권
Sponsorship
\$50,000/Yr

Resume to:
hr@worldbankcard.net
▶ 문의: 703-225-5500 ◀

지휘자 청빙
연합감리회 워싱턴교회에서
지휘자님을 모십니다

자격
• 음악 전공자
• 지휘경력자 우대

제출 서류
• 이력서
• 신앙고백이 들어간 자기소개서

제출
nationalkumc@hotmail.com
301-309-6856
2181 Baltimore Rd, Rockville, MD 20851

엘리콧시티 편한나라 척추신경
직원 모집

WE ARE HIRING

▶ 풀타임 & 파트타임
▶ 정규직원 베네핏 제공
▶ 이중언어 우대
▶ 무경험자 환영

◆ 이력서 보내실 곳 : carefreeland@gmail.com

회계직원 구함
Assistant Accounting Manager

Gov't contracting firm
(FULL TIME)
1년이상 회계업무
(Quickbooks경험)
좋은 인성과 세밀함/성실함

100% Medical/Dental/
Vision/Life insurance
Starting \$55,000

703-691-2852
www.visitlod.com
admin@visitlod.com

LÓTTE Plaza 롯데플라자
**스털링점
푸드코트**

롯데플라자 스텔링점(VA) 에서
근무하실 직원을 모집합니다.

캐시어
풀타임/파트타임

sijang.sterling@gmail.com
성함, 연락처 남겨 주세요!

**코너스톤
종합보험**

사무직원 모집

* 풀타임/파트타임
* 영어/컴퓨터 사용
* Annandale 지역

이력서
joshuaoh123@gmail.com

동부 최대 스크린 골프
**NO.1
GOLF LOUNGE**

"No.1골프에서
함께할 Staff를
구합니다"

571.591.4455
5938 Centreville Crest Ln
Centreville, VA 20121
https://no1golfounge.com

구인

• Office
청소하는 사람 구함
• 경험있는
Area Manager 구함

매나사스 지역 (버지니아)

301-537-3800

구인

바쁜 오토바디샵에서
경험있으신
오토바디 기술자 구함
5+years of body man experience
Busy Auto Body Shop
in Gaithersburg, MD

**T. 301-977-4484
C. 240-246-4477**

**시니어 보험
에이전트 모집**

▶ 안정된 소득과 도와주는 기쁨
▶ 라이선스 소지자 우대/
라이선스 교육 가능
▶ 목회자/사모님/교회 종사자
환영

ehyum0530@gmail.com
571-232-5022

L&B
Universal, Inc.
히팅/냉동/덕트클린

**HELPER
TECHNICIAN**
(헬퍼/테크니션)
구합니다

전화문의:
703.678.1749

**나투라 치과
직원 모집**

**어시스턴트 및
리셉셔니스트**

• 파트타임 (월/화/목/금)
• 영어 가능하신 분
• Entry-Level Welcome

Resume to:
naturadent@gmail.com

**애난데일 회계사무소
직원 모집**

▶ 풀타임 가능하신 분
▶ 영어와 컴퓨터
사용가능하신 분
▶ 무경험자도 성실히
함께 하실 분

* 이력서 보내실 곳 *
topcpainfo@gmail.com

대형믹서기
핫 세일

HOBART Mixer 140 qt.
Lease end
Machine less used
Low price
Year-end Quick Sale

Sfood90@gmail.com
Text: 703-200-5541
(Alex, VA)

**엘리콧시티
택시**

볼티모어 지역 환영
장거리 특별 요금
어느 곳이든 24시간 OK

TAXI
회사 위치:
볼티모어 롯데 마켓 근처

OK 택시
240-796-0093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업성 광고는 줄광고로 무료게재하지 않습니다.)



① 워싱턴 중앙일보

"하루 준비, 끝"

좋은 신문이 당신의 생활을 바꿉니다.
일등신문 중앙일보 하나 보는 것 만으로도 당신의 삶이 편해집니다.
생활을 유쾌하게 이끄는 풍요로운 콘텐츠, 아침을 기분 좋게 여는 중앙일보로
하루 준비를 편안하게 끝내시고 행복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대표전화 : 703-281-9660

중앙생활안내 Classified

중앙일보 2024년 6월 6일 목요일

구인/구직광고와개인 렌트 광고는 무료게재, 내용 보내실 곳: kdclass2018@gmail.com (게재중지를 원하실 경우 이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C13

구인/구직

〈사무직/세일즈 마케팅〉

롯데플라자 마켓 본사인 승원에서는 그래픽 & 웹디자인을 구합니다.
 ■모집부문: 그래픽 디자이너 / 웹 디자이너
 ■근무형태: Full Time
 (Mon.-Fri.: 7:30AM - 5:00PM)
 ■근무지: 승원본사 디자인실 (Jessup, MD) chankim@lotteplaza.com 으
 Resume와 포트폴리오 첨부

유재신 회계사 아난데일 공인회계사무실
 경험자우대, Benefit, 영주권 스폰서 가능함,
 무경력자도 성실히 열심히 함께 일하실분
 이력서: acct.one3@gmail.com

정관장 애난데일 매장 직원 구함
 풀 타임/파트 타임/일요일
 판매 경험자 우대
 ▶문의: 571-348-3723

코너스톤 종합보험 사무직원 모집
 -풀타임/파트타임
 -영어/컴퓨터 사용
 -Annandale 인근 지역
 ▶이력서 joshuaoh123@gmail.com

사무직 직원 급히 구합니다
 스프링필드에 위치한 간병사 회사
 기본적인 컴퓨터 지식과 이중언어 가능하시
 면 경험없어도 Training 하여 드립니다.
 Full Time / Part Time
 ▶이력서: KDLHJL@gmail.com

Smart Insurance P&C(Property and
 Casualty) specialist 모집
 -경력자 우대(P&C License 소지자)/
 신입환영
 -MS Office 사용가능자
 -Benefit: 401K/Health Insurance/
 PTO/Sick Leave
 ▶지연: smartacct@solomonus.com
 703-639-0882

WBS 직원 모집
 사무직, 월-금, 유급휴가, 건강보험,
 취업비자/영주권 Sponsorship.
 \$50,000/Yr
 이력서: hr@worldbankcard.net
 ▶문의: 703-225-5500

변호사 사무실 직원 채용
 경력, 영어 및 컴퓨터 능력에 따라 18불,
 20불, 22불부터 시작. 영어 이력서
 ▶이력서: Janammi0410@gmail.com

Fairfax 풀/파트타임 이중언어
 사무직 유경력 40k-50k 베네핏 제공
 ▶571-232-0702
 coverworldgr@gmail.com

탐 여행사와 함께 할 에이전트를 찾습니다
 (엘리엇시티, MD)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제출
 -제출 할 곳: ceo@toptravelusa.com
 ▶703-256-0606

탐 여행사 버스투어 가이드 구함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제출
 -제출 할 곳: ceo@toptravelusa.com
 ▶703-543-2322 (레나 고 실장)

L & B Universal, Inc. Chantilly, VA
 HELPER, TECHNICIAN 구함
 ▶703-678-1749

Annandale, VA에 위치한 공인회계사
 사무실에서 함께 일하실 분 모집합니다.
 Full & Part time, 경력자 우대. 무경력자도
 환영. Benefit 있음(보너스, 건강보험, 유급
 휴가 등등), 영주권 스폰서 가능
 Email: acct.one3@gmail.com

Wanted Sales/Marketing.
 Y1 design factory, LLC
 443-240-5114

Assistant Pastor: Assist the senior
 pastor in the ministry for the adult
 congregation of the church; Preach,
 lead, administrate in worship services
 including praise and dawn prayer
 worship services.; Preside and perform
 baptism, communion, wedding and
 funeral services; Teach and train small
 group leaders for biblical servitude;
 Provide spiritual counseling to church
 members; Make visitations within
 Fairfax County VA and its BLS area.
 40hrs/week, 6 days/week, M.Div. in
 Theology and Ordination req'd.
 Send application with proof of
 qualification to-Employer & Job Place:
 Korean Central Presbyterian Church,
 KCPC at 15451
 Lee Highway, Centreville, VA 20121.

건강 용품 매장에서 토요일, 일요일
 주말에 일하실 분 / 영어 가능하신 분
 703-798-7270

WUV대학교 입학처 (이중언어)
 풀타임 or 파트타임
 이력서제출: hr@wuv.edu

식당 장비 세일즈 하실 분 모집
 DC, MD와 북버지니아 지역 식당장비
 세일즈 하실분. 경력자 우대.
 각종 지원 프로그램 과 수당.
 문의: 571-332-2101(문자) 또는
 edk.tre@gmail.com

한상준변호사 사무실
 이민법에 관심있으신 Entry Level
 Associate Attorney 및 직원을 구합니다.
 LL.M 환영, 이민법 Training 제공, 취업비자
 지원 그외 저희 사무실과 동반 성장을
 원하시는 변호사님의 문의도 환영 합니다.
 lawsjhan@gmail.com
 703-256-5050

첼트리 위치한 한미포스트 물류회사
 풀/파트타임 (9am-5pm or 10am-2pm)
 운영팀 00명, 패킹/포장팀 00명
 학생/한국에서 오신지 얼마 안되신분
 ceo@hanmipost.com *스폰가능

에버그린 헬스 매니지먼트에서
 풀타임 직원모집
 Position: Human Resource, Medical
 Billing Assistant
 한국어/영어, MS Office (Word/Excel)
 danny.evergreenhealthcare@gmail.com

버지니아 애난데일 회계사무실
 파트타임/풀타임 직원모집
 학생및 유/무 경력자 환영, 컴퓨터/영어 가
 능자, 취업비자/ 영주권스폰 가능
 이력서:annandalecpa22@gmail.com
 수퍼맥스 웨어하우스 직원모집

*수산제품 및서플라이오더.
 (초보자 가능, 최소의 이중언어 및
 기본컴퓨터 요함) - Chantilly, VA
 703-665-2162(마이클 임)

Assistant Accounting Manager:
 -Gov't contracting firm
 에서 fulltime 회계직원 구함
 www.visitlod.com
 -Quickbook/excel경험필수
 -1년이상 회계업무경력좋은
 인성과세밀함/성실함
 -100% Medical/Dental/
 Vision/Life insurance
 -Starting \$55,000
 admin@visitlod.com

Admin Assistant:
 애난데일 소재한 정부계약회사
 www.visitlod.com
 Full Time 행정직원 구함
 -안정적인 Position원하시는분
 -Detail에 강하고 좋은인성 (must)
 -100% Medical/Dental/
 Vision/Life insurance
 -Cash Bonus 포함
 -Starting \$55,000
 admin@visitlod.com

ASL Division Manager:
 애난데일 소재한 정부계약회사
 www.visitlod.com
 수어(ASL)통역 메니저 구함
 -통역사들의 스케줄관리
 -정부계약및 vendor 관리
 -좋은 인성과 성실함
 -100% Medical/Dental/
 Vision/Life insurance
 -Starting \$60,000
 이력서: admin@visitlod.com

의료품 관련업체 세일즈 사무직, 스폰서 가능
 703-626-3489 / Vp@ytsglobal.com

Silver Spring, MD에 위치한 종합보험
 Agency에서 함께 일 하실 이중언어(영어
 또는 스페니쉬) 가능한 유, 무경력자 구함.
 albert@wkkinc.com
 301-526-7000 (Cell) Mr. Kim

회계사 사무실 구인/ 유경력자 우대
 Benefit (건강보험/보너스/ 유급휴가)
 영주권 스폰서 가능 함
 무경력자도 성실히 함께 하실분
 luvacct1986@gmail.com
 JTBC-중앙일보 워싱턴 총국에서 '행정·코
 디지'를 채용합니다. 많은 지원 바랍니다.
 -근무조건: 풀타임
 -근무내용: 워싱턴 총국 행정, 취재코디 및 기타
 -지원자격: 신입 및 경력
 미국 취업에 결격사유 없는 분
 -처우: 보수는 최종 면접 후 결정
 -지원서류: 이력서(한국 또는 영문)
 -접수처: kim.hyounggu@joongang.co.kr
 thkang@joongang.co.kr
 phil9@jtbc.co.kr

〈병원/치과/덴탈랩/한의원〉

닥터 오피스에서 full or part time 직원 구
 함. 락빌/ 콜럼비아
 이중언어, 신분에 결격사유 없으신분
 문의 301-580-5777

메릴랜드 베데스다 한방병원에서

바디 마사지사 약간명, 리셉션니스트 구함
 ▶301-787-4842 (문자로만 연락 바람)

센터빌, 첼트리 지역 물리치료 병원에서
 한국어/영어 가능한 Receptionist 구함
 이력서:coretrehab16gmail.com
 ▶703-865-6455

나투라치과 어시스턴트 및 리셉셔니스트
 월/화/목/금, 영어 가능자
 Entry-Level Welcome
 ▶Resume to:naturadent@gmail.com

급구, 센터빌/첼트리 지역
 임플란트 전문 치과 풀/파트타임
 유경력 여씨/리셉션 환영
 이력서 첨부 govaepic@gmail.com
 ▶703-574-0528

치과병원 Front Desk(레스톤/ 타이슨스)
 경험자 우대, Dentrax Plus Full/ Part Time
 No exp.require 이중언어,
 ▶tysondentalcenter@gmail.com

닥터오피스 리셉션니스트 구함
 파트타임, 풀타임 가능
 mercy4resume@gmail.com
 ▶703-256-3005/703-830-0993

1)덴탈랩 경력자 세일즈 구합니다
 Germantown/MD
 2)성실한 세라미스트 경력자 구합니다
 덴탈랩 Germantown/MD
 3) CAD/CAM 파트, 테크니션 구함
 4)덴탈랩 오피스 사무직 직원 구함
 (풀타임/경력자 우대) 저먼타운 MD
 240-477-5683

워싱턴 데이케어에서 일하실분 구함.
 -데이케어 직원 / 주방보조 / 간병사(남,여)
 문의: 703-850-1100/703-963-1234

책임감있고 성실한 직원모집

*College Park지역, MD
 -경험많은 Handyman
 -Part Time Office관리자
 -정육부관리자
 *Capitol Heights지역, MD
 -사무보조:이중언어 가능자
 *PT 20-35HR:\$17~20/H
 jobsmd@outlook.com
 문의:(301)333-2209

닥터오피스 리셉셔니스트 구합니다.
 풀/파트타임, 영어/한국어 가능 경력자우대
 P:703-965-3103
 email: admhappy.hr@gmail.com

러브랜드 홈헬스에서 직원을 모집
 -모집분야: 행정직, 간호사(RN, LPN),
 Case Coordinator, Day Care Driver
 -지원자격: 이중언어 가능, 컴퓨터 사용가능,
 자격증 소지자
 -근무혜택: 건강보험·IRA 혜택제공,
 유급휴가 제공 / 경력자우대함
 -지원 및 문의: HR 담당
 ▶703-657-0944
 E-mail: admin1@lovehandhomehealth.com

〈식당/제과/델리/식품〉

센터빌 K-밥상 (롯데 푸드코트)
 가족같이 일하실 캐슈어 구합니다.
 443-864-0091

엘리엇 시티 Cafe June 에서 샌드위치 싸실분
 유무경력자, 풀/파트타임
 443-386-0515

롯데플라자 마켓 본사 승원유통에서
 함께 일하실 분을 구합니다.

*위치: 메릴랜드 재섭(Jessup)
 1. 승원 물류센터 사무직원 모집
 -업무: 사무직원(서류관리 및 인보이스등)
 -시간: 주 32~48시간(주 5일 근무 가능)
 2. 승원 물류센터 현장 관리자 모집
 -업무: 현장 직원 관리 및 입출고 관리
 -시간: 주 48~52시간
 -유경력자우대(물류센터 운영 전분)
 접수 방법: 간단한 이력서 작성 이메일 접수
 ▶연락처: han97003@lotteplaza.com
 240-750-0016 / 물류센터장

H Mart Wheaton RTC 부서 직원모집
 업무: 주방 보조 (주방)
 Address: 12015 Georgia Ave,
 Wheaton-Glenmont, MD 20902
 연락처: Customer Service Manager
 ▶P: 301-942-5071

H-Mart Herndon 직원 모집
 Customer Service, Cashier 유경력자우대
 매니저: 임희상 이사
 ▶571-839-1647

H-Mart Falls Church 직원 모집
 Customer Service, Cashier 유경력자우대
 매니저: 박성태 부점장
 ▶703-573-6300

Global Food VA 매장 그로서리 매니저
 info@theglobalfood.com
 ▶703-897-6100

롯데프라자 스타링점 구인
 푸드코트 캐슈어, 풀타임, 파트타임 가능
 성함과 연락처 남겨주세요.
 ▶sjiang.sterling@gmail.com

점보 인터내셔널 수퍼마켓
 정육부 매니저 1명, 그로서리 매니저 1명
 은퇴연금/건강보험 혜택
 내셔널하버 MGM 근처
 이력서: jumbo.food@gmail.com
 ▶703-577-2425 (전화문의 Mr. 박)

알링턴 gute Leute 커피샵에서 바리스타
 구합니다. 바리스타가 되고싶은 분도 환영
 합니다. guteleute.usa@gmail.com
 703-989-9828 (Text Only)

MD 글렌베니지역 Severna Park
 베트남 국수 식당 Full/Part Time
 Hall Server 구합니다
 240-678-5395

엘리엇 시티 Cafe June 에서 샌드위치 싸실분
 유무경력자, 풀/파트타임
 443-386-0515

H Mart 또는 롯데에서 사시 행사 진행하실 분
 문자로 연락 주세요. 풀타임, 파트타임
 571-991-4172

현존 H-마트 안 민가네 식당 캐셔 구함
 703-638-8878

르뱅 베이커리 캐슈어 구합니다.
 (오전/오후/주말)
 703-263-2000

워싱턴시 IAD 공항 라운지 키친스태프
 201-551-8861

제빵 기술자 구합니다. 리치몬드 지역
 919-225 4703/jaybae67@gmail.com

*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상업성 광고는 줄광고로 무료게재하지 않습니다.)

임업 밀칭

(ALLIANCE LAND MANAGEMENT)

- 토지 개간
- 들판 잔디 깎기
- 울타리 라인
- 산책로 및 목초지

540-905-2849
 SALES@ALLIANCELANDMANAGEMENT.COM
 English 상담

중앙생활안내 BOX 광고 가격표

(한달기준/흑백)

1 BOX	\$100
2 BOX	\$200
3 BOX	\$300
4 BOX	\$400
5 BOX	\$500

문의: 703-281-9660
 kdclass2018@gmail.com

운전면허에 관한 모든 것

VA, MD 불체자에게
 면허정식 발행

- 필기시험 요점정리, 예상문제
- 한국/타주면허 갱신
- Real ID 신청
- 차량 구입/등록
- 기타 교통국 업무

Jim Dong
 571-294-0057

구인

메릴랜드 베데스다
 한방병원에서

바디 마사지사 약간명
 리셉션니스트
 구합니다!

문자로만 연락 바람
 301-787-4842

25년 용자 경력 제인 최 용자

\$비교해 보십시오!

매입용자/재용자
 최저이자율 보장
 용자비용 \$0 가능

현금인출 용자/2nd 용자
 긴급용자(차압 또는 급전),
 노 인컴 용자, 외국인 용자,
 상업용 용자 등
 모든 용자 프로그램 취급

703-244-3453 Mortgage4U LLC,
 Janec.loan@gmail.com
 VA 8200 Greensboro Drive, #900 Mclean, VA 22102
 MD 9211 Corporate Blvd., #200, Rockville, MD 20850

중앙생활안내 Classified

미국음식 하시는 분 구합니다.
경험자 구함. (Woodbridge, VA)
월 \$6500+Tip (전화+text 부탁드립니다)
571-365-8303

매장에서 토요일, 일요일 주말에 일 하실분
703-798-7270

베이글샵에서 일하실분. 파/플타임 (주말포함)
알렉산드리아 스프링필드 몰에서 5분거리
Text: 703-371-1263, 703-899-5098

볼티모어 지역에서 초보자 사시 & fried chicken / 파타임 & 플타임 구합니다
646-220-8184

<이·미용실/네일/마사지>

첼룰리에 위치한 미용실에서 부스렌트, 스킨 케어를 원하시는 분 구함.
자세한 사항은 문자, 메세지 다 가능
(571)215-6767

Gaithersburg, MD 남/여 머리하시는 분
▶ 301-926-3638 / 301-538-4246

이발사 구합니다. 알렉산드리아 지역
703-408-1119

첼룰리에 위치한 미용실에서 부스렌트, 스킨케어를 원하시는 분 구함.
자세한 사항은 문자, 메세지 다 가능
571-215-6767

애난데일 미용실에서 리셉션리스트 구함
(일요일 근무가능 하신분)
703-750-2424/703-717-8256

페이셜/바디 마사지 같이 하실 분
파타임(2일), 라이선스 필수
일당 \$280 + 팁(\$70-\$120)
맥클린 소재 한의원
703-839-0766 (문자 요망)

바버 or 미용사, 바디 마사지사
플타임/파타임 구함. 애난데일 지역
703-505-9020

풀/파타임 이발사 구함. 703-408-1119

4일 또는 2일 일 하실바버 구합니다
메릴랜드 앤드류 공군 기지 근처
애난데일에서 25분 거리
703-975-8008

<세탁/얼터레이션>

알렉산드리아 지역 세탁소 픽업스톨에서 파
타임하실분. 연락처.
703-300-4959

픽업 바느질 하실분(파타임) / 엘리콧시티
410-926-3200

세탁소 수선하실 분 구함
페어팩스 가버먼트 파크웨이
703-568-3574

바느질 하실분 구함. 알렉산드리아 지역
703-328-3064

픽업 플타임 카운터 구함. 우드브릿지 지역
571-455-3609

스테포드 지역 픽업 수선&캐쉬어
703-628-9100

생활안내 703-281-9660(문자)

<정비/바디샵>

게이더스 MD. 바쁜 오토바디샵에서
경험있으신 오토바디 기술자 구함!
▶240-246-4477

자동차 메케닉 구함(애난데일)
571-243-9899

자동차 정비소에서 일하실분 구합니다.
알렉산드리아 버지니아
703-887-5355(문자 요망)

자동차정비소 메케닉 일하실분 플스쳐지
703-577-5866

첼룰리 자동차 정비소에서 성실히 일하실분
모집합니다. 메케닉, 준메케닉, 헬퍼 구함.
703-266-1983

엘리콧시티 자동차 정비소 성실히 일하실분
메케닉, 영주권 가능, 좋은 대우
410-446-9981

Chantilly va. (Ourisman Toyota Auto
mechanics 경험에 따라 우대함. 베네핏!
Ask Service manager Joon
202-699-1805

자동차 정비사 구함 Columbia MD 지역
443-983-1965

자동차 정비사 구함/ 애난데일 지역
Mechanic or Mechanic Helper
\$50k-\$100k 가능 Va safety inspection
우대(emissions test 없어도 됩니다)
Manager 하시면서 2-3년후
가게 맡아 하실분 환영. 영주권 스폰서 가능
571-376-7878

<건축/전기/플러밍/빙난방>

손 사이딩 크루 메케닉 구함
703 955 2827 / 540 680 157

에어컨 저렴하게 판매합니다.
창문형 3개, 이동형 1개
703-635-9998

L&B Universal, Inc. (냉·난방/덕트클린)
헬퍼/테크니션 구합니다
▶전화문의: 703-678-1749

손사이딩 / 메케닉 크루
전화: 703-955-2827 / 540-680-1571

미국회사 Electric Co.
전기 기술자, 영어 소통 필수
973-997-5805 (엘렌)

HD Plus Construction
밀집에서 함께 일할 경험자를 찾습니다.
- 피니셔 (페인트, 스테인)
- 카펜터 (캐비닛, 코리안 카운터탑 제작)
- 프록젝 메니져 (이중언어)
높은 페이와 근무시간 보장
(571)420-5492 / (703)256-5486

리모델링 목수 구합니다.
목수일 직접 전체공사 맡아서 하실분 모집
443-542-1200

EV Electric Co.
차, 베네핏, 전기기술자, 무경험 가능
973-997 3012

성장하고 있는 유통회사에서 IT(전산),
그래픽 디자이너 및 인터리어 디자이너 구함
이력서 접수 sunddor@gmail.com

<기타 구인/구직>

집안일 도움주시고 운전가능하신분 구합니
다. 월-금, 오후 3PM - 7PM
센터빌 롯데 부근입니다.
703 300 1048

알렉산드리아 치맥치킨 홀출아서해주실분
(703)473 6022.
워싱턴 벨러스 공항 라운지에서 주말
(토요일, 일요일) 오전에 일 하실분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551-8861

Office 청소하실분 구합니다.
경험있는 Area Manager, 매나사스 (VA)
▶301-537-3800

연합감리회 워싱턴교회 지휘자 모집
-자격: 성악 전공/지휘 전공
음악 전공 (지휘 경력)
-서류: 이력서 신앙고백 자기소개서
제출: nationalkumc@hotmail.com
▶301-309-6856

No.1골프에서 Staff 모집합니다 (센터빌)
▶571-591-4455

임마누엘 어덜트 메디컬 데이케어 센터
직원모집: 운전기사 / 간호사(RN)
-건강보험 - 좋은 조건의 연봉과 베네핏
-유급 휴일과 유급 병가
eamdc@emmanuel.care
▶443-828-7777

맥클린한국학교 교사 모집
▶문의: 571-235-8997, 703-505-5760

COLUMBIA COLLEGE 교직원 초빙
초빙부서: 미용학과 코디네이터 / 강사
자격: 라이선스 보유 J-1 (교환교수, 인턴),
H-1B Transfer 가능
▶이력서 제출: raphaell@ccdc.edu
www.ccdc.edu

락빌에 위치한 연합감리회 워싱턴교회에서
지휘자님을 모집합니다
-자격: 성악전공 / 지휘전공 / 음악전공(지
휘경력)
-제출서류: 이력서 / 신앙고백이 들어간 자
기소개서
-제출할곳: nationalkumc@hotmail.com
▶301-309-6856

어시스트리빙 노인분들케어 해주실분.
남녀불문 경험자 우대. 숙식도 가능.
410-961-3012

버지니아에 있는 꽃집에서 디자이너와
헬퍼를 구합니다. 유, 무 경험자 환영
240-393-2773

각종류의 영어서류 신청과 등록 및 접수와
해석하면서 도와드려요. 연락주세요.
703-537-6756 (씨니 한)

파타임 구함. 이중언어 되시는분
은퇴하신 남녀노소 환영.
703-424-8596

Burke에 위치한 Gift Shop에서
Mother's Day Week에
가게 안에서 일하실분과 Driver 구합니다.
571-230-7686 Text

MD에 위치한 MGH Adult Medical Daycare
Center에서 근무할 RN 간호사를 구함
연락처: 443-621-2625

필그림유치원 교사모집
토들러반 플타임 / 오후 파트타임
571-212-9020

애난데일 인쇄회사 풀 / 파타임 구함.
컴퓨터관리/ 고객마케팅관리 하실분.
신분 무. 재택 NO
E-mail: newsunny77@gmail.com
571-242-3736

몸이 불편하신 시니어 분들 모십니다.
-최적의 위치·시설 -최고의 식사와 돌봄
703-980-9890

사인 컴퍼니에서 일하실 성실하고
꼼꼼하신분. 유·무 경험자
703-499-0857

건물관리인(월-토), 스포서가능
영어, 전기, 기계, 목공 모두 가능하신분
연락: 240-903-0777

피아노 주일예배(11시) 반주봉사할분
웨어팩스 코스트코 근처 브래더로드.
202-271-2726



<싱글/타운하우스 렌트>

페어팩스 콘도 \$1,600
큰방1, Den(Dining Room), End Unit,
집전체 새 나무마루, 새 화장실, Washer &
Dryer 집안에 있습니다. 넓은 남향 Bacony,
밝고 환한집. 880S.F.(넓은 사이즈).
Costco 가까운 동네. 즉시 입주 가능
▶703-477-3114

시니어케어 용도주택 렌트
-95와 RT 1 만나는 Dumfries
-아름다운 조경의 큰방, 전체 리모델한 저택
-1,2층 각자의 계단없는 출입문
두 층 각자 풀키친과 세탁장
-12베드룸, 6 풀베스,
(1+2층 7베드, 4베스 또는 워크아웃
아래층 5베드, 2베스 따로 렌트 가능)
*Serious Inquiries Only *Agent 환영
▶703-244-3453

콜롬비아 싱글홈 렌트
방5, 화장실4, 차고2, 좋은환경, 최고학군
410-599-1800

스프링필드 싱글홈 렌트 \$2,700
방4, 화장실2, 주인 잔디 관리, 전체 마루.
703-403-7757

메릴랜드 대학 가까운 495와 95 만나는
교통 편리한곳. 싱글홈 방4, 화2.5 차고 2
301-385-3535 (자세한 사항은 문자요망)

114 Birch St /B-6, Falls Church
서쪽 지하철 근방. (교통/학군 좋음)
방2, 화1, 세탁기, 새 부엌, 렌트 or 매매
703-336-3283

센터빌 타운홈 마트 앞, 월 \$3,400
방3, 화3, 차고2, 마루. 바로 입주 가능
703-401-9997

게인스빌 2019년에 지어진
햇빛 잘드는 엔드유닛 모던 타운홈
방3개, 화4개, 2카가라지. \$2,850
703-762-6759

센터빌 타운홈 전체 렌트. 즉시 입주 가능.
연락처: 571-277-7758 (문자 요망)

1. 페어팩스 타운홈, 방3, 화3.5,
좋은 로케이션, 잘 관리 된 집 \$3,700
2. 사우스라이딩 타운홈, 방3, 화2.5,
전체 새 페인트와 바닥 등 Renovation,
Freedom High 학군 \$3,300
571-567-5797

1. 센터빌 싱글홈 \$2,600/mo
가라지 방 4 화 3. 소핑몰, 교통 편리
2. 페어팩스 타운홈 \$3,000. 방3 화3
차고. 페어레이크 쇼핑몰에서 1분 거리
202-743-8886

<콘도 렌트>

MD 락빌 홀푸드근처.
1180sq/2bed/2bath
3 & 4층 복층콘도. 좋은 학군
전체 새마루. 7월 중순 입주 가능.
571-331-4746 (text 가능)

애난데일 콘도 방1, 화1, 새 나무마루,
새 부엌, 새 화장실, 새 페인트, New Light
Fixture, 넓은 발코니, 밝은 리빙룸,
계단없는 1층 위치. \$1,500(Water, Gas,
Trash removal 포함됨)
▶703-477-3114

콘도 렌트. 방2, 화2, 깨끗한 이층집. \$1,700
702-622-8853

콘도 렌트, 센터빌 사거리 불링장 뒷편,
남향집 조용한 지역, 큰 방 2개, 화장실 2개,
H 마트 및 은행 도보 10분, 단지 수영장 5분
거리, 지정 주차 및 방문 차량 주차 무한대,
8월 말 입주 가능, \$2,200 (전기세 별도)
703-229-3947

페어팩스 웨그망 걸어서 5분. \$1,150
개인방, 화장실, 보안보장, 빛 잘 들어오는
703-762-6759

<방 렌트>

애난데일 H mart 옆
방 1 세놓음, 인터넷, 가구일체, 취사가능, 유
포 \$800 직장다니는 여자 즉시 입주
571-214-0188

Fairfax/Burke
NOVA, GM n Burke H-Mart 10분거리
유포, 취사, 인터넷
\$600 여자분 한함 문자바람
571-214-0188

Woodstock, MD
엘리콧시티 롯데에서 10분
유틸리티 포함(전기, 수도, 인터넷)
화장실/침대 구비 금연남성 환영
443 983 1880 문자 주세요.

첼룰리 타운홈 지하 워킹아웃 방1, 거실1, 욕
실, 간단 취사가능 가구일체, 금연, 직장인 또
는 학생 환영. 메세지요망
571-429-2222

애난데일 지역 싱글홈, 방1개 렌트
▶703-470-5238

NIST와 Shady Grove 병원근처
노스포드막 지역 반지하 방1개, 가구,
부엌, 빨래방, 화장실 구비, 직장여성구함
301-520-2916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상업성 광고는 줄광고로 무료게재 하지 않습니다.)

이달재 부동산

703-483-0505 Fairfax Realty 50/66 LLC
11130 Fairfax Blvd. Fairfax, VA 22030

시니어(장애인)의 심신이 편한 생활을 위한 단층주택, 1층 콘도, 텃밭이 있는 곳으로의 이전을 시니어 고객 전문 부동산인이 준비 상담해 드립니다.

복잡하고 답답하고 주차난이 심한 타운하우스 등에서 벗어나 병원, 도서관, 레스토랑, 교통(1-66, 29, 28번 도로)이 원활한 지역에 소재한 생활권으로 이전함으로써 "삶의 질"을 올리고 심신의 피로에서 벗어나세요.

물건 거래 사례

▶ 1층 주택 (Ground Level)
\$490,000 ~ \$570,000
방3, 화2, 워크아웃 베이스먼트,
대지 0.3에이커 텃밭 (No HOA)

▶ 콘도 (MainLevel)
\$300,000 ~ \$370,000
방2, 화2 / 1,000 ~ 1,200 SF, 주차 편리한 곳
지열한 콘도피 (\$350 내외, Water & Trash 포함)

▶ 골프장 커뮤니티 Luxury House / Condo
\$510,000 ~ \$600,000
방3(2), 화2,1 Garage Gate Community
55+ Senior

▶ 근린, 전원생활, 주말농장
\$350,000 ~ \$650,000
도심으로부터 30분 ~ 1시간 근린 생활권,
대지 1에이커 이상

* 기존 주택을 팔고 이주할 때 번거롭게 미리 집을 비우지 않아도 거래 가능합니다.
* 집을 팔거나 사기 전에 집을 손볼 곳이 있더라도 주저하지 마시고 상담 전화 주세요.

정크 빨리빨리

이제 어떻게 버리시?

“ 가정, 사업체에 만쓰는 가구, 가전 등 버려드립니다. ”

각종 밀리버리 / 소량 이사 전문
비즈니스 폐업 / 각종 철거 전문

정크 빨리빨리

571-723-0446

열린 마음으로 시니어분들 돌봐 드립니다

- ◆ 주인이 직접 돌봐 드립니다.
- ◆ 1에이커 넘는 깨끗하고 넓은 정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 자녀들의 휴가, 출장으로 인한 단기간 돌봄도 가능합니다.
- ◆ 노바대학과 벨트웨이 중간지점(예천 2분거리)입니다.
- ◆ 1인1실

MD나 타주에서 오시는 분 상담해 드립니다!

“ 양로원에 들어갈 예정이신 분들과 나오신 분들께 모든 것을 한국식(음식)으로 준비해 드립니다. ”

방문하여 직접 확인하세요!

문의: 571-278-8811 / 703-999-3557

중앙생활안내 Classified

중앙일보 2024년 6월 6일 목요일

구인/구직광고와개인렌트광고는 무료게재, 내용 보내실 곳: kdclass2018@gmail.com (게재중지를 원하실 경우 이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C15

개인주택(반지하) 방세 놓음. 출입문 별도 세탁기, 냉장고, 인터넷 WiFi good
703-389-4615

애난데일 도서관서 동쪽으로 0.7마일 콘도방1 렌트, 취사가, 월 \$850(유료), 남*금주*금연자 ■571-335-3739

애난데일 싱글홈 2층 방렌트 취사가, 즉시입주자
703-732-9153

센터빌 뉴 싱글하우스 자하방 2개, Full Bath
703-508-7743

Fair Oak INOVA 병원 옆 단독주택 지하방 렌트. Rt. 50, 286, H-mart 가까운 곳. 화장실, 세탁기, 냉장고, 인터넷, 남/금연자 환영.
571-236-0834 (Mrs. Roh)

페어팩스 VA 비엔나 전철역 걸어서 아주 가까운 곳. 직장인 환영
703-419-0337

셜약가든 근처 싱글홈 방렌트 방1, 화장실 1, 냉장고, 인터넷/취사가 가능. 출입문 별도. 금연자, 즉시입주.
571-243-6295

페어팩스 쾌적한 숲속 환경타운하우스, 밝은 채광, 2층, 노바 7분, 조지메이슨 7분 남학생 환영.
571-554-4224 (문자 요망)

애난데일 방 렌트. 전망이 좋고 깨끗합니다. 가구완비, 학생, 직장인 환영 (여자분)
571-232-6052

애넌데일 방 렌트(원룸스타일), 침대, 책상, 냉장고, 전자렌지, 개인사워실, 키친 완비
571-232-6052

아난데일 H-마트 뒤 화장실 딸린 큰방
703-300-8669

저먼타운 MD 콘도 큰방1, 욕실 별도 금연자, 롯데 10분거리.
702-622-8853

클리프턴 유니온빌 물 부근 싱글홈 반지하 워크아웃 출입문 별도
703-732-9153

〈사무실/점포 렌트〉

아난데일 오피스 렌트 (쉐어) 사용공간 2개, 라셉션, 화장실, 부속실. 스킨케어, 한의원, 네일, 병원 적합.
703-989-1933(애니)

애난데일 지역 오피스 렌트 오피스 전체 4Room \$1,600 1사무실 \$500 (전기, Wifi 포함)
703-209-5150(Message문자주세요)

애난데일 한강위 고급콘도의 사무실렌트
703-835-7404 (Wifi 제공)

애난데일 미용실 내내 룸 (침대 2개와 티테이블 놓을 수 있는 사이즈) 스킨케어, 타투, 속눈썹, 매니큐어 기타 등등 활용 가능. 헬퍼 구합니다.
301-852-9298 (문자)

페어팩스 지역 오피스 룸 방 1, \$500, \$900, 와이파이, 화장실, 부엌있고 충분한 주차장.
703-966-9937

부동산 매매

〈싱글/타운/콘도 매매〉

애난데일 H mart 옆 콘도 매매 (owner) \$340,000 방 2 화 2 세탁기 1218 SF. Condo fee \$390
703-350-1986

1, Coming Soon 애난데일 싱글홈 \$899,900 완전 업그레이드하고 리노베이션 한 단독 주택, 방4, 화4, 편리한 렘블러스타일 2, 스프링필드 \$549,900 타운하우스, 방4, 화2½, 1,612s.f., 교통편리, Walkout Basement, Fenced Backyard, Braddock Rd와 Backlick Rd 만나는 동네
▶703-477-3114

렌트 수입 좋은 콘도 5채 매매 - PG 카운티에 위치 - 경비 제외한 순렌트 수입 \$5,000/m

-매매가 \$699,000(Cash Only) Serious Inquiry Only
▶703-244-3453 *Agent 환영

- 근교 (I-66 Exit 47) 주택 추천 교통 및 생활여건 좋아진 Manassas, 병원, 쇼핑몰, 한국 그로서리, 식당 등 근린 생활 기반이 잘 조성되어있는 지역
- 싱글 \$520,000-590,000 방 3, 화 2.5, 0.3에이커 대지 단층집, 워크아웃 베이스먼트
- 타운하우스 \$440,000 방 3, 화 2.5, 1car 거라지
- 콘도 Main level \$300,000 방 3, 화 2, 콘도 Fee \$260/월
▶703-483-0505

스프링필드 공원 옆 좋은 위치 싱글홈 위층 방 3개, 화 1개, 부엌, 리빙룸, 다이닝 / 아래층 방 2개, 사무실, 화 2개, 현관 리빙룸 / (세탁기, 히터, AC)
703-336-3283(자세한 사항 문의)

〈부동산/상업용 매매〉

- 미용실·바버 \$70,000 Manassas Sudley Road 사펴물, 1,500스퀘어, 부스 10+3, 저렴한 렌트비
- B2 상업용 용지 \$2M 2.4 에이커, 인근 800세대 신규 주택지 개발 중인 진입로 독점적 위치, 상가 개발 환영
▶703-483-0505

성업중인 미국 당구 스포츠 바 매매/리스 메릴랜드 로열 포트미드 베이스 앞 13,000 SF, 28 당구대 완비 경험 많은 Serious Inquiry Only
▶703-244-3453

Vienna VA /Diamond Nails Spa 매매 · 주소: 108 church st NE Vienna VA 22180 · Sale Price: \$290,000 · Weekly's sales: \$6300. (평균) · 단독건물 단독사용, (약 3000SQF) · 원하시면 건물 매매도 가능합니다. · Potential: Head Spa, Hair salon, Upgrade Massage, Upgraded Facial · 파트너십 / 여러 다양성을 키울수 있습니다 · Rent: \$7880 (모든것 포함) (10년간 렌트 인상 없습니다) · 노던 버지니아에 최고의 심장부에 위치한 최고에 장소입니다
▶571-421-0863

버지니아 한인타운 성업중인 반찬집/떡집/레스토랑 팝니다. 1700sf. 한식, 일식, 중식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703-989-4301

글렌버니에 새로 시작하는 리커스토어를 매니지먼트로 자기 사업 하실 분. 문의: 443-262-1813

일식집, 예쉬번 좋은 위치 무한 발전 가능한 곳 관심있는 분 연락 주세요.
703-951-2203

컨비니언 스토어/매입 - 그로서리 매입 / 현상 매입 결정 - 결정 당일 현금 지불 *이메일, 문자 환영
6313125na@gmail.com/443-631-3125

알렉산드리아 location 아주 좋습니다. 한국치킨가게 개인적 사정으로 내놓습니다. 문의전화: 703-975-7718

- 메릴랜드 자이언트엠티 - Sea Food 매매 \$195,000/주매상: \$9,500/렌트: \$3,750 All(6일근무) 부부 가능. 좋은장점 있음.
- DC.리워 비즈니스 매매 \$190,000 연매상: \$598,000/6일근무/전체 2400/SF 1.2층.B1(공간활용 가능) 571-242-3736 (연락주세요)

For Sale: Coin Laundry and Commercial Building/ Location: Richmond, VA Sale Price: \$2,300,000 Monthly Sales: \$22,000 Coin laundromat, retail store, carwash 포함된 상업용 건물 매매입니다. 연락처: jnrcoin777@gmail.com

기타

치과 임플란트: \$1,000 임플란트 크라운, 별도: \$750 다양한 종류, 형태의 임플란트 전문 Full Mouth Case -40년 경력
▶703-569-8000

운전 면허 VA·MD 불체자에게 면허정식 발행 필기요점정리·예상문제/한국-타주면허/Real ID 신청/차량 구입·등록/기타 교통국 업무
▶571-294-0057 (Jim Dong)

OK택시 공항·장거리 최저요금로 모십니다
▶240-796-0093

버크레이크에서 멀세레이크까지 오솔길 6마일(2시간) 걷기 · 장소: 버크레이크 헬터 / · 시간: 일 아침 9시 - 숲속길 걷기 좋아하시는 분 항상 환영 - 포시즌 워킹 클럽
▶703-939-5223

시니어분들 돌봐 드립니다. 단/ 장기 기간도 주인이 직접 한국식으로 돌봐 드립니다. 1에이커 넘는 깨끗하고 넓은 정원 ,노바대학과 벨트웨이 중간지점 (예촌 2분거리), MD 타주 분들도 환영! 직접 방문 확인!
▶571-278-8811

ZOOM-ART - Pen & Water Color - 누구나(성인, 시니어) / 주 1회 90분 수업 - 기초반 / 중급반 / 고급반
▶문의: 703-678-6639

유기견 해외입양 이동(입양보호) 봉사자 한국에서 미국 돌아 오시는 길에 유기견 해외 입양보호자 봉사 하실분. 비용과 서류 절차 등은 유기견 단체에서 다 제공하며 봉사자가 별도로 하실 일은 없습니다. 유기견 들의 새로운 삶을 위하여 봉사바랍니다.
▶문의: 카톡 ID 연락처 sibang0622 전화 010-8944-3363, 703-244-3453

통역 서비스 친절히 도와드립니다. 관공서 서류 대행, 심부름 대행, 퍼밋대행, 이민국 인터뷰, 병원, 카운티, DMV, 등... 차없으신분 라이드 가능
703-939-2737

컴퓨터 업그레이드, 고쳐드립니다. 데스크탑, 랩탑, Mac 컴퓨터 데이터백업이나 수리, 새제품, 중고제품 판매
703-624-2295

Golf 레슨합니다. 초보자 원포인트 환영
706-203-5800

Falls church VA 메모리얼 파크 최고 명당 한자리 풀 옵션 절반 시가로 판매
443-355-7700

Math Tutoring (수학 지도) Algebra/ Calculus/ Geometry 703-945-2991 (Text) Mr. Lee

중 / 고 수학과외 Algebra, Geometry, Calculus, SAT 등 intensive learning 703-946-4969/ inyeolchoi@hotmail.com

〈중고품/기타 매매〉

LG UHD AI ThinQ 65" 4K Smart TV \$230 거의 새것. TV original box/case. 문자요망
571-232-6071

2009년 커머셜 Ford 450/110,000마 일/\$55,000 301-751-1631

에어컨디션 4대 팝니다. 6개월 사용했음 6,000/8,000 / 10,000 / 12,000 (포타블 이동식) 새 것과 다름없음. 전부 \$250 703-635-9998 메세지 주세요(첼트리)

〈건축/페인트/마루〉

TOP 건축 콜롬비아 MD - 집수리전문 / 각종 집수리 일체 / 지하실, 주방, 욕실 / 전기설비, 타일 마루 / 루핑, 카펫, 페인트 / 각종 목수일 일체
▶443-980-1167

JL 건축 주방 & 욕실 리모델링 예쁘고 실용적인 주방과 욕실을 디자인하여 만들어 드립니다.
▶문의 전화: 703-910-0400

Park's Floor 경력 20년 이상. 우드, 카펫, 장판 LVT, VCT, Laminate, 무료견적
▶703-395-0050

레드문 페인트 하우스페인팅(In,Out), 텍 메인テナンス와 클리닝, 샌딩, 파우워워시, 핸드맨서비스
▶문의: Mr.문 703-965-3011

TK 30년 경력 종합건축 빌딩시설 관리 전문회사 / 건축, 시공 및 건물 시설의 체계적인 유지보수 대행 관리,

상가 및 빌딩 신축, 리모델링, 식당 및 사무실 공사 일체 / 자체 라이선스 보유, 책임보험 가입
▶703-504-6116

와니 건축 페인트, 마루, 타일, 부엌, 화장실, 텍, 그외모든공사, 주정부 라이선스 보유, 책임보험 가입, 카톡 아이디: wani6811
▶571-331-6811

K&J Painting 실내외 페인트 전문 업체 30년 경험과 신용 / 목수, 각종 집수리
▶240-687-5155

〈보험〉

조은혜 종합보험 메디케어 & 오바마케어 신청접수 자동차/주택/사업체보험
▶703-591-0009 / 703-537-9899

〈용자〉

제인 최 용자 25년 경력 매입/재용자/특수용자
▶703-244-3453

마이클 장 용자 주택/상업용자/재정상담
▶410-370-4229

페어웨이 에셋 신싱턴 한인 전문 용자회사 - 낮은 이자 / Cashout / 명의변경 / Mortgage Insurance Remove
▶703-204-0022 / 703-727-9730

〈소독/가스검사〉

JD STAR 소독 (Mr. 은) Rats/Mice, Insect, Termites
▶410-370-8057

라돈가스 검사 폐암을 일으키는 라돈 가스는 집에서 발견되는 문제의 가스입니다. NRPP 면허소지
▶202-774-6554

〈냉동 & 히팅〉

L&B UNIVERSAL 히팅, 에어컨 가정용/산업용 전문 제일 대규모의 냉난방 회사, 덕트 클리닝
▶703-678-1749

인테리어 냉난방 에어컨, 히터, 히트펌프, Carrier, Trane 딜러, 덕트, 드라이어벤트크린, 가정용/산업용
▶문의: 703-380-2282

JD 냉난방 (Mr. 은)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크인 ELECTRIC CONTROLS SPECIALIST 냉난방 TEACHER
▶410-370-8057

아라냉동 에어컨, 히팅, 냉동, 보일러, 세탁장비, 케리아웃 장비수리, Ice Maker, 플러밍, 지하수 펌프, 정수장치 *연중무휴 무료점검
▶443-850-3703 / 410-979-4242

쥘이텍 냉난방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킹롤러, 워터히터
▶443-280-1873

정스 냉동(가정용/상업용)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전기, 플러밍, 워킹롤러, 아이스머신, 덕트설치 & 크리너
▶301-572-2786/403-953-0801(Mr. Chung)

〈보석〉

골든벨라보석 (센터빌, VA) K24, K18, K14, K10, 다이아몬드 고가매입
▶703-988-0033 / 301-792-5615

골든 듀 보석 백금, K14, K18, 다이아몬드 판매. 결혼 예물, 아기 돌반지 팔찌
▶410-480-2477 (엘리콧시티, MD)

〈카펫·에어덕트 크리닝/마루〉 토탈카펫 25년 전통과 신용 최저가격보장, 카펫 / 하드우드 / 타일, 주거용, 상업용 한번시공은 끝까지 책임집니다.
▶703-909-0988

베스트 카펫, 카펫 및 에어 덕트 크리닝 최상의 트러파워시스템삼푸, 살균, 소독, 냄새 및 얼룩제거, 브러쉬, 파워 폴청소, 응급수해복구 및 타일 플로우 왁스
▶703-967-4155

〈플러밍〉

SK 플러밍 화장실, 키친 리모델링, 운수, 히터 디쉬워셔, Disposals, 상하수도 수리교체
▶703-989-0103

제임스 플러밍 수도꼭지, 변기, 하수도 뚫음, 상하수도 수리교체, 배수 펌프, 운수, 히터교체, GAS공사, 히팅, 에어컨, 냉동 집안밖 물새는 것
▶703-499-5984

〈이삿짐〉

Movers LLC (GOOD HAND) - 이사 / 배송 서비스 전문 - 쓰레기 / 폐기물 처리 571-982-9871(Korean) / 202-802-2858
▶sales@moversdmv.com

MI 이사짐 (24/7) 빠른·책임·값이 싼·포장이사·서비스·자재
▶571-364-4185/mimovingllc@gmail.com

정크 8282 각종 딜리버리 소량 이사 전문, 비즈니스 폐업, 각종 철거전문 가정/사업체에 안쓰시는 가구, 가전품 등을 처리해드립니다.
▶571-723-0446

범양 해운 정확한 선택, 확실한 만족, 귀국 이삿짐 포장이사, 타주이사(차량운송) 무료견적
▶703-298-1919

HD 현대 통운 미동부 최대 운송회사, 귀국, 해외, 타주, 시내 이사, 고품격 포장. 자체창고 보관 서비스 한국 화물 배송 서비스
▶703-339-8844

고려 통운 세계 어느곳, 어디든지 가능 ICC 인가업체, 100% 자체보험 확실한 세관처리 및 서류작성 한국에서 지불가능
▶703-550-2424

조양 운송 신속, 안전, 신용, 저렴, 20년 전문 귀국이사, 포장이사, 타주, 시내 이사, 자체 창고 보관
▶703-550-5550

〈핸디맨/리모델링/전기〉

핸디맨(애난데일/페어팩스/센터빌) 20년 노하우로 집에 관한 모든 작은 일도 시원하게 고쳐드립니다. 페인트/플로밍/전등/하팅크 등 교환·수리
▶571-567-5165

Repair, Remodeling VA Class, Insured, Since 1999 ~
▶571-239-8525

BBG 블라인드 버지니아 20여년 이상의 전통과 기술 한국산 블라인드, 친환경 원단, 하이퀄리티, 무료견적, 최상의 서비스, 합리적인 가격
▶571-229-4633

H.P.C 집수리 센터 집안밖의 문제를 도와드립니다 집안-리페어, 핸드맨서비스 집밖-창문, 사이딩, 거터, 루핑, 데크 등
▶571-594-4080

집수리·가게수리 LLC 핸드레일, 계단, 계단손잡이
▶703-340-5858(VA)/443-980-5858(MD)

JIP Electrician & Contractor Inc. 전기에 관한 모든 공사 가능. 라이선스 소지 전화상담 환영, 무료견적, 철저한 AS
▶703-929-9601

전기공사, 페인트 리모델링 각종 전기, 카메라, DATA 24시간 출장가능,
▶703-582-7757

Nest Energy Service, LLC EV 전기자동차 가정용 충전기 설치 및 리베이트 도와드립니다. 전기마스터면허와 1M 보험 보유업체
▶703-855-3565

〈유리〉

JK유리 & Window 상점, 가정용 유리, 거울 Frameless 샤워도어 Aluminum, Door 설치, MD/VA/DC 지역
▶703-346-5962

〈임업 멸칭〉

Alliance Land Management 토지개간 / 자란 들판 잔디 깎기 울타리 라인, 산책로 및 목초지 관리
▶540-905-2849

생활안내 줄광고 무료 게재요청 kdclass2018@gmail.com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상업성 광고는 줄광고로 무료게재하지 않습니다.)

보험

“메디케어” & “오바마케어” 신청접수!

59년생, C플랜, 약보험

신규가입 · 재가입

자동차 주택 사업체 보험

“보험료”를 확실히 내려 드립니다!

조은혜 종합보험

10560 Main St., Ste 201
Fairfax, VA 22030

☎ 703-591-0009 / 703-537-9899



냉·난방

“냉·난방은 제대로 설치해야 영구적”

오래되고 값은 고장이 기계 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유니버설이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교체드립니다.

히팅·에어컨 가정용/산업용 전문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Carrier, Lennox 전문딜러

큰 규모의 미국 회사는 너무 비싸고
혼자 일하시는 한국 회사는 잘 못 믿으시겠지요?
한인 최대 규모로 저렴하고 정확하게 서비스 해드립니다

VA·MD·DC 지역에서
제일 큰 규모의 냉난방 회사,
L&B Universal



덕트 클리닝
최신장비로 서비스 전문을
확실히 비교해 드립니다.

에어덕트 속 피트 먼지와 세균
알라지와 질병의 시작
믿을 수 있는 전문인력이
더욱 깨끗이 청소해드립니다.

L&B UNIVERSAL
HEATING AIR CONDITIONING MAINTENANCE
"Because Comfort Should Be Universal"

Office: 703-618-4822
Cell : 703-678-1749

3852 Dulles South Ct. #G Chantilly, VA 20151
www.LBuniversal.com
www.facebook.com/LandBUniversal

건축 / 페인트

TK 종합건축

Since 1988

30년 경력 종합건축·빌딩시설 관리 전문회사

- ▶ 건축·시공 및 건물·시설의 체계적인 유지보수 대행 관리
- ▶ 상가 및 빌딩 신축·리모델링 ▶ 식당 및 사무실 공사 일체
- ▶ 건물 및 시설 유지보수·관리 대행

무료견적
설계/허가/디자인
시공/유지보수관리

자체 라이선스 보유 및 건축공사 책임보험 가입

Tel : 703-504-6116 / Cell : 703-675-7401

와니건축

Repair Doctor

페인트, 마루, 타일, 부엌, 화장실, 욕,
그외 모든 공사

책임시공/신속처리

-주정부 라이센스/책임보험가입-

Call 24시간가능

(사진보내주시면 즉시 무료견적)

카톡 ID : wani6811

571-331-6811

레드문 페인트

주방, 상가 페인트 전문 닥터

벽, 마루, 캐비닛 샌딩 보수

플로잉, 핸디맨 서비스

703)965-3011

라돈 가스 검사/유리

라돈 가스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라돈 가스는 폐암을 일으키는 원인 중에 2위에
해당하는 보이지 않고, 냄새도 나지 않는 집에서
많이 발견되는 **문제의 가스**입니다.
미국 15채중 1채는 문제가
심각하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꼭 **검사**하셔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십시오.

NRPP 면허소지 202-774-6554

JK 유리 & Window

C.703-346-5962

상점/가정집 유리 · 거울

Frameless 샤워도어/Aluminum/Door 설치

MD · VA · DC 지역, 신속시공

이삿짐 / 재테크 / EV 충전기 설치

범양해운 귀국 이삿짐/차량운송



포장이사 및 타주이사 / 주재원 귀국이사 전문
범양해운이 책임지겠습니다.

- 자동차 운송
- 수출입 화물(선박, 항공)
- 소량화물 / 유학생 우대
- 분실 / 파손 보험커버
- 쓰레기 처리가능
- 무료견적
- Door to Door Service
- 창고 보관 및 유통관리
- VA/DC/MD ↔ NY 정기운행
- 타주이사

범양해운 USA Tel.703-298-1919
7000 Newington Rd. #H, Lorton, VA 22079

www.vapumyang.com / va@pumyang.com / vapumyang@gmail.com

KOREA(SEOUL) 02-2083-2083 KOREA(BUSAN) 051-469-4191 USA(LOS ANGELES) 310-767-5699 USA(SAN FRANCISCO) 510-887-2424

USA(SAN DIEGO) USA(NEW JERSEY) USA(TEXAS) USA(ATLANTA)

HD 현대 통운

귀국, 해외 이사
타주, 시내 이사
귀국, 타주 차량운송

한국 소량 화물 배송 서비스
고급 포장이사 서비스
자체 창고 보관 서비스

미동부 최대의 운송회사

703.339.8844

www.HDmovingusa.com

고려통운

세계 어느곳이나! 세계 어디든지!

ICC인가업체

- ◆ 세계 84개국 체인 유통망 확보
- ◆ 100% 자체보험으로
- ◆ 고객의 추가 보험료 불필요
- ◆ 확실한 세관처리 및 서류작성
- ◆ 한국에서 지불가능 (후불)

Tel.703-550-2424 Fax.703-550-2426
GORYOEXPUS@hotmail.com

7350-E Lockport Pl., Lorton, VA 22079

조양운송

- 신속
- 안전
- 신용
- 저렴

[703]550-5550
choyangusa@hotmail.com

Movers LLC



이사 / 배송 서비스 전문

(Professional all types of moving service)

쓰레기 / 폐기물 처리

(All types of junk removal)

571-982-9871(Korean) / 202-802-2858
sales@moversdmv.com

MD 업소 안내

냉난방

JD 냉난방

Mr. 은

410-370-8057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킹인, 아이스 머신



소독

소독 JD Star Pest Control

Mr. 은
Owner / Certified Applicator

410-370-8057
410-370-8484
Rats/Mice, Insects, and Termites



JIP Electronic & Contractor Inc.

전기에 관한 모든 공사
Master Electrician
Class - A 라이선스 소지

전화상담 환영/무료견적/철저한 AS

대표 : 박을구
703.929.9601

보석

Golden Dew Jewelry



기쁨과 행복을 드리는

골든 듀 보석

- ◆ 백금(Platinum)
- ◆ K14, K18, Setting 전문
- ◆ G.I.A. E.G.I. 다이아몬드 판매
- ◆ 결혼 예물 셋팅 전문
- ◆ 순금 아기를 받지 팔지
- ◆ 남양진주 각종 보석 취급
- ◆ 각종 결혼식, 약혼식 예물용
로렉스시계 전문 판매
- ◆ 각종 보석 감정수리 상담

410-480-2477 8801 Baltimore Nat'l Pike
엘리컷시티 롯데몰라자 내 Ellicott City, MD 21043

건축

Top 건축 MD

집수리 전문

- ◆ 각종 집수리 일체
- ◆ 지하실/주방/욕실/전기설비
- ◆ 타일 마루/루핑/카펫/페인트
- ◆ 각종 목수일 일체

443-980-1167

전기공사, 페인트

- ◆ 각종 전기, 카메라, DATA
- ◆ 24시간 출장가능
- ◆ 리모델링

703-582-7757

에어컨&히팅 / 핸디맨 / 리모델링 / 플러밍 / 카펫&크리닝 / 블라인드 / 마루 / 페인팅 / 이사

애난테일·페어팩스·센터빌 핸디맨

20년 노하우로 집에 관한 모든 작은 일도 시원하게 고쳐 드립니다!

페인트, 플러밍, 전등, 토일렛, 퍼셋, 핫탱크 등 교환 및 수리

T. 571-567-5165

토탈카펫

25년의 전통과 신용으로 **최저가격** 보장

카펫 / 하드우드 / 타일

주거용 **703.909.0988**
 상업용 한번 시공한 것은 끝까지 책임집니다.

Chung's Refrigeration
정스냉동

가정용 상업용

에어콘, 히팅, 냉동, 냉장, 전기 프러밍, 워킹쿨러, 아이스 머신 덕트설치 & 크리너

한국 미국 경력30년

Mr.Chung
301-572-2786
703-953-0801

Master Licensed & Insured Contractor
인터테크 냉난방

에어컨 / 히터 / 히트펌프

미국회사 10년 경력 Carrier, Trane 딜러 덕트, 드라이어 벤트 크린

가정용 상업용

www.intertechvac.com
703.380.2282

냉동·냉장고 사고팝니다

아라냉동 판매장 및 장비 수리 센터

에어콘·히팅·냉동·보일러·세탁장비 수리
 케리아웃 장비수리·Ice Maker·플러밍
 지하수 펌프·정수장치

연중무휴 무료점검

TEL. (443) 850-3703 / (410) 979-4242

MI 이사짐

빠른·책임·값이 싼 24/7 포장이사·서비스·자재

571-364-4185

mimovingllc@gmail.com

쥬이텍 냉난방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킹쿨러 워터히터
 플러밍 전기

Master HVAC Contractor
 Master Plumber/Gas Fitter

443.280.1873
410.917.1888 Lee

저렴한 가격! 최고의 만족!

SK 플러밍

▶ 화장실, 키친 리모델링
 ▶ 싱크, 욕실, 화장실, 무역
 ▶ 수도꼭지 / 변기 / 하수도 뚫음
 ▶ 온수, 히터 (가스/전기)
 ▶ Dishwashers, Disposals
 ▶ 상하수도 수리교체 / 배수 펌프
 ▶ 철 핸드레일 리페어 및 각종 용접

MD·VA 24 hours 7days Service

703-989-0103

32년 전통의 **베스트**

카펫 및 에어 덕트 크리닝

- 최상의 트럭파워 카펫 스티밍 샴푸 (고온 300°F)
- 살균, 소독, 냄새 및 얼룩 제거
- 최상의 브러쉬 발크 에어덕트 크리닝
- 파워 폴청소 (택, 사이딩, 벽돌 및 마블플로어)
- 응급 수해복구 및 타일
- 플로어 왁스

서비스 지역 : VA, MD, DC
703.967.4155

제임스 플러밍

저렴한 가격으로 최고의 만족을!

- 수도꼭지, 변기, 하수도 뚫음
- 온수, 히터 (가스, 전기)
- 상하수도 수리교체, 배수 펌프
- Gas 공사, 히팅, 에어컨, 냉동
- 집 안밖 물새는것

24Hr

703.499.5984

핸디맨 Since 1999

REPAIR
 REMODELING
 VA Class A. Insured

571.239.8525

집수리,가게수리 LLC

핸드레일, 계단, 계단손잡이

작은일도 성의껏 일합니다.

703-340-5858 (VA)
443-980-5858 (MD)

H.P.C 집수리센터

집안밖에 문제를 도와드립니다!

- 집안-리페어, 핸디맨 서비스
- 집밖-창문, 사이딩, 거터, 루핑, 데크 등 일체

“일단 전화주세요!”
 상세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VA Class A 라이선스 보유 * 라이어빌리티, 워커스컴 보험 보유

571-594-4080

JL 건축 주방 & 욕실 리모델링

예쁘고 실용적인 주방과 욕실을 디자인하여 만들어 드립니다.

703.910.0400

K&J PAINTING

실내외 페인트 전문업체
 30년 경험과 신용
 목수, 각종 집수리

Licensed and insured

240-687-5155

BBG 블라인드 전문업체

- 한국산 콤비, 롤스크린 블라인드
- 한국산 전동 블라인드
- 한국산 Triple Shade 블라인드
- 한국산 나비주름, 형상 기억 커튼
- 한국산 Cordless 블라인드
- 한국산 Smart Curtain
- 상업용 블라인드 전문제작
- Interior의 완성 블라인드

VA-MD-D.C 무료견적

571.229.4633
www.bbgbllinds.com / bbgbllinds@gmail.com

PARK's Floor
 마루경력 20년/견적무료

- 우드, 카펫, 장판 (Hardwood/Carpet/Vinyl)
- LVT (Luxury Vinyl Tile)
- VCT (Vinyl Commercial Tile)
- 라미네이트 (Laminate)

703-395-0050

임업 벌칭 / 토지, 들판, 잔디, 올타리, 목초지 관리

ALLIANCE LAND MANAGEMENT
 FORESTRY MULCHING & LAND SERVICES

핸드폰 540-905-2849
 이메일 SALES@ALLIANCELANDMANAGEMENT.COM

전 후

임업 벌칭이란 무엇입니까?

임업 벌칭은 자란 나무, 덩굴, 초목을 토양에 최소한의 교란을 주면서 잘게 잘라 멀칭하는 특별한 기술입니다. 뿌리 덮개는 원치 않는 식물의 성장을 억제하고 토양 침식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임업 벌칭

- 토지 개간
- 자란 들판 잔디 깎기
- 올타리 라인, 산책로 및 목초지

전 후

용자 가능

군인, 응급 구조대원, 간호사, 교사에 대한 할인 요금

L & B UNIVERSAL

HEATING AIR CONDITIONING MAINTENANCE
 "Because Comfort Should Be Universal"



오래되고 잦은 고장의 기계 더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유니버설이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교체해 드립니다.



VA·MD·DC 지역에서 제일 큰 규모의 냉난방 회사, **L&B Universal**
 한인 최대 규모로 저렴하고 정확하게 서비스 해드립니다



L&B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 AIR CLEANER AND HUMIDIFIER
- INDOOR AIR QUALITY PROBLEMS
- FURNACES & AIR HANDLERS
- NEW FURNACE INSTALLATION
- FURNACE REPAIR SERVICE
- AIR CONDITIONERS & HEAT PUMPS
- AC INSTALLATION
- AC REPAIR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큰 규모의 미국회사는 너무 비싸고, 혼자 일하시는 한국 회사는 잘못 믿으시겠죠?



덕트 클리닝

Air에 관한 모든 것! L&B Universal 이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최신장비로 서비스 전후를 확실히 비교해 드립니다.

에어덕트 속 찌든 먼지와 세균
 알러지와 질병의 시작
 믿을 수 있는 전문인력이
 더욱 깨끗이 청소해드립니다.



Carrier, Lennox 전문딜러
 Office: 703-618-4822
 Cell : 703-678-1749
 HELPER, TECHNICIAN 구함

신속한 A/S·기술력과 서비스·경쟁력있는 가격
 3852 Dulles South Ct. #G Chantilly, VA 20151
www.LBuniversal.com
www.facebook.com/LandBUiversal

Nation Wide 미전지역 안내광고 동시게재

LA · 뉴욕 · 시카고 · 애틀랜타 · 워싱턴 DC

광고문의 213-368-2525

L.A. 애틀랜타 기타지역

매매 매매 구입

성업중인 우수선가게
토렌스 PV지역, 3만5천
년매 8만 (310)995-8925

가장 작은 광고로
가장 큰 만족을
얻을수 있는 광고
중앙일보

한식당 매매
한국 BBQ 식당
테네시 주 위치
매매가 69만불
텍스트로 먼저 연락 요망
(949)422-8332

쿡/쿡헬퍼
성실하신분 환영
중식당, 숙식제공
알래스카 주노지역
(907)209-1920



차별화된 한국제품이 많은~
미주 최대 한인 온라인 쇼핑몰
Hotdeal.Koreadaily.com

HOT DEAL LA KTown 213.368.2611
690 Wilshire Place Los Angeles, CA 90005

법무사가 되세요

대면 수업 시작!!!
항상 고소독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누구나 쉽게 배워 자격증을 받을수 있습니다.
목회자와 사모님을 위한 반을 다시 시작합니다!
International Pacific University
InterpacU.com
(213) 674 - 7000



개인 / 비즈니스 / 용자전문

- ▶ GOOD크레딧, BAD 크레딧 상관없이 용자상담환영
 - ▶ 비즈니스론, SBA론, 머천트론 전문
 - ▶ 개인용자, 카드용자 및 현금화 전문
 - ▶ 집 모기지 페이먼트 험드신분
 - ▶ 메이저은행에서 용자 거절된분 환영
 - ▶ 다스크레딧카드 한도 증액 후 재용자 가능
 - ▶ 사업체 운영 / 매매 / 폐업시 용자 가능
 - ▶ 역이민 고려하시면 연락요망 (귀국플랜)
 - ▶ 나쁜크레딧 리페어 빌드업 전문
- 중부컨설팅 (213)357-1010, (213)820-3912

꿈 을 위한 도약
중앙안내광고가 함께 합니다.
(213)368-2525

80~90대 · 비아그라 효과 없는 남성도 30분 전에
1알 복용으로 1주일 지속효과
강직도 · 지속성 · 전립선 비대증 · 한 번에 해결
천연 비아그라, 즉효성 남성 발기제
& 바르고 하면 끝내주는, 남녀공용 성욕과
성감 개선제, 유타유 젤 #10 남성발기 O 링
#12 천연 그대로, 오리지널 낙타 속눈썹 링
1-213-210-9720 (제품 상담 및 주문)

미주 중앙일보 스마트폰 App
미주 최대 뉴스 통합
한인 업소록 + 모바일 App
리스트 광고 문의 (213)368-2532

Leisure World Seal Beach, CA

고품격 은퇴마을
주택 구매자 조건

1. 연령: 만 55세 이상 (부부일 경우 한분만도 가능)
2. 지난 2년동안 세금보고서 사본 (첫째와 둘째 페이지 필요)
3. 401K, 은퇴연금, \$2,5만 or \$5만 (6개월 이상 은행예치 증명서 사본)
4. 집구매는 일시불로 지불 (Monthly Association Due와 Property Tax를 합한 액수의 4배 이상 월수입이 있어야 됨)

"황혼을 편안하고 행복하게"

알고 계십니까? 유토피아 라고도 불리는 완벽한 시설 바닷가 인근에 시니어를 위한 실버타운 "레저월드"

레저월드에서 거주하고 있는 전문 Agent
Philip Y. Bak (박윤택) Bro#01895031
Direct: (213)550-9991
Office: (562)235-3760
최선을 다해 도와 드립니다.
Berkshire Hathaway baksusa@yahoo.com

미라클터치로 살면 Up to 40% 할인 혜택
미라클터치로 살면
5파운드 이상 구입시 증정품 가격 판매
· 30년 1파운드 \$750 → \$550
· 40년 1파운드 \$1,500 → \$950
· 50년 1파운드 \$2,350 → \$1,500
· 전산살 40% ~ 50% 파격세일
US Wildlife & Natural Food Inc. (Dealer #90-447305)
3003 W. Olympic Bl, #201 LA, CA 90006
(213)800-3662 (818)518-0033

치질·치루 수술 안하고 OK
미라클터치로 발기 능력 쑥쑥
향문폴립·변비·요실금도 해방
새끼손가락 크기 향문삽입형, 사용 간편합니다
위산역류 확실히 좋아집니다
미라클터치로 췌속 독소 제거
불면증·이명·각종 통증도 탈출
아픈 부위 30초만 대면 독소가 터져 나옵니다
LA (213)675-6877 | OC (213)255-1410

잠 못 이룰 정도로 지긋지긋한 모든 통증

중풍, 류마티스 관절염은 불치병이 아닙니다.

요통, 척추간 협착증, 오십견 [수술, 진통제 없이 치료합니다!]

환자와 가족 모두 놀라는 중풍환자 실제 치료사례
[사진왼쪽, 서영수 한의학박사와 델희노씨]

히스패닉
중풍환자
2개월 치료받고
"이제 웃을 수 있어요"

10여일 만에
뼈아픈 류마티스
관절염 통증에서
벗어난
실제 치료사례

성민산삼한방병원
Tel. 213.385.3304 Cell. 213.503.3304

[사진 오른쪽 치료전, 치료후]

Nation Wide 내 광고가 전미주 동시게재??!!

미주 전지역의 광고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미국 전지역 안내광고

LOS ANGELES | 시카고 | 뉴욕 | 애틀랜타 | 워싱턴 DC

2024학년도 여름학기

신입생 | 편입생모집

실시간 인터넷 소통 화상강의(Zoom)를 통하여, 전세계 어느곳에서나 함께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2024 여름학기 개강 6월 18일

본교 지원시 특전

- 1) RPCA 개혁 장로회 한미연합총회에서 목사안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2) 목회자나 선교사님들, 그의 자녀들에게 장학금 혜택이 있습니다.
- 3) 본교는 미국 신학교 협의회에 가입된 회원학교입니다. 서로 학점 교환이 가능합니다.

신학학사과정 (B.Th) 목회학석사과정 (M.Div)

목회학박사, 교육학박사, 신학박사, 철학박사과정 상담가능 (NYTS)

상담전화 | 213-272-6031



미주 크리스천신학대학교(원)
CHRISTIAN THEOLOGICAL UNIVERSITY IN AMERICA
439 S. Western Ave #100 Los Angeles, CA 90020

독점 Alexandria 킹타운 콘도

방2, 화장실1, 세탁기, 건조기, 계단없는 1층, 단지내 시설 좋음, 걸어서 쇼핑센터, 교통 좋음 **\$329,900**



Contract

독점 단독주택 Alexandria

리모델링한 부엌 (새 주방용기, Granite counter-tops), 리모델링한 화장실, 새 나무 마루, New Paint, 방4, 화장실2, As-Is **\$589,900**



독점 Annandale 콘도

방3, 화장실2, 남향, 밝은 집, End unit, 1,475SF, H-Mart 가까운 동네. **\$380,000**



독점 Springfield 콘도

방2, 화장실2, 계단없는 1층, 나무마루, 업데이트 **\$317,000**



독점 Woodbridge \$2,750

2층 타운 홈, 엔드 유닛, 2,362 SF, 차고1, 고급 나무 마루



Rented



대표 정희수
703.477.3114

성실을 실천하는 부동산!

**행복 가득한 편안한 집을 소개합니다!
내집 마련의 꿈!
현대 부동산이 함께합니다!**

상담환영 (집 파실 분·사실 분·경매)



Principal Broker 세리 리
703.244.6526